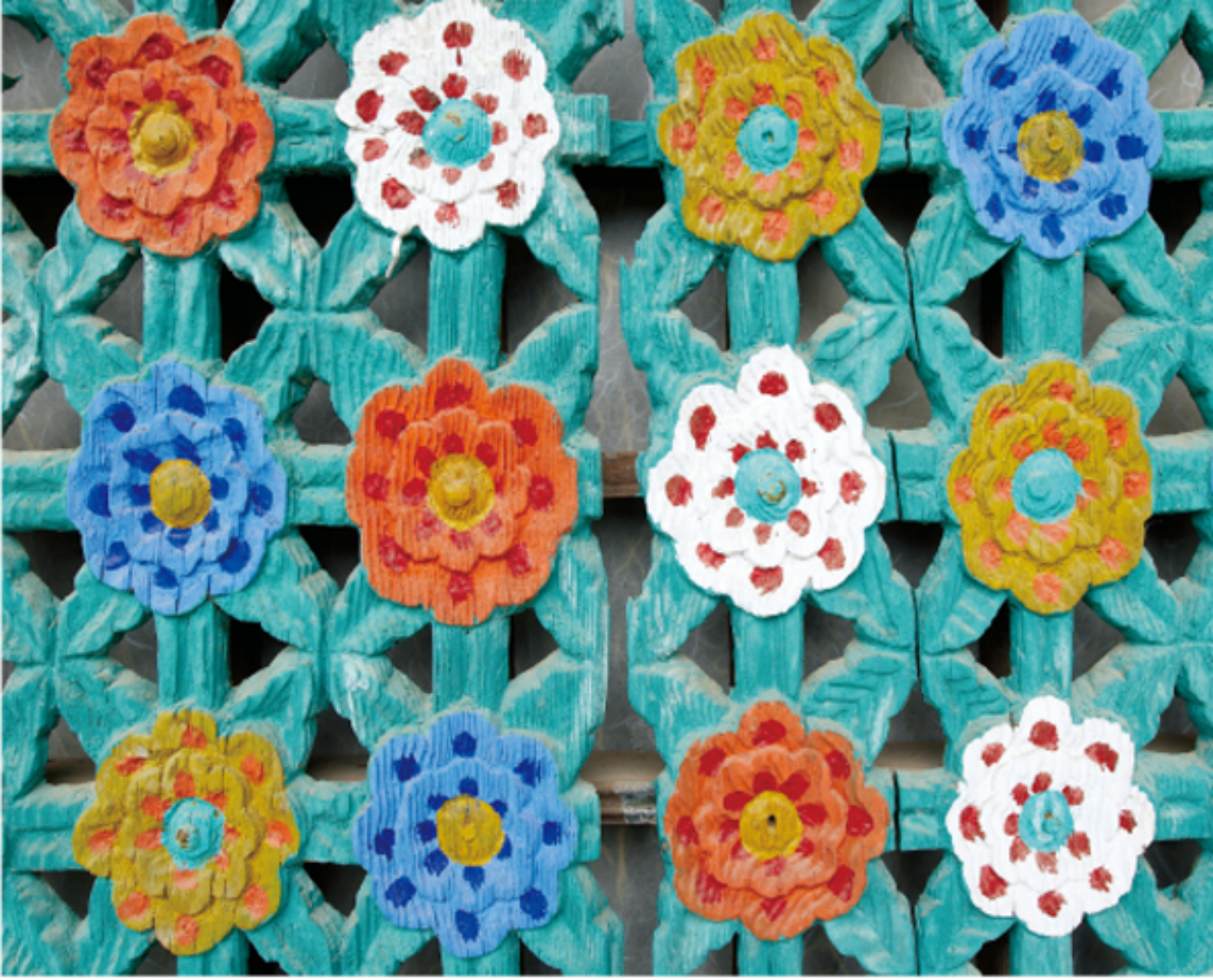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519-01

2008년도
문화 유산 교실 수업 프로그램
공모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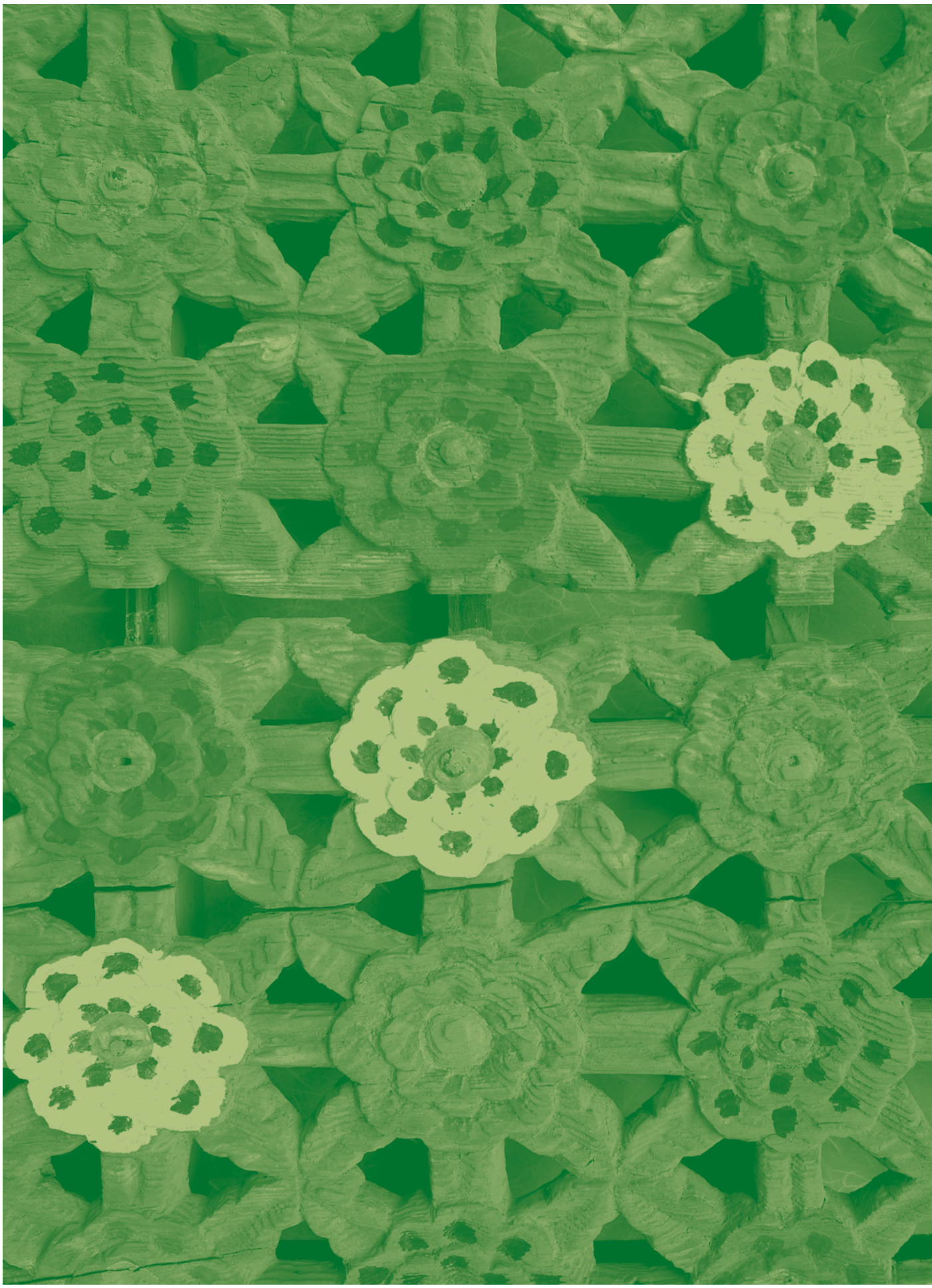
재미있는
문화 유산 수업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일러두기

- 이 책은 2008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 유산 교실 수업」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10건의 우수 교수안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 책자와 함께 수업 시간에 쓰일
학습지, 파워포인트, 사진, 그림 자료를 담은
활용 CD를 첨부하여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문화 유산 수업

2008년도
「문화 유산 교실 수업」 프로그램
공모 우수작

발간사

먼 과거 속 조상들이 만들어 낸 문화재는 현대를 걷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면서도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한 채 쉽게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푸른 이끼 낀 궁궐 돌담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나 정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청소년에게 우수한 문화재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학습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날 발전한 시청각 기술과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 유산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유산 교실 수업」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문화재 실물 학습, 박물관 학습, 문화재 현장 체험 학습, 조사·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 등 유형별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우수 교수안을 10개 선정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의 호패, 김홍도나 신윤복에 묻혀 알려지지 않은 풍속화가 김득신, 전통 건축물에서 발견하는 수학적 요소, 하회탈과 탈춤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수안은 서로 다른 교과와 연계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 반응하는 수업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수 학습 프로그램 공모의 결과로서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의 손으로 직접 꾸려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수업을 보다 짜임새 있고 즐겁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참여하신 선생님과 함께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008년 12월
문화재청장 이건무

차례

11page

1. 박제상 유적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 기르기

울산 염포초등학교
김 찬 곤

33page

2. 아름다운 제주의 옛 모습을 찾아서

제주 표선초등학교
강 경 민

57page

3. 우리 곁의 친근한 수호신,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경기 탄벌초등학교
권 은 주

81page

4.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직지심체요절』

청주 대성초등학교
정 원 종

105page

5. 미션명: 이매의 턱을 찾아라! (우리의 하회탈과 친해지기)

인천 부내초등학교
황 재 인

129page
6. 소리로 엮어 가는 우리 이야기, 판소리
성남금상초등학교
박 주 만

153page
7. 생활의 순간 포착! 풍속화 〈야묘도추〉
서울영도초등학교
백 유 라

177page
8. 우리 전통 건축에서 수학이 보여요
원주상지여자중학교
안 진 화

201page
9. 조선 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부산화신중학교
문 지 영

225page
10. 전통미를 담은 디자인
경기동구중학교
곽 정 원

1.

박제상 유적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 기르기

울산 염포초등학교 김 찬 곤

산[山]갈대의 어느 것에 연력히 보이는
그 자릿한 핏방울의 흔적은
옛날에 우리 박제상(朴堤上) 어룬이
일본(日本)에 사신(使臣) 가서, 일본 신하(臣下) 되라니까,
신라(新羅) 개돼지가 차라리 더 좋다 하고,
두 발의 발 밑 껍질 두루 다 벗기우고,
칼날 같은 갈대를 깔아 놓은 자리를
뻐 쓰리게 걸리울 때 배어 든 것들이다.
아이들아.

그리고 여기 어리는 사모친 통곡 소리는
그 부인(夫人)이 말을 타고 바닷가로 달려가서
멀리 일본 가는 남편의 배를 보다가
망부석(望夫石)이 되어 갈 때 터트리시던 것이고,

또 여기 보이는 치술신모(鵄述神母) 님의 미소(微笑)는
그 망부석이 다시 풀려 선녀(仙女)가 되어
겨드랑에 자녀(子女)를 두루 끼리고

치술령(鵄述嶺)에 오르실 때의 그분의 것이다.
내 아이들아.

서정주, 「갈대에 보이는 핏방울 흔적」,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이번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신라 시대의 충신 박제상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박제상은 눌지왕(訥祗王)의 왕의 아우 미해를 구출하려 목숨을 걸고 왜로 거짓 망명을 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미해를 무사히 탈출시키지만, 자신은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왜의 왕이 하는 달콤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다 결국 순국했다. 이러한 박제상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버리고 남을 구하는 희생 정신, 옛 충신들이 중요시했던 나라와 백성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제상의 아내와 딸들은 박제상이 왜로 떠난 후 날마다 치술령에 올라가 남편이,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박제상이 왜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만다. 그의 부인은 슬픔으로 치술령에서 쓰러져 넋이나마 남편을 따라 갔으며, 두 딸 또한 목숨을 끊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족 간의 정이 메말라 가는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박제상이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울산에 있는 그의 유적을 통해 울산이 충절과 효심의 고장임을 안다.

나. 박제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그의 행적을 시간에 따른 표로 만들어 보고, 박제상과 그 가족의 설화가 깃든 유적을 지도에서 찾아 본다.

다. 박제상의 행동에서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우고 그의 가족이 보여 준 가족애를 생각한다.

3. 수업 계획

신라의 충신 박제상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기록물과 애니메이션 자료를 보며 알아본 다음, 울산 곳곳에 있는 박제상 유적과 그에 담긴 사연들을 배운다. 그 다음 박제상 설화에서 인상에 남는 장면들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역할극을 꾸민다. 마지막으로 '도전 골든벨'의 형식으로 퀴즈를 내어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본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울산의 충의정신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보급한『울산의 충의 정신–박제상』편을 본시 학습이 있기 전에 선행 학습으로 충분히 지도하여 박제상 설화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박제상 유적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 기르기

02.
학습 주제
박제상 설화와 유적에 담긴
나라 사랑과 가족애의
의미를 배우기

03.
준비물
- 충렬공 박제상에 관련된 문헌 자료
- 울산에 있는 박제상 유적 사진 자료

04.
핵심 활동
1.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있는 박제상 설화 알아보기
2. 울산에 남아 있는 박제상 유적 알아보기
3. 박제상 설화로 역할극 꾸미기
4. 도전 역사 골든벨 – 박제상

05.
학습 유형
모둠 학습

06.
관련 단원
- 초등학교 4학년 사회
  1-(1)-② 지도로 배우자
  1-(3)-② 알고 떠나자
- 5학년 도덕 8. 나라 발전과 나

07.
수업 시기
3월, 11월

08.
시간
50분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① 은을암의 전설 들려 주기 울산에 있는 은을암에 얽힌 박제상 설화를 들려 준다. 그리고 박제상과 관련된 다른 유적지들을 설명해 준다. ② 애니메이션 '치술신모과 망부석' 시청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박제상 설화를 통해 그의 부인이 망부석이 되고, 치술신모로 불리게 된 과정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 울산 체험 학습관 홈페이지의 애니메이션)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박제상과 박제상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활동 1)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있는 박제상 설화 알아보기 활동 2) 울산에 남아 있는 박제상 유적 알아보기 활동 3) 박제상 설화로 역할극 꾸미기 활동 4) 도전 역사 골든벨 – 박제상	자료 1. 박제상 설화가 서린 곳, 은을암 자료 1–1. 울산 체험 학습관 홈페이지 전설 학습 > 전설 학습실 ulsanedu.go.kr/sub/ulsan.htm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있는 박제상 설화 알아보기 ① 시대 상황의 이해한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다. ② 박제상의 행적을 추적해 본다. - 박제상이 고구려에서 눌지왕의 동생인 복호를 구해오는 과정 - 일본에 망명하여 미해를 탈출시키는 과정 - 고문을 견디며 일본의 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③ 박제상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 박제상이 떠난 후 매일 치술령에 올라 애타게 기다림 - 박제상이 죽은 후 김씨 부인과 첫째와 셋째 딸이 슬픔을 못 견디고 죽음을 선택 - 가족간의 지극한 사랑과 효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 ④ 박제상 이야기를 통해 본받을 점을 생각해 본다.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심을 잃지 않은 점	자료 2. 충렬공 박제상 유의점) 박제상의 두 딸이 부모님을 따라 죽은 것에 대해 토론하고, 효의 정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납득시킨다. 유의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를 잃기 쉬운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서 지도한다. (예 : 충의정신–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승무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망부석

©이승무

치술령 정상으로 오르는 길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울산에 남아 있는 박제상 유적 알아보기 ① 박제상 유적과 관련해 미리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한다. ② 치산서원, 은을암, 치술령, 율포, 비조암 등의 유적과 그곳에 깃든 설화를 알아본다.	자료 3. 박제상과 관련된 유적
	활동 3) 박제상 설화로 역할극 꾸미기 ① 박제상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골라 역할극을 꾸며 본다. 이 때 다양한 장면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둠별로 미리 소재를 조정한다. - 박제상이 미해를 탈출시키는 장면 - 박제상이 왜왕의 회유를 거절하는 장면 - 김씨 부인이 숨을 거두는 장면 ② '박제상 역할극 꾸미기'를 해 봄으로써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그 마음을 느끼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 4. 학습지–1 유의점) 이 활동은 수행 평가로 이용할 수 있다. ◦ 설화 중 감명 깊은 장면을 대본으로 꾸밀 수 있는가? ◦ 역할극에서 대본의 극적 요소를 얼마나 잘 살리는가?
	활동 4) 도전 역사 골든벨 – 박제상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박제상 설화와, 박제상 유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한다.	자료 5. 학습지–2 유의점) 이 과정은 수행 평가로 이용할 수 있다. 박제상 설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 정도를 알아본다. ◦ 평가 기준 상: 9개 이상, 중: 6~8개, 하: 5개 이하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역할극을 구성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 보기 ② 박제상 설화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되짚어 보기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박제상 설화가 서린 곳, 은을암

박제상은 눌지왕의 명을 받아 왕의 두 동생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와 왜로 갔다. 먼저 고구려로 간 박제상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복호를 구해 신라로 돌아온다. 충성심이 뛰어났던 박제상은 쉴 사이도 없이 미해를 구하기 위해 왜로 떠났다.

박제상은 미해를 구하기 위해 왜왕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신라를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미해를 구해 달아날 기회를 노리던 박제상은 드디어 미해를 신라로 탈출시킨다. 그러나 자신은 왜왕에게 잡히고 만다. 박제상은 자신의 신하가 되면 살려 주겠다는 왜왕의 제안을 거절하며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죽임을 당한다.

박제상의 죽음을 알게 된 김씨 부인은 매일 치술령에 올라 목 놓아 울다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다. 박제상과 김씨 부인은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박제상의 자녀들 중 첫째 딸과 셋째 딸은 치술령에서 몸을 던졌다. 그 후 김씨 부인의 몸은 굳어져 망부석이 되었고, 김씨 부인과 두 딸의 혼은 새가 되어 날아올라 국수봉 아래 바위틈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그 일대 박제상을 기리는 치산서원과 함께 새가 날아올랐다는 비조마을과 새가 잠시 앉았다는 비조암, 그리고 새가 날아 숨었다는 뜻의 은을암이 있으며, 치술령에는 김씨 부인이 죽어 돌로 변했다는 망부석이 있다.

©이승무

은을암(隱乙巖)이 있는 곳에 세워진 암자, 은을암(隱乙庵)

자료.2 충렬공 박제상(朴堤上, 363~419년)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으로, 그 이름이 모말(毛末) 혹은 모마리질지(毛麻利叱智)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박제상의 본관(本貫)은 영해(寧海)이며 호(號)는 관설당(觀雪堂)이다. "방아타령"으로 유명한 백결선생(百結先生) 박문량(朴文良, 414~478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신라의 시조 혁거세의 후예이자 파사이사금의 5대 손으로 삽량주(揷良州, 지금의 양산)의 간(干)을 지냈다. 눌지왕 때, 특유의 용맹과 지략으로 왜와 고구려에 각각 볼모로 잡혀간 눌지왕의 아우 복호와 미사흔(미해)을 구했다.

박제상은 먼저 고구려로 가 복호를 구하고, 곧바로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왜국으로 떠났다. 그는 자신이 백제인이며, 신라와 고구려가 왜국을 침략하려 한다고 왜왕에게 참소하여 접근한 후 미사흔만 신라로 탈출시키고, 자신은 체포되어 발바닥 가죽이 벗겨진 채 갈대를 벤 그루터기 위를 걷고 끌려다니며, 쇠를 달구어 그 위에 세우는 등의 고문을 당하며 왜국의 신하가 될 것을 강요받았으나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며 거절하고 목도(木島: 대마도)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다.

충렬공 박제상 기념관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68번지에 위치해 있다.
신라의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의 충절을 기리고,
충·의·효·열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치산서원 옆에
건립했다. 박제상 전시관과 울주 문화관,
교육 영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제상 전시관에는 박제상의 일대기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 등 각종 고서와 박제상
순절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모형 바다를 만들어
박제상이 미사흔(미해)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항로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울주 문화관에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의
시장 풍경을 연출해 놓았으며, 교육 영상실에서는
홍보 영상물 상영과 예절 교육, 다도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 **관람 시간** 09:00~18:00
- **전화번호** 052) 254-7964

©이승무

자료.3 박제상과 관련된 유적

박제상 유적(朴堤上遺蹟):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박제상과 관련된 유적을 말하며, 울산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이승무

치산서원지

박제상과 그의 부인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의 터이다. 박제상의 부인을 치술신모라고 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이 곳에 조선 영조 21년(1745)에 치산서원이 세워져 박제상과 그 부인의 제를 올렸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1864년)에 따라 폐쇄하였다. 1992년 복원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다. 치산서원에는 충렬공 박제상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충렬묘와 국대부인, 치술신모로 추앙받는 박제상의 부인 금교 김씨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신모사(神母祠), 박제상의 장녀 아기(阿奇)와 삼녀 아경(阿慶)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쌍정려가 있다. 매년 음력 2월에 치산사 춘향대제가 있으며 이때 박제상과 그 부인, 딸들에게 제례를 봉례하고 있다.

치술령

©이승무

박제상의 아내가 왜국에서 죽임을 당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울다가 죽었다는 고개이다. 울산광역시
두동면 월평리와 경주시 녹동리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해발 765.4m).
치술령 정상에는 신모사지(神母祠址)
비가 세워져 있고, 서쪽 방향으로
300m 지점에는 망부석이 있다. 범서면
척과리의 국수봉 8부능선에는 부인의 넋이
새가 되어 들어갔다는 은을암이 있다.

은을암

©이승무

죽은 박제상 아내의 몸은 망부석이 되고,
영혼은 새가 되어 비조암을 거쳐 바위 속으로 숨었다.
그 바위가 바로 은을암이다. 새[乙]가 숨은[隱]
바위[巖]라 하여 은을암 이라 부른다.

율포의 박제상 발선처 표시석

©이승무

박제상은 미사흔(미해)을 구하기 위해 왜국으로
떠날 때 율포에서 배를 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율포로 추정되는 곳이 내다보이는 언덕에는
박제상이 배를 타고 왜국으로 떠난 곳이라는 표시로
비석을 세워 두었다. 율포는 현재 지리적으로
울산광역시 소속이다.

역할극 꾸미기

모둠 이름 : **모둠원 :**

⊙ 박제상의 이야기 중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을 찾아 모둠별로 역할극을 꾸며 봅시다.

1. 역할극으로 꾸미고 싶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2. 등장 인물은 누구입니까?

3. 배역을 정해 봅시다.

이 름	배 역	이 름	배 역

4. 대본을 써 봅시다.

자료.5 **학습지 - 2**

문제 1.

박제상은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정답 : 삼국 시대

문제 2.

신라의 삽량주는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정답 : 1

1. 양산
2. 언양
3. 경주
4. 울산

문제 3.

박제상을 고구려로 보낸 왕은 누구였나요?

정답 : 3

1. 실성왕
2. 광개토왕
3. 눌지왕
4. 내물왕

*

내물왕 눌지, 복호, 미해의 아버지로 죽은 후 눌지가 너무 어려 실성에게 왕위를 물려줌.

실성왕 복호와 미해를 고구려와 왜로 볼모로 보냄.

눌지왕 내물왕의 장자로 실성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박제상에게 두 동생을 구하여 오게 함.

문제 4.

박제상이 왜로 떠나기 전에 배를 탔던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 2

1. 염포
2. 율포
3. 부산포
4. 감포

문제 5.

박제상은 왜 미해와 함께 탈출하지 않았나요?

정답 : 4

1. 배에 자리가 없어서
2. 왜에 살기 위해
3. 다른 할 일이 남아서
4. 시간을 끌기 위해

문제 6.

박제상은 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왜왕에게 당당하게 "나는 계림의 개,( )가 될지언정 왜왕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에 알맞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 돼지

*

위 문장에서 계림은 신라를 의미한다.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는 박제상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

계림(鷄林) 경주 반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있는 숲으로, 탈해왕이 근처를 지나가다 숲에 황금빛이 나는 궤짝이 있고 그 아래에는 흰 닭이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궤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므로 금궤에서 성을 따서 김이라 하고 이름은 알지라 지었다. 이 분이 바로 신라의 왕위을 이은 김씨 성의 시조이다. 그 후 이 숲은 닭이 울었다는 뜻으로 계림이라 불렸고, 신라의 신성한 숲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문제 7.

박제상이 고문을 당한 후 순국한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 1

1. 대마도
2. 제주도
3. 독도
4. 마라도

*

목도는 지금의 일본 쓰시마 섬(대마도)이며 이는 『일본서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 학자들은 박제상의 순국지를 대마도가 아닌 규수의 하카다로 보았다. 즉, 박제상의 순국지에 대해서는 대마도와 규슈의 하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문제 8.

"박제상의 부인 김씨 부인은 날마다 ( )에 올라 왜로 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에서 ( )에 알맞은 말은?

정답 : 치술령

*

맑은 날 치술령에 올라 보면 일본의 대마도가 보인다고 한다. 박제상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이 왜로 떠난 후 날마다 치술령 바위에 올라 남편을 기다렸으나 박제상이 왜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에 통곡하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후세 사람들은 김씨 부인이 쓰러져 죽어서 된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 불렀다.

문제 9.

박제상의 아내 김씨 부인이 죽어서 된 바위를 사람들은 무엇이라 불렀나요?

정답 : 망부석

문제 10.

김씨 부인과 두 딸은 죽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답 : 2

1. 꽃
2. 새
3. 나무
4. 돌

문제 11.

세 모녀의 혼이 날아 든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 은을암

*

세 모녀의 혼은 새가 되어 날아올라 국수봉 은을암 바위 굴 속에 숨었다 한다.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박제상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 경 김부식의 주도 하에 11명이 참여하여,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삼국사기』가 편찬되었을 당시 고려는 건국 후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문벌 귀족 문화가 절정에 올라 있었다. 비교적 왕권도 안정되어 있었으며, 거란의 물리친 후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국가 의식을 강조할 목적으로 전 시대의 역사 정리 작업을 하였다.

『삼국사기』는 9책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박제상에 관한 기록은 권2 「신라본기」 제3편 '눌지마립간'과 권45 「열전」 제5편 '박제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눌지마립간이 즉위하니, 그는 내물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보반 부인이니 미추왕의 딸이요, 비는 실성왕의 딸이다. 내물왕 37년에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더니, 후에 실성이 돌아와 왕이 됨에 이르러 앞서 내물이 자기를 외국에 볼모로 보낸 것을 원망하여 그 아들을 죽여 원수를 갚고자 하여,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고구려에 있을 때 서로 알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비밀히 알리기를 눌지를 보거든 곧 죽여라 하고 드디어 눌지로 하여금 가서 중로에서 고구려 사람을 맞게 하였다.
>
> 고구려 사람은 눌지의 용모 기상이 명랑하고 단아하여 군자의 풍이 있음을 보고 드디어 일러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임금이 나로 하여금 그대를 해치라 하였는데 지금 그대를 보니 차마 해칠 수 없다 하고 (이내) 돌아가 버렸다.
>
> 눌지는 이를 원망하여 도리어 왕을 죽이고 자립한 것이다. 2년 정월에 (왕이) 친히 시조묘에 배알하였다. 왕제 복호(卜好, 보해)가 고구려에서 제상 내마와 함께 돌아왔다. (이해) 가을 왕제 미사흔(미해)이 왜국에서 도망해 돌아왔다.
>
> — 권2 「신라본기」 제3편 '눌지마립간' 중

박제상은 시조 혁거세의 후예요,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대손이며, 조부는 아도 갈문왕이요, 아버지는 물품 파진찬이다. 제상은 벼슬길에 나가 삽량주의 간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실성왕 원년 임인(402)에 왜국과 강화하였는데, 왜왕이 내물왕 아들 미사흔을 볼모로 삼기를 청하였다. 왕은 일찍이 내물왕이 자기를 볼모로 보낸 것을 한스럽게 여겨, 그 아들에게 유감을 풀고자 하던 터이라 거절하지 않고 보냈으며, 또 11년 임자(412)에는 고구려가 역시 미사흔의 형 복호를 볼모로 삼고자 하므로 대왕은 또 그를 보냈다. 눌지왕이 즉위하자 변사를 구해 가서 (두 아우)를 맞이해 올 것을 생각하고 있던 바, 수주촌간 벌보말과 일리촌간 구리내, 이이촌간 파로 세 사람이 어질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묻기를, "나의 아우 두 사람이 왜와 여 2국에 볼모가 되어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형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대답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삽량주간 제상이 강용하고 지모가 있다 하니 전하의 근심을 풀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 권45 「열전」 제5편 '박제상' 중

02.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박제상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고승 일연(一然, 1206~1289년)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한 역사서이다. 무신 정권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정세가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고려 후기, 일연은 우리의 고대사를 되살려 냄으로써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뿐 아니라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고려 이전의 역사 가운데 사라진 기록 및 정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담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편에 '내물왕과 김제상'이라는 부분에서 박제상에 관한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은 삼국사기와는 약간 다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이 아닌 김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성을 잘 쓰지 않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머니 김씨의 성을 따랐으리라고 예측할 수도 있으나 『삼국사기』에 '파사이사금'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제상이 옳다는 입장이 유력하다.

『삼국유사』의 '내물왕과 김제상' 편을 살펴보면, 신라 내물왕 36년(390)에 왜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왕자를 보내어 자신에게 성의를 표하기를 청한다. 그에 내물왕은 셋째 아들 미해를 내신을 부사로 삼아 딸려 보냈으나, 30년 동안 억류하여 그를 돌려 보내주지 않는다.

이후 눌지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고구려의 장수왕이 눌지왕의 아우 보해의 지혜와 재주가 뛰어남을 알고, 고구려로 보내줄 것을 청한다. 그러나 장수왕도 보해를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는다.

눌지왕 10년(425)에 왕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와 고구려에 각각 억류된 두 아우를 보고 싶다고 하니, 신하들이 박제상의 용맹함을 들어 그를 추천한다.

왕에게 불려간 박제상은 "신이 듣기로는,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을 당하며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고 합니다. 만일 일의 어렵고 쉬운 것을 따져서 행한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옵고, 또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한 뒤에 움직인다면 이는 용맹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오나 왕의 명령을 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왕을 감동시킨다.

박제상은 즉시 고구려에 들어가 보해를 데리고 탈출에 성공하여 신라로 돌아온다. 그러나 눌지왕은 보해를 만나 보자 미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마치 한 몸에 팔뚝이 하나만 있고, 한 얼굴에 한 쪽 눈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잃은 대로이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임금의 말을 듣자마자 박제상은 말을 탄 채 두 번 절하여 임금에게 하직하고,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율포를 통해 왜국으로 떠난다. 이 소식을 들은 제상의 아내가 율포로 갔으나 그는 이미 떠난 후였다.

왜국에 도착한 박제상은 계림의 왕을 피해 도망쳐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왜왕에게 접근한 후 미해와 가깝게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제상은 미해의 탈출을 돕고 자신은 홀로 왜국에 남는다. 그 사실을 안 왜왕은 자신의 신하가 되면 후한 녹을 상으로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제상은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여 왜왕의 분노를 사 발가죽이 벗겨진 채 베어진 갈대 위를 걷는 형벌을 당한다. 그럼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왜왕은 그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는 목도에서 제상을 불태워 죽였다.

미해가 무사히 신라에 도착한 후 눌지왕은 잔치를 베풀고, 제상의 아내를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하고, 그의 딸은 미해공의 부인을 삼았다.

『삼국유사』는 이처럼 박제상이 눌지왕의 아우 보해와 미해를 구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제상이 처음 신라를 떠날 때 그의 아내가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망덕사 문 남쪽 사장(沙場)을 장사(長沙)라고 부르며,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했을 때 다리를 뻗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여 그곳을 벌지지(伐知旨, 뻗치다의 고유음)라고 이른다고 적고 있다. 이후 부인이 제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 죽고 말았는데, 따라서 제상의 부인을 치술신모라고 이르며 그를 제사지내는 사당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망부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은 이후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03. 문학 속의 박제상 설화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으로 유명한 소설가 현진건(玄鎭健, 1900~1943년)은『불국사 기행』에서 토함산을 올라 동해 가까이에 붙은 치술령을 바라보다가, 박제상과 그의 아내에 얽힌 슬픈 사연을 떠올린다. 현진건은 박제상이 배를 타고 홀연히 떠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을 측은해하며, 목도에서 연기로 사라진 박제상의 의혼의백(義魂毅魄, 정의롭고 굳세고 단단한 정신)을 기리며 한 편의 시를 남긴다.

끓는 물도 차다시고 모진 매도 달다시네.
살을 찝는 쇠가락도 헌 새끼만 여기시네.
비수(匕首)가 살을 오려도 태연자약하시다.

온몸에 불이 붙어 지글지글 타오르되,
웃음 띤 환한 얼굴 봄바람이 넘노는 듯,
이 몸이 연기 되거든 고국으로 날아라.

동해에 배 뜨나니 가신임을 어이하리.
속절없는 피눈물에 잦아지니 목숨이라.
사후에 넋이 곧 있으면 임의 뒤를 따르리라.

치술재 빼어난 봉을 물어 넘은 이 빗발아,
열녀(烈女)의 남은 한을 이제도 실었느냐.
나그네 소매 젖으니 눈물인가 하노라.

현진건,『불국사 기행』중.

04. 충효(忠孝) 사상과 그 문화재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그 연장선에서 국가의 부모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일컬어 충효 사상이라고 한다. 시대적으로 충효 사상을 몸으로 실천한 인물들에 대한 일화 및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1) 정몽주(鄭夢周, 1337~1392년)

정몽주 초상
이한철 이모(移模),
종이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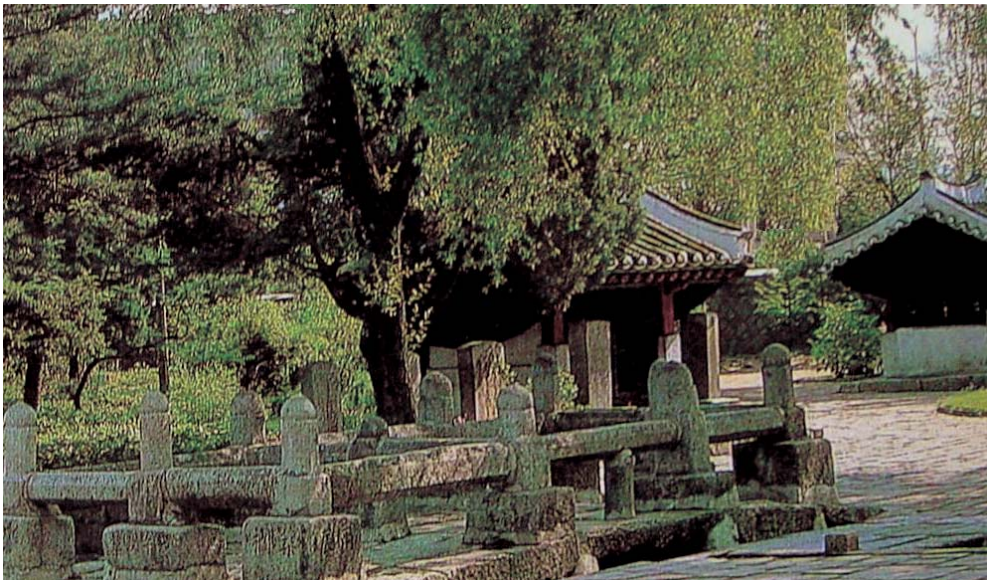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호는 포은이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성계의 즉위와 새 왕조의 개창에 찬성하는 세력에 반발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성계의 위망(威望)이 날로 높아지자 정몽주는 공양왕으로 하여금, 이성계파인 조준, 정도전 등을 탄핵하게 했다. 1392년 이성계가 사냥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황주에 드러눕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 챈 이방원으로 인해 실패한다. 그리고 정세를 엿보려고 이성계를 찾아보고 귀가하던 도중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심복이었던 조영규 등에게 격살되었다.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대한 답으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단심가(丹心歌)〉가 전하고 있다.

선죽교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고려 시대의
석교(石橋)로,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태조 즉위년(1392) 정몽주가
피살된 장소로, 원래 선지교(善地橋)라
불렸는데, 정몽주가 피살되던 날 밤
다리 옆에서 참대가 솟아나왔다 하여
선죽교(善竹橋)로 고쳐 불렀다고 전한다.



단심가(丹心歌)

此身死了死了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更死了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	백골이 진토 되어
魂魄有也無	넋이라도 있고 없고
向主一片丹心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理與之	가실 줄이 있으랴

2)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

사육신은 조선 초 단종 숙부 수양대군(世祖, 1417~1468년)이 왕위를 찬탈하자 단종의 복위를 주장하다가 세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여섯 명의 신하를 말하는데, 성삼문(成三問) · 하위지(河緯地) · 김문기(金文起) · 박팽년(朴彭年) · 이개(李塏) · 유성원(柳誠源)이 그들이다. 이들은 세조 암살을 통해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으나, 밀고자에 의해 적발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당했다. 성삼문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고 팔을 잘라내는 잔학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전하'라 하지 않고 '나리'라 불러 왕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진상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거부하고 형벌을 당했다. 성삼문 · 박팽년 · 유응부 · 이개는 작형(灼刑, 단근질)을 당하였고, 후에 거열형을 당하였다. 하위지는 참살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량진에 사육신을 기념하는 묘지가 있다.

생육신은 김시습 · 성담수 · 남효온 · 원호 · 이맹전 · 조려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임금에 대한 절개를 지킨 신하들을 일컫는다.

사육신묘

원래 이곳에는 성삼문 · 박팽년 · 이개 · 유응부만 묻혔으나, 1977~1978년 사육신 묘역 정화 사업 때 하위지 · 유성원 · 김문기의 가묘(假墓)도 추봉(追封)하였다.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 8호로 지정되었다.

창절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강원 유형 문화재 제27호. 조선 시대 사육신 등을 모신 사당. 단종이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육신의 사당도 이 곳에 있다.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삼국유사』,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8.
- 『삼국유사』, 일연 지음, 이만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4.
-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이병도 옮김, 을유문화사, 1996.
- 『다시 읽는 한국 신화』, 손종흠 지음, 휴먼앤북스, 2004.
- 『어린 임금의 눈물』, 이규희 지음, 이정규 그림, 파랑새어린이, 2004.

참고 사이트

- 울산 체험 학습관 > 전설 학습 > 전설 학습실 > 치술신모와 망부석
ulsanedu.go.kr/sub/ulsan.htm
- 사이버 충효 체험관
www.chunghyo.net/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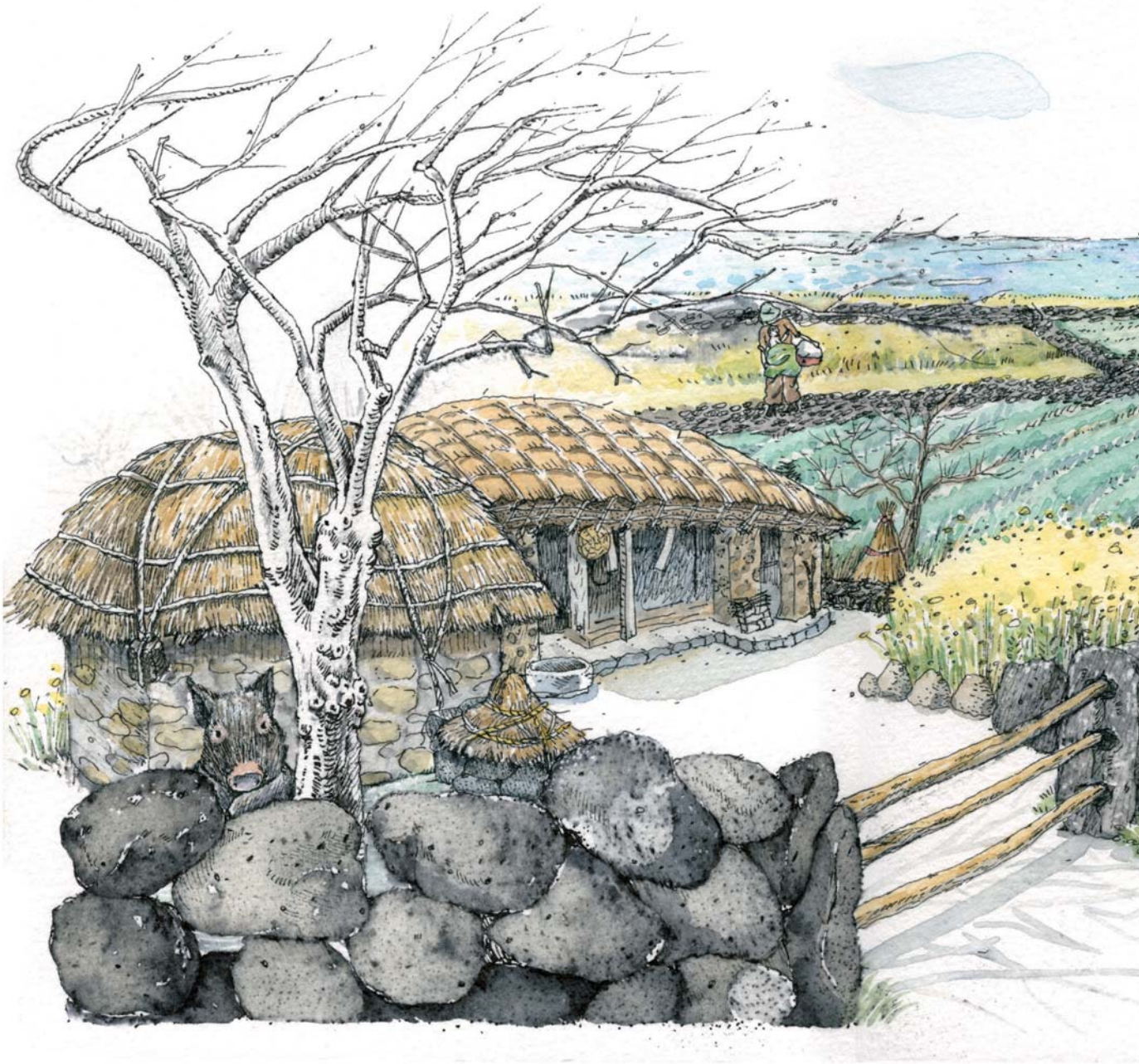
2.

아름다운 제주의 옛 모습을 찾아서

제주 표선초등학교 강 경 민

고향 산천 도처에 지표 위로 노출된 거친 암석의 무리들, 대지의 뼈다귀들. 그 풍광의 특이한 아름다움은 그만큼 그곳 산천이 척박하다는 뜻이다. 해변의 검은 현무암, 말라붙은 건천들의 뼈빛 화강암 무리들, 대지의 뼈들이 사정없이 노출되어 사나운 파도와 비바람에 맞서 무섭게 울부짖는 곳, 초원의 새 억새 무리들이 날선 잎새를 세우고 사나운 질풍을 찢어 버리는 곳, 강풍에 맞서 인간의 뼈와 피가 더욱 오만, 완강해지는 곳, 척박한 땅이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간들이 대대로 거기에 뿌리내려 살아오지 않았던가. 대지가 강인한 만큼 인간의 자부심 또한 완강했다. 말뚝을 한 자만 박아도 암반에 부딪치는 척박한 지표 위에, 새 억새 무리들처럼 촘촘히 서로 얽힌 그물 같은 집단의 뿌리로서 존재해 온 그들이었다.

현기영, 『지상의 숟가락 하나』, '대지의 뼈' 중에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발을 딛고 있는 터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연의 차이에 따른 여러 생활 방식과 문화의 변주는 각 지방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이번 수업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고 알아보는 활동을 주로 할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학습은 같은 땅에 숨 쉬고 있었던 먼 옛날 조상들의 생활상이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게 하며, 전통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습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재의 가치, 지역에 따른 특색을 이해하고,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과거를 현재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 지도안은 제주의 모습과 제주의 문화재들의 특징들을 종이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은 종이 모형을 이용해서 제주 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조작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모습과 유래, 문화재들을 알아보면서 우리 문화재에 담긴 과학성과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선조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생활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다.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보고, 더욱 친밀함을 느낀다.

다. 문화재에 스며들어 있는 조상들의 슬기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3. 수업 계획

우리 고장 제주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이해한 후, 실제 생활 속에서 친숙한 제주만의 문화재들을 종이 모형을 이용하여 만들어 본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 조상들의 옛 생활 모습을 발표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여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에 노력이 필요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들을 소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미리 방문하여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습득하여 수업에 임한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아름다운 제주의
옛 모습을 찾아서

02.
학습 주제
제주의 문화재들을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 보고
문화재 이해하기

03.
준비물
- 프레젠테이션 자료
- 문화재 관련 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
- 문화재 관련 종이 모형 도면 및 자료 등

04.
핵심 활동
1. 모둠별 제주 문화재 종이 모형 만들기
2. 멀티미디어를 통해 제주의 문화재 조사하기
3. 조사한 제주 문화재 정보 정리 · 발표하기

05.
학습 유형
통합 프로젝트 학습

06.
관련 단원
초등학교 4학년 사회,
1-(2)-② 문화재 현장 학습

07.
수업 시기
4월

08.
시간
100분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특별 자치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홍보 영상"을 보고 생각 이끌어 내기 - 영상 자료는 제주도가 세계 자연 유산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 받은 것이다. - 제주에 있는 또 다른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모둠별로 조사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제주의 문화재의 특징을 파악한 후, 종이 모형을 만든다. 활동 1) 모둠별 제주 문화재 종이 모형 만들기 활동 2) 멀티미디어를 통해 제주의 문화재 조사하기 활동 3) 조사한 제주 문화재 정보 정리 발표	자료 1.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홍보 동영상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모둠별 제주 문화재 종이 모형 만들기 ① 제주의 문화재들을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 제주의 옛 마을을 꾸민다.	자료 2. 제주 문화재 종이 도면 유의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적절하면서도 자세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하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멀티미디어를 통해 제주의 문화재 조사하기 ① 모둠원끼리 인터넷이나 책, 신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제주의 문화재를 조사한다. ② 모둠 PC로 홈페이지 및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한다(인터넷, 문화재 홍보 동영상, 문화재 관련 홈페이지 참고). ③ 다양하게 수집된 제주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유의점) 모둠 PC마다 홈페이지 및 간단한 동영상들을 미리 링크시켜 쉽게 자료를 찾고,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3) 조사한 제주 문화재 정보 정리·발표 ① 모둠별로 수집한 자료를 학습지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② 각 모둠의 주제를 달리하여 다양한 내용이 나오게 한다.	유의점) 발표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고, 중요한 것은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한다. ② 우리 고장의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③ 우리 고장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해 본다.	

03.
수업용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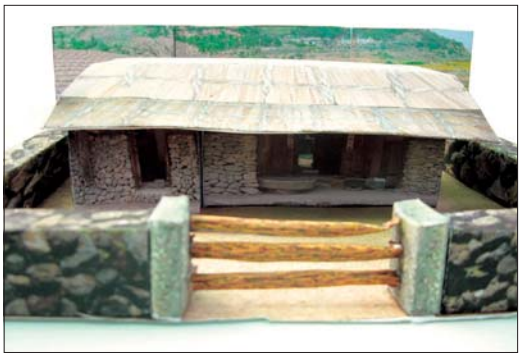
자료.1 '유네스코(UNESCO)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홍보 동영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자연유산 제주〉 홈페이지에서는 제주 홍보 동영상을 비롯하여, 유산 탐방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유산 목록' 및 '한국의 세계 유산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홍보 동영상

자료.2 제주 문화재 모형 도면

1) 제주 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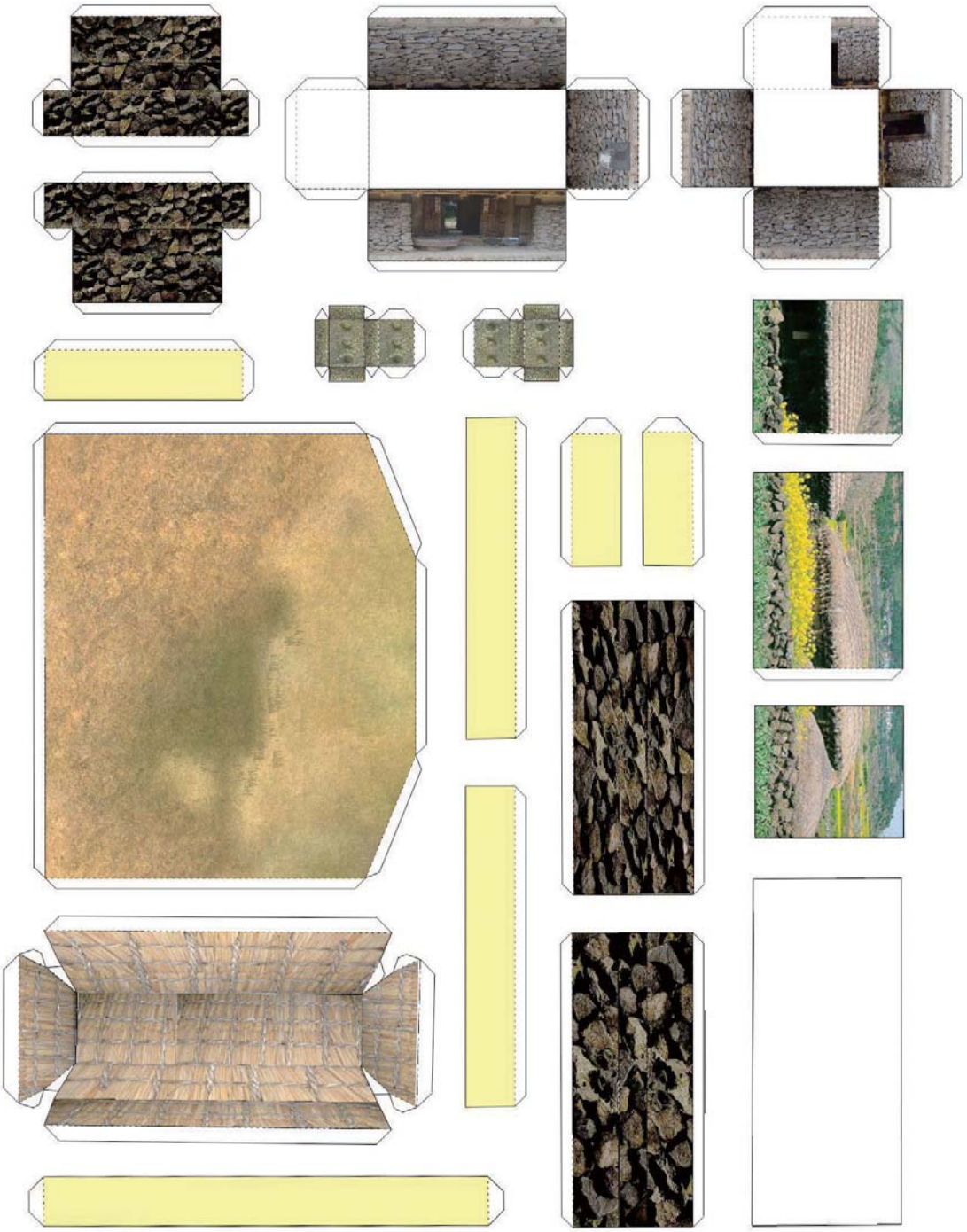


제주 초가 완성 모습

제주도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위 지형보다 낮은 위치에 돌담을 두르고 건물을 별동으로 배치한다. 지붕은 지천으로 널려 자라는 풀인 '새'를 베어다가 말려 만드는데, 1년 또는 2년마다 다시 덮어 낮고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 형태가 되어 간다.

초가 지붕을 덮을 때는 온 동네 장정들이 나와서 함께 거드는데 한쪽에는 지붕에 엮은 '새'를 차곡차곡 쌓고, 한쪽에는 거센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바둑판처럼 띠를 얽어매어 놓는다. 초가를 둘러싼 벽은 돌과 흙을 섞어서 거센 바람을 이겨내도록 하고, 방과 방을 잇는 곳, 창문(문)을 연결하는 곳은 대나무와 지푸라기, 흙을 섞어서 단단하면서도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제주 초가 종이 도면(자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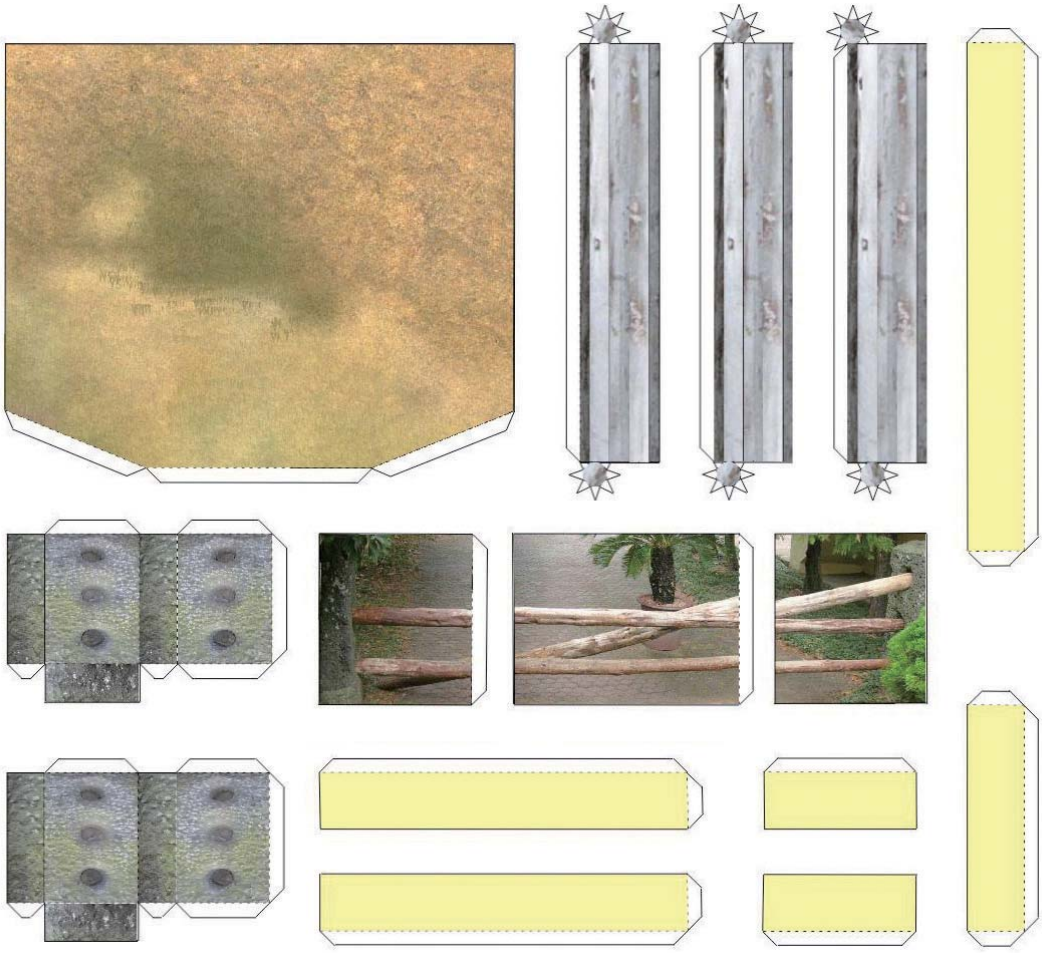


2) 정낭

정낭 완성 모습

정낭이란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로 대문 역할을 하는 정주석에 '정'이란 목봉을 세 개 걸쳐 놓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낭 세 개가 정주석에 모두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먼 곳에 가고 없음을, 두 개가 걸쳐 있으면 멀리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옴을, 한 개만 걸쳐져 있으면 잠시 이웃집이나 밭일을 하러 나갔음을 뜻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신호 체계이다. 또 다른 사람이나 방목 중인 소나 말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낭 종이 도면(자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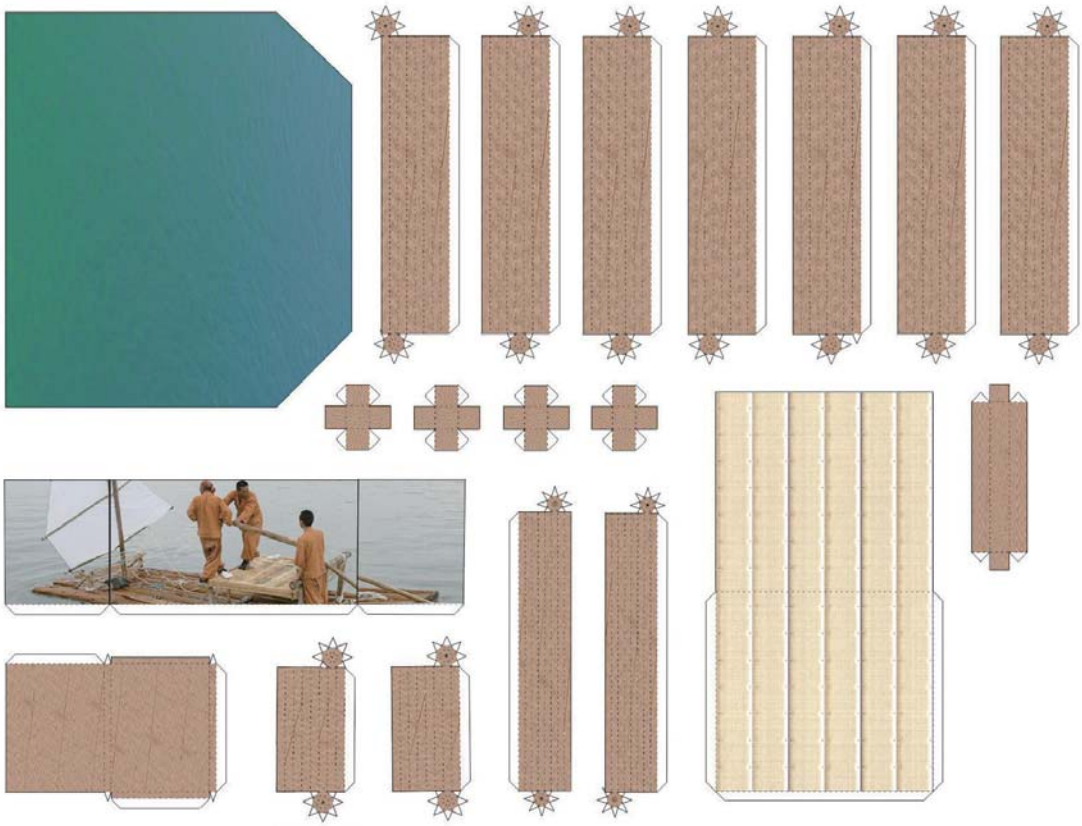
3) 테우

테우 완성 모습

떼배의 제주 지역어로서 '테우', '터우', '태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배의 원조이기도 한 테우의 한자명 표기는 벌선(筏船)이라고 한다. 테우는 통나무를 여덟 주에서 열두 주 정도를 줄줄이 엮고 노와 국자 모양의 그물을 배의 옆에 달아 만든다.

목재를 자연 형태 그대로 이용하여 만드는 테우는 앞의 폭이 좁고 뒤쪽이 유선형을 띠고 있어 물결의 저항을 완화시켜 준다.

테우 종이 도면(자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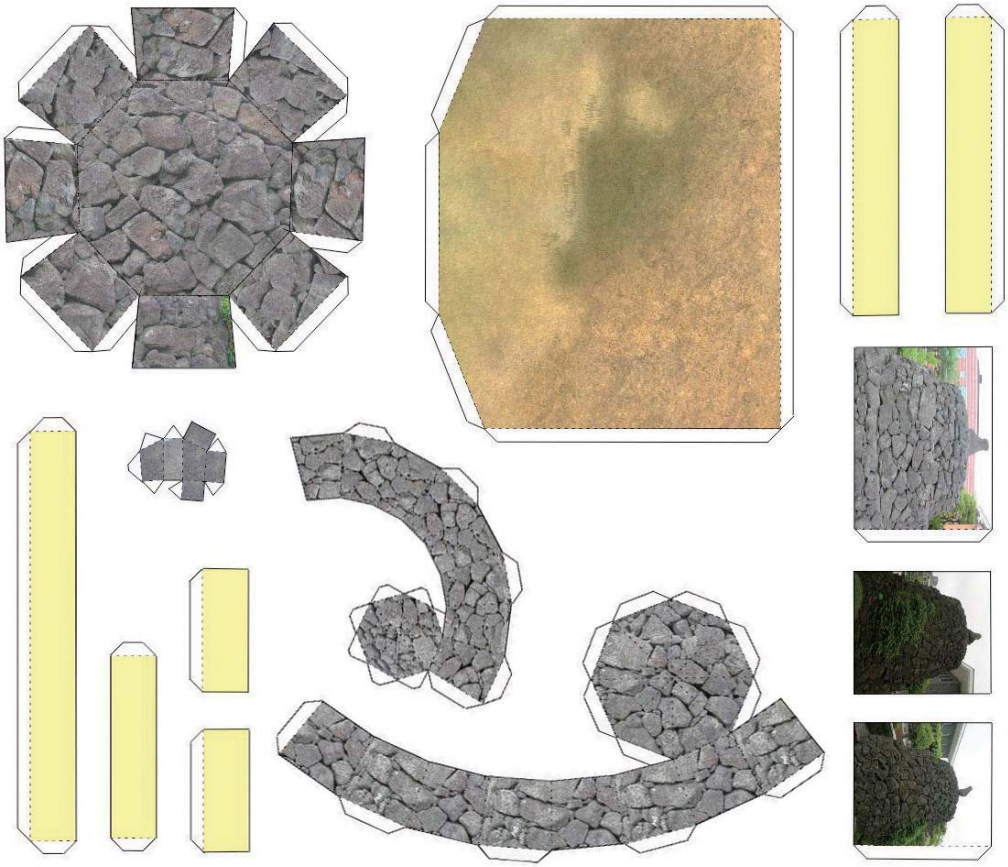


4) 방사탑

방사탑 완성 모습

방사탑(防邪塔)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불길한 징조가 비치거나, 풍수지리설에 따라 기운이 허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세운 돌탑이다. 제주도민들은 이 돌탑이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전염병과 화재를 예방해 주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지켜 주고, 아이를 낳게 하고 보호해 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믿었다. 탑을 쌓을 때 밑에 밥주걱이나 솥을 묻었는데, 밥주걱은 솥의 밥을 긁어 담듯이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는 뜻이고, 솥은 뜨거운 불에도 견디는 것이니 마을의 재난을 막아 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탑 위에 사람이나 새의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방사탑 종이 도면(자체 개발)



©이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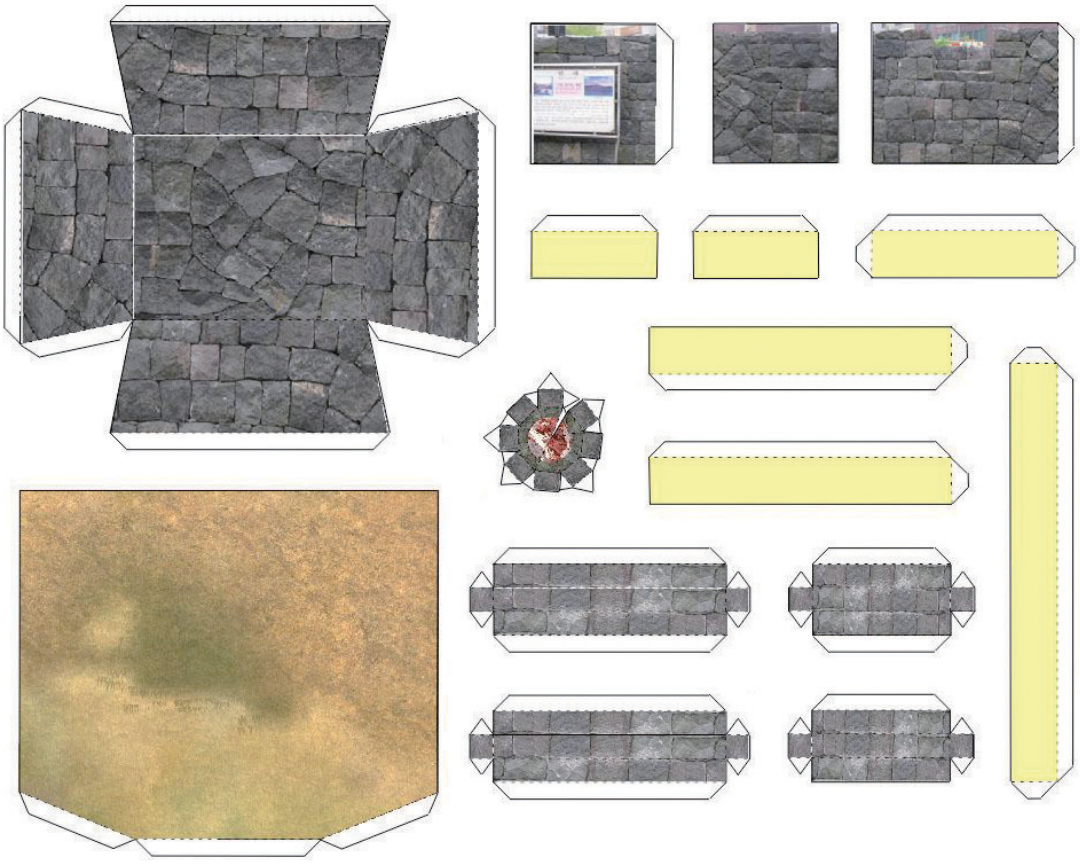
바닷가에 세워진 방사탑

5) 연대

연대 완성 모습

연대(煙臺)는 적이 침입하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써 방호소나 수전소 등 군대가 주둔한 곳에 빠르게 연락할 때 사용했던 통신망의 하나이다. 조선 시대에는 낮에 피워 올리는 연기까지를 흔히 '봉화(烽火)'라 통칭하였고, 봉화의 '봉'자를 딴 봉수대(烽燧臺)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연대도 그 중 하나다.

연대 종이 도면(자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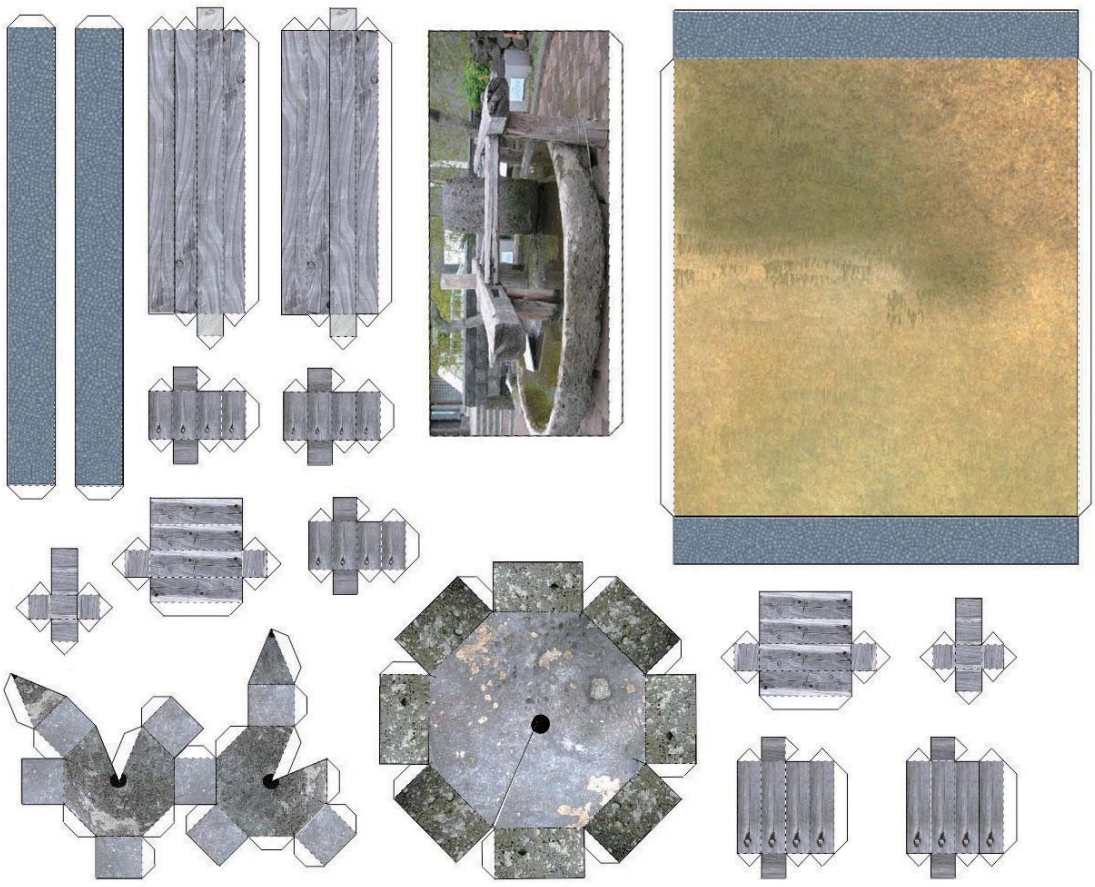


6) 연자매

연대 완성 모습

연자방아라고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했던 방아이다. 연자매는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얹어, 아래 위가 잘 맞닿도록 하고 마소가 끌고 돌린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연자매가 있는 곳을 연자방앗간 또는 연자맷간이라 불렀다. 정미소가 생기면서 강원도 산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연자매 종이 도면(자체 개발)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종이 모형(Paper Craft)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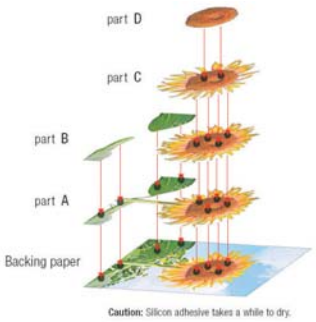
종이 모형(Paper Modeling / Card Modeling / Paper Craft)은 종이 접기와 유사성이 있지만, 적절하게 색칠하고, 자르고, 구조적으로 세워 스스로를 지탱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종이 모형의 기원은 제지 기술 및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5세기의 유럽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모델은 교육 부교재나 장난감용 나무 블록을 접착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순한 4각형의 형태들이었다. 초기 모형의 주제는 주로 종교와 관련된 것이 많았으나, 그 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제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리아, 아시아(일본이 대표적) 등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이 모형을 활용하는 곳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다. 미 항공우주국의 경우 신규로 발사되는 로켓 모형이나 우주 탐사선의 축소 종이 모형 전개도를 정책적으로 개발, 배포하여 학생 및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종이 모형은 국내에 약 5~6년 전 인터넷 활성과 더불어 도입되었고,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여러 차례 소개됨으로써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종이 모형의 학습에 대한 효과는 계발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경우 2차원 평면 전개도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 때 단순한 흥미를 가지고 만들지만, 향후 그 모형에 대한 구조적 이해, 설계적 개념, 상상력의 조합으로 창의적인 실제 형태를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케 된다. 이것은 7차 교육 과정의 목표인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Shadow Box 만들기



제주의 전통 문화재 만들기

팝업 입체 카드 만들기

종이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의 예시

02. 종이 모형의 교육적 효과

종이 모형은 단면의 전개도를 자르고, 구부리고, 풀칠하여 3차원의 입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비용이 저렴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물리적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 집중력 향상, 공간 추론 능력 향상,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종이를 자르고 붙이면서 모형을 만들어 감에 따라 학생들은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된다

1) 집중력 향상

자동차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최종 완성형 모형을 보여 주고, 도면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제작을 하는 경우를 보자. 실제, 도면을 자르고 풀칠하여 제작하는 것은 모형이 정밀할수록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때 집중력의 향상을 가져 온다.

학생들은 세심한 작업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

2) 공간 지각 능력 향상

공간 지각 능력은 시지각 능력 중 하나로, 시지각 능력은 타고 나는 것보다는 환경의 자극과 호응에 의해 신장되고, 훈련을 통하여 배양된다고 알려져 있다. 종이 모형은 전개도를 통해 완성된 입체 구조를 상상하는 감각 훈련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종이 모형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주 마을을 꾸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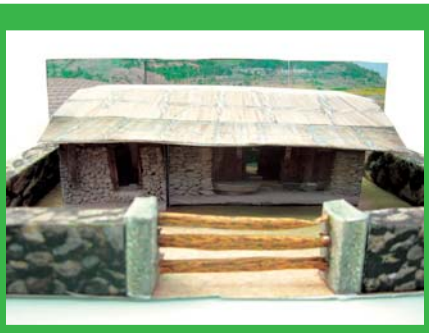
3) 인지 능력 발달

모형 제작은 전개도를 자르고 붙이는 등 많은 손놀림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탈리아 및 일본에서는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적당한 취미로 알려져 노인 복지관 등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놀림을 통해 두뇌 발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6학년 종이 모형 계발 활동은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집중력 향상의 기회를 준다

4) 효과적인 교수 학습 자료로의 활용

종이로 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재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학습자의 조작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자의 가정에서도 개별 학습, 조별 학습, 협동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과 문화재 조사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가정 학습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학습 의욕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부진아 지도 및 치료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여러 가지 제주의 문화재 종이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제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03. 제주의 주거와 관련이 깊은 자연 환경

1) 오름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인 오름은 '오르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크고 작은 봉우리인 오름은 외적을 막아주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물을 구하기 쉬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또 제주도 사람들은 이 오름을 신성하게 여기기도 하여, 오름마다 당신을 모신 당집을 세우기도 했다.

2) 돌담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흔히 삼다도(三多島)라 불린다. 과거 제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있는 돌들을 치우다 만들어지게 됐다는 돌담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가축과 농작물과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밭에 있는 것은 밭담, 묘지 둘레에 있는 것은 산담,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것은 집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것은 켓담이라고 부른다.

©이승무

제주의 아보오름

3) 물통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샘물이 솟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제주도 해안 곳곳에는 용천수가 솟는 샘터가 여러 곳 있는데, 제주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용천수와 구분하여 해안 용천수를 물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다. 대표적인 물통으로 남제주군 남원에 있는 상상 물통과 우도에 있는 진사 물통 그리고 서귀포 법환동에 있는 막숙 물통을 들 수 있다.

04. 제주 성읍민속마을

세종 5년(1423)부터 약 500여 년간 정의현(旌義縣)의 소재지였다. 제주도의 유형·무형의 여러 문화재와 옛 자취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고,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승격되었다.

마을에는 성곽을 비롯하여 동헌으로 쓴 일관헌(日觀軒)과 향교에 딸린 명륜당(明倫堂)과 대성전(大成殿)이 남아 있다. 마을 공간은 우리 나라 읍성에서 많이 보이는 [우]자를 기본으로 남북쪽에는 동헌, 가운데는 객사, 남쪽에는 남문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소재지** 성읍리 일대
- **건립 시기** 1423년
- **종별** 국가 지정 중요 민속 자료 제188호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제주도-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평화의 섬』, 양영훈 지음, 양민숙·양은정 그림, 스쿨김영사, 2008.
- 『화산과 바람의 섬 제주도』, 손영운 지음, 선형경 그림, 뜨인돌어린이, 2006.
- 『제주문화맵시 따라잡기』,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의 여러 문화 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책으로,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수 방법도 함께 실려 있다.

참고 사이트

- 종이로 만드는 아름다운 제주도

www.jejubuk.es.kr/img/index.htm

: 프로그램의 안내를 통하여 제주의 모습과 제주의 문화재의 특징들을 종이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수업 교사 자체 개발 사이트)

시작 화면: www.jejubuk.es.kr/kkm/index.htm

메인 화면: 5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별 만들기 메뉴 안내 화면

문화재를 종이 모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 준다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museum.jeju.go.kr

● 제주 성읍민속마을

www.seongeup.net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이버제주문화자료관

www.jcaf.or.kr/main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자연 유산 등재 홍보 영상

www.jejuwnh.jeju.go.kr/contents/index.php?mid=0503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자연 유산(용암 동굴계, 한라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 국제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홍보 영상으로서 본 지도안에서는 동기 유발 자료로 사용하였다.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www.jejuro.go.kr

: 제주의 여러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재 관련 기관들이 링크되어 있다.

● 에듀넷

www.edunet4u.net/index.jsp

: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7개 교과서 편찬 기관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학년, 교과, 학기, 단원, 학습 주제별로 필요한 자료를 저장 또는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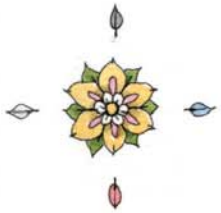
우리 곁의 친근한 수호신,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경기 탄벌초등학교 권 은 주

선조 무진년(1568) 10월

임금이 말하기를, "쥐는 천하고 미운 것인데 어찌하여 육갑의 맨 앞을 차지하였는가?" 하니 유희춘이 말하기를, "쥐의 앞발에는 발톱이 넷이고 뒷발에는 발톱이 다섯이니, 음과 양이 서로 반반씩인 것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밤에 음이 다하고 양이 생기는 뜻을 취하여 자(子)를 12시의 맨앞으로 삼은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성주덕 편, 『서운관지』 권3 「고사(故事)」 중에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우리 나라의 유물 가운데에는 동물이 등장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동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으로 열두 띠 동물, 십이지를 꼽을 수 있다.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문화재인 십이지신상은 '띠'와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 해 왔으며, 다른 나라의 것에 비해 조형적 독창성이 뛰어나다. 열두 띠와 관련한 문화재들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독특한 조형 양식을 보여 주어,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과 전통 예술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 수업은 시대별 여러 형태의 십이지신상을 감상하고, 시대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살펴 조상들의 얼과 생활 모습 등 사회상을 반영하는 전통 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옛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방위신과 수호신의 역할을 했던 십이지신상의 성격과 그 의미를 알고, 위험이 닥칠 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십이지신상을 감상하고 조상들의 얼과 생활 모습 등 사회상을 반영하는 전통 문화의 성격을 이해한다.

나. 십이지상과 관련된 작품의 자료를 모아 문화재 감상 자료집을 만든다.

다. 십이지신상의 성격과 의미를 알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

3. 수업 계획

우리 문화재에서 십이지신상 작품을 찾아 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본다. 또 열두 동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여 십이지신상 감상 자료집을 만든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우리 문화재 가운데 동물들이 표현된 것을 찾아 본다. 미술 작품을 비롯해 생활 용품, 예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통해 선조들의 동물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우리 곁의 친근한 수호신,
십이지신상

02.
학습 주제
십이지신상 관련 문화재와
그것의 의미를 파악한 뒤
문화재 감상 자료집 만들기

03.
준비물
- 십이지신상 관련
  문화재 사진이나 도판 자료
- 색상지 • 색종이 • 가위
- 풀 • 자 • 감상 학습지
- 유성 매직

04.
핵심 활동
1. 십이지신상 작품 감상, 느낌
   말하기
2. 십이지신상 관련 작품 분석하기
3. 문화재 감상 학습지 작성하기
4. 십이지신상의 수호신과
   방위신으로서의 성격 알아보기
5. 문화재 감상 자료집 만들기

05.
학습 유형
문화재 실물 학습

06.
관련 단원
초등학교 4학년 사회,
미술 통합 학습

07.
수업 시기
11월

08.
시간
80분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교사가 십이지신상 작품 감상 자료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이전에 십이지신상 작품을 본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우리나라 유적 중에서 십이지신상을 찾아 보고 그에 담긴 의미를 알아본다. 문화재 감상 자료집을 만들어 봄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감상을 유도한다. 활동 1) 십이지신상 작품 감상, 느낌 말하기 활동 2) 십이지신상 관련 작품 분석하기(모둠별) 활동 3) 문화재 감상 학습지 작성하기 활동 4) 십이지신상의 수호신과 방위신으로서의 성격 알아보기 활동 5) 문화재 감상 자료집 만들기	자료 1. 십이지신상 작품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십이지신상 작품 감상, 느낌 말하기 ① 신라 토우, 십이지 저울추, 납석제 십이지상, 원숭이가 그려진 청자 제시 ② 십이지신상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 이야기하기 • 교사: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학생: 동물상입니다. • 교사: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학생: 십이지신상입니다. 씩씩한 것 같아요. 활동 2) 십이지신상 관련 작품 분석하기(모둠별) 학생들은 모둠별로 준비해 온 십이지신상 작품을 모아 자세히 관찰한다. • 재료는 무엇인가요? : 돌로 만든 것도 있고, 흙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 어떤 동물을 표현하였나요? : 십이지신상의 양 손에는 어떤 것을 들고 있나요? • 동물의 표정이나 움직임은 어떤가요? : 장군처럼 씩씩합니다. •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나요? :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동물입니다.	자료 2. 십이지신상 작품 유의점) ◦ 문화재의 올바른 감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해석을 위해 작품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감상 학습은 학생의 표정이나 발표 내용, 감상문 등으로 구체적인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미적 감상은 서서히 발전되는 것이므로, 연속적,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 환조로 된 것도 있고 부조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있습니다. • 십이지신상 작품에 표현된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나요? :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활동 3) 문화재 감상 학습지 작성하기 문화재에 대한 사진을 붙이고, 간단한 설명과 느낌을 적는다.	자료 3. 학습지–1
	활동 4) 십이지신상의 수호신과 방위신으로서의 성격 알아보기 ① 십이지의 열두 동물 이야기하기 • 띠를 나타내는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② 십이지신상이 만들어진 이유 이야기하기 • 작품을 만든 사람은 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이나 악귀를 쫓기 위해서 등 • 동물의 특성과 동물의 표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성격이 사나운 동물은 무섭게, 온순한 동물은 착하게 표현했어요. • 열두 동물은 왜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 그 쪽 방향을 지키는 것 같다.	
	활동 5) 문화재 감상 자료집 만들기 ① 문화재 분류 기준 정하기 - 시대별 또는 입체/평면 등으로 기준 정하기 ② 모둠별로 작품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③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한 작품과 감상 학습지 붙이기 ④ 감상 자료집 꾸미기	자료 4. 학습지–2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십이지신상 감상 자료집을 발표와 감상 ② 십이지신상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 이야기하기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2 십이지신상 작품

납석제 십이지상(돼지)
통일 신라 시대,
김유신 묘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십이지 저울추
통일 신라 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신라의 동물 모양 토우들
경주 금령총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토끼 · 말)
통일 신라 시대,
김유신 묘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원숭이 무늬 항아리
고려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3 학습지 – 1

문화재 감상 학습지

_____ 초등학교 4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문화재 이름	
작품 설명	
제작된 곳	
제작된 시기	
나의 느낌	
내가 만약 이 문화재를 다시 제작한다면	

문화재 감상 자료집 만들기

_____ 초등학교 4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십이지신상이란?

십이지신상은 띠를 나타내는 열두 동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 신라 시대에 능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되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고려 시대가 지나면서 공예품, 그림, 건축 등에도 나타나며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넣고, 순서에 따라 문화재 감상 자료집을 만들어 보세요.

1. 십이지신상 관련 문화재 모으기

(박물관이나 절에서 받아 온 도록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책에서 얻은 자료 등 십이지신상과 관련된 문화재 자료를 모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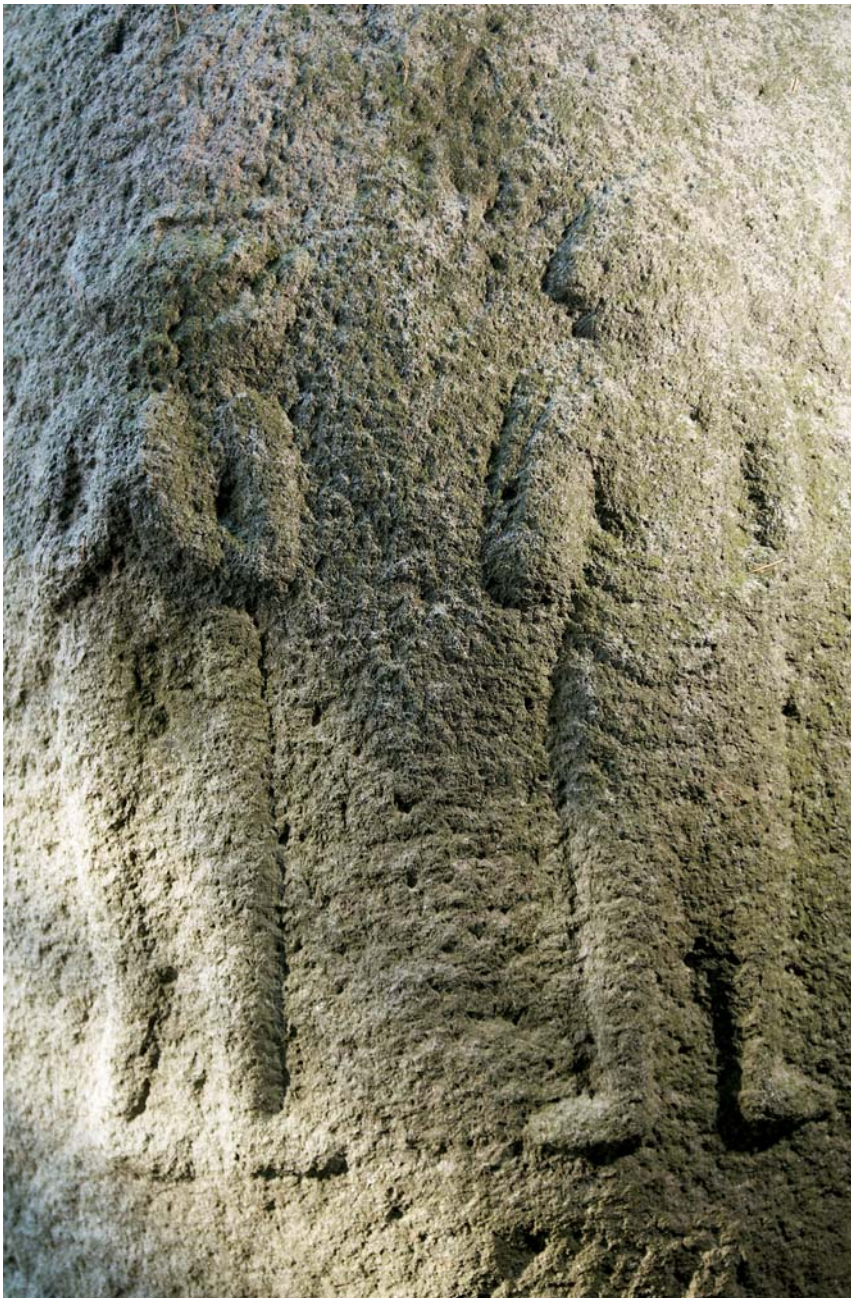
2.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기

가. 기준 정하여 수집한 자료 분류하기
나. 색도화지 위에 분류 기준 붙이고 수집 자료 분류
다. 시대별 십이지신상 문화재 분류
라. 입체 작품과 ( ) 작품 구분

3. 문화재와 감상지를 붙이고 감상 내용 적기

가. 분류한 문화재 중 마음에 드는 것 골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쓰기
나. 작품과 ( ) 를 붙이고 감상 내용 적기

4. 문화재 감상 자료집 묶고 겉표지 꾸미기



©이승무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의 일부
얼굴은 동물, 몸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십이지의 유래

십이지신은 땅을 지키는 열두 신장으로, 십이신장 또는 십이신왕이라고도 한다. 십이지신상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몸은 사람 형체인데, 무덤 주변이나 불전 외벽에서 많이 발견된다. 각 지지에 대응시켜놓은 열두 동물을 십이생초(十二生肖)라 부르고, 동아시아에서는 출생년도의 십이지를 '띠'라고 하여 구분한다.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인도, 이집트, 베트남, 멕시코에서도 십이지를 동물로 배열하고 있다.

십이생초의 먼 조상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천문 역법과 관련된 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 우주와 천계의 운행을 나타내는 천계십이수환(天界十二獸環)이라는 것이 있다. 원을 중심에서 12등분하여 그것을 열두 방위로 삼고, 각 방위마다 그에 상응하는 동물과 인물 등 열두 가지 형상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천문 역법 도상이 기원 전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동정(東征) 시기를 즈음해 중국에 유입됐고, 중국에 전래된 중앙아시아 역법 도상이 중국식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물로 대체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십이생초다. 중국의 십이생초가 우리 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삼국 시대로 보고 있다.

십이지가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상나라 말기의 갑골문자이며, 한나라 때 일반화되었다. 십이지를 동물과 대응시킨 것은 농민들이 쉽게 외울 수 있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다. 삼국 시대에 전래된 십이지 신앙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밀교의 영향으로 호국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단순한 방위신으로 그 신격이 변모해 갔다.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십이지신상 자료가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중국보다 한국이 방위신의 관념이 더욱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02. 열두 동물이 가리키는 시간과 방위

한국에서 십이지는 시간신과 방위신으로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다. 십이지의 열두 동물을 각 시간과 그 방위에 배열하게 된 것과 관련한 설화가 여럿 있는데, 동물의 발가락 수와 그 시간에 나와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을 들어 표시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십이지 동물 중 맨 처음에 오는 쥐는 앞 뒤 발가락 수가 다른데, 앞발은 홀수, 뒷발은 짝수로 특수하다고 해서 맨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 소(4), 호랑이(5), 토끼(4), 용(5), 뱀(0), 말(7), 양(4), 원숭이(5), 닭(4), 개(5), 돼지(4)의 순이다. 이런 순서는 발가락의 숫자가 홀수와 짝수로 서로 교차하여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은 시간을 표시할 때 그때그때 나와서 활동하는 동물을 하나 들어 그 시간을 나타냈는데, 십이지 동물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자시(23~01시): 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 다니는 때.
축시(01~03시): 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 반추하며 아침 밭갈이 준비를 할 때.
인시(03~05시): 하루 중 호랑이가 제일 흉악한 때.
묘시(05~07시): 해뜨기 직전에 달이 아직 중천에 걸려 있어 그 속에 옥토끼가 보이는 때.
진시(07~09시): 용들이 날면서 강우 준비를 하는 때.
사시(09~11시): 이 시간에 뱀은 자고 있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때.
오시(11~13시): 이 시간에는 고조에 달했던 '양기'가 점점 기세를 죽이며 '음기'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말은 땅에서 달리고 땅은 '음기'이므로 말을 '음기'의 동물로 보고 이 시각을 말과 연계시킨다.
미시(13~15시): 양이 이 때 풀을 뜯어먹어야 풀이 재생하는 데 해가 없다.
신시(15~17시): 이 시간에 원숭이가 울음 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
유시(17~19시): 하루 종일 모이를 쫓던 닭들이 둥지에 들어가는 때.
술시(19~21시): 날이 어두워지니 개들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때.
해시(21~23시):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다.

구분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시간	23시 ~01시	01시 ~03시	03시 ~05시	05시 ~07시	07시 ~09시	09시 ~11시	11시 ~13시	13시 ~15시	15시 ~17시	17시 ~19시	19시 ~21시	21시 ~23시
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위	북	북동쪽	동동북	동	동동남	남남동	남	남남서	서서남	서	서서북	북북서

03. 시대별 십이지신상

1) 통일 신라 시대

우리 나라의 십이지상은 중국 당대의 영향을 받아 8세기 중엽 무렵인 통일 신라 시대에 제작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십이지상은 주로 머리만 동물 형상을 한 무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점차 조각의 한 주제로 독립되어 독특한 조형 양식을 보여 준다. 고려 시대에는 머리에 관을 쓴 수관인신상(獸冠人身像)이 등장하여 무덤의 호석뿐 아니라 고분 벽화, 석탑, 석관, 부도, 거울 등 그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조선 시대에는 능묘 조각뿐만 아니라 불화로서 십이지 무신도가 유행하게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왕권이 강해지면서 지배층의 무덤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봉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능묘 주변에 호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웅대한 십이지호석(十二支護石)이 성립하게 되었다. 십이지상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신라 특유의 문화적 배경을 지니면서 변모하여 독창적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중국 당(唐)의 십이지상은 모두 문관의 복식을 입고 조용한 토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크기도 20cm 내외의 것들뿐이다. 그에 비해 김유신묘 십이지상은 높이가 96cm 정도이며 각기 다른 무기를 든 무복의 신장상(神將像) 호석으로 무덤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신라의 십이지신상은 불교 건조물인 탑파, 부도, 석등, 수미단, 귀부 등과 불구(佛具)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능묘 십이지신상은 복식에 따라 문복(文服)과 무복(武服) 신장상 두 가지 형식이 병존했는데 시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복 십이지상으로 전 김유신묘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 성덕왕릉 십이지신장상, 방형분 십이지신장상, 능지탑 십이지신장상, 원성왕릉 십이지신장상, 전 경애왕릉 십이지신장상, 흥덕왕릉 십이지신장상, 원성군 오류리능 십이지신장상이 있고, 문복 십이지상으로는 추정 신문왕릉 십이지신장상, 전 김유신묘 십이지신장상, 헌덕왕릉 십이지신장상이 있다. 어떤 복식을 했건 십이지신장상은 주로 왕이나 귀족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경덕왕릉 십이지신상

성덕왕릉 십이지신상

2)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이르르면, 십이지가 무덤의 호석뿐 아니라, 벽화, 석관(石棺) 등에 각각 배치되어 신라 때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십이지 호석이 있는 고려의 능은 원창왕후 온혜릉, 공민왕 현릉 등 13개가 있는데 능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통일 신라 때와는 달리 고려에 와서 분묘 내에서 벽화가 발견된다.

고려의 고분 벽화의 십이지신상은 문복의 수관인신의 모습으로 홀(笏)을 들고 있다. 현릉 현실 벽화의 십이지상은 복잡하고 높은 관을 쓰고 바지 치마를 입었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홀을 쥐었는데 머리에 쓴 관에 십이지 동물 두상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발 부분에서 연결된 뭉게구름을 타고 서 있다.

이외에도 석관의 바깥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하기도 하였고, 구리 거울의 문양에도 십이지상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구리 거울의 십이지상은 평복이 아니고 신장상의 무복이다. 모두 긴 창 또는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왼쪽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으로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체로 그 형상은 비슷해 보인다.

청자용머리 장식 붓꽂이
고려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용머리 장식과 투각 · 음각 · 양각 · 철화 기법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이 어울려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붓꽂이이다

3)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 들면서 능묘의 양식이 바뀌어 호석의 십이지신상은 사라진다. 효종 영릉(孝宗寧陵) 등에 돌로 난간을 두른 사이사이에 연꽃 문양으로 조각된 석편(石片)을 24개 배치하고 그 중 12개의 돌에 방위에 해당되는 십이지 문자만을 그 중앙에 새겨 놓은 예는 있으나 십이지신상을 조각한 경우는 없다. 조선 시대에 십이지신상은 궁전 주위와 불화(佛畵)에 나타난다. 경복궁 근정전의 돌 축대(築臺) 위에 십이지를 포함한 동물 석상을 배치하였다. 근정전 주위를 둘러싼 이중축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난간을 세우고 그 난간 위에 석조 십이지신상을 배치했는데, 십이지 중 동서남북의 위치에만 쥐·토끼·말·닭의 십이지신상을 올려놓았다. 세종로에 있는 대한제국 기념비전(記念碑殿) 주위에도 십이지신상이 있다. 난간 기둥의 동서남북에 그 방위에 해당하는 십이지신상을 배치하였다.

경복궁 십이지신상(호랑이)

경복궁 십이지신상(닭)

경복궁 십이지신상(소)

03. 분야별 십이지신상

1) 공예품

① 신라의 토우

토우란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으로 어떤 형태나 동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토우는 장난감이나 애완용으로 만들거나 주술적 의미, 무덤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동물 문양은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토기에서 나타난 동물 문양을 보면 단순하고 투박하게 표현되다가 점점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의 토우는 독립된 형태의 토우와 다른 그릇의 장식물로 쓰인 토우로 나뉜다. 소박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진 토우는 장례의 부장품이나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토우 장식 장경호

목이 긴 항아리인 장경호는 신라 토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항아리에 사람, 개, 거북, 개구리 등의 입체적 토우가 장식되어 있다. 토우의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배부른 임산부가 가야금을 타는 모양, 남녀가 성교하는 모양, 뱀과 개구리 등을 장식하여 풍요와 다산, 장수를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말머리 모양 뿔잔

말이나 양 등 동물의 머리 모양을 차용한 뿔잔은 고대로부터 여러 유목 민족의 문화권에서 보이는 유물이다. 이런 잔들은 당시의 지배층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선사 시대와 신라 시대 공예품의 동물이 주술적 의미가 강했다면 고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됐다. 고려 청자에 나타난 용은 왕의 권위를 뜻하는 동물 상징으로 추측한다. 조선 시대 백자에는 허공을 날고 있는 커다란 용이 곧잘 나타난다. 동물 상징이 나타난 것은 도자기뿐만이 아니다. 공예품에서도 동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경주 입실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에는 여러 가지 동물 문양이 새겨져 있다.

토우 장식 장경호
국보 제195호,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말머리 모양 뿔잔
보물 제598호,
가야,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2) 조각

능묘십이지상

삼국 통일 이후 방위신인 사신(四神)과 관련한 조각품을 제작하면서 무덤과 탑의 기단부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하였다. 처음 중국 당나라에서 통일 신라 시대에 전래되었을 때는 십이지용(十二之俑)의 형태를 띠었으나, 곧 신장상의 성격을 확립하며 명기(明器)에서 조각품으로 이행하여 통일 신라 나름의 독특한 십이지신상을 성립하고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능묘는 물론 불교 건축물·회화·공예품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독립된 소재로서 성행하였다. 무덤의 십이지신상은 주로 무인(武人)의 모습으로 왕릉의 둘레돌[護石]에 많이 조각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성덕왕릉·원성왕릉·흥덕왕릉 등이다.

김유신묘 십이지 호석(쥐)

김유신묘 십이지 호석(말)

3) 그림

① **벽화**

현무, 강서대묘 널방 북벽, 고구려

무덤의 외부에 십이지신상이 새겨졌다면 무덤 내부에는 벽화로 동물 상징이 그려졌다. 청룡, 주작, 현무, 백호 등과 같이 무덤의 동물 상징은 죽은 이의 영혼을 수호하고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고 믿었던 듯하다.

무덤 속에 그려진 수렵도는 크고 작은 동물들의 벽화는 당시의 생활상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동물이 적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무덤 속의 벽화는 동물로 방향을 나타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 주작, 남 현무, 좌 청룡, 우 백호라 하여 각 방향에 독특한 동물 상징 체계를 부여하였다.

② **십이신장도**

통도사 십이지화(호랑이)

통도사 십이지화(말)

십이지상은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 나라마다 있으나 춤추는 십이지상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통도사의 십이지번화(幡畵)가 대표적인데, 대한 제국 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세로 약 120cm, 가로 약 68cm 규모이다. 십이지화의 십이지 동물은 머리는 동물, 몸은 사람인 형태로, 화려하게 색깔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 인월도, 검, 창, 방망이 등의 무기를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한다. 갑옷에 시문된 문양은 곱팽이문, 호피문, 원문(圓文), 귀면문(鬼面文), 용비늘문, 소슬문 등 매우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굵은 선을 사용하여 갑옷, 박대, 지물 등을 개념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색채는 원색에 가까운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십이지상 형태는 불교 신장의 수호의 기능과 십이지의 방위 개념,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무속 신앙이 함께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처 www.ibulgyo.com

③ 민화

벽화 속의 동물은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화에 등장한다. 민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감정, 미의식이 구체화되어 자유분방한 발상과 표현으로 형식과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내포한 회화의 한 장르이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그려 소박하며 대부분이 정형화된 형식을 띠고 있어,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계승되었다. 민화는 개인과 시대의 차이가 뚜렷한 그림이고, 한국인의 생활 형식에, 오랜 역사가 밀착된 그림으로 내용이나 발상 등에는 한국적 정서가 짙게 내재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정초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이기도 했다. 용은 수호신의 의미뿐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다. 귀신을 쫓기 위해 다락 벽에 걸어두었다는 개 그림도 흥미롭다.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뜻에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결코 사납거나 험상궂은 법이 없다. 익살맞고 소박한 형태, 파격적 구성, 아름다운 색채는 한국적 미학의 한 형식을 보여 준다.

민화(호랑이)

④ 현대 회화 작품

민화는 현대 회화에 전승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 회화에 끼친 영향은 아주 크다. 민화 기법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는 이중섭, 장욱진, 박생광, 이영수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섭의 소를 주제로 한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소의 모습이 잘 나타내고 있다.

4) 부도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

우리 나라 석종형(石鐘形) 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유물일 뿐만 아니라 표면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한 것으로도 유일한 고승(高僧)의 사리탑(舍利塔)이다. 보통의 부도들과는 달리 널따란 바닥 돌 위에 종 모양의 몸돌이 놓인 간단한 구조로, 감실 입구 아래로는 십이지신상을 돌려가며 도드라지게 새겨놓았는데,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십이지상은 능묘와 석탑에는 보이나 부도에서는 보기 드문 예인데, 부도를 하나의 묘로 여겨 십이지 동물들을 새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
보물 제441호,
통일 신라 시대,
울산 학성공원 내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선우관지』, 성주덕 엮음, 이면우 · 허윤섭 · 박권수 역주, 소명출판, 2005.
- 『한국인의 상징세계』, 구미래 지음, 교보문고, 1992.
- 『우리 문화 길라잡이』,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전통 문화 233가지, 국립국어연구원 지음, 학고재, 2002.
- 『한국인의 상징세계』, 구미래 지음, 교보문고, 1996.
- 『신장상』, 김정희 지음, 대원사, 1989.
- 『21세기 우리문화』, 주강현 지음, 한겨레신문사, 1999.
- 『한국동물민속론』, 천진기 지음, 민속원, 2003.
-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김종대 지음, 다른세상, 2001.

참고 사이트

-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www.heritage.go.kr
- 문화재청
www.cha.go.kr
-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or.kr
- 불교신문 2111호, 불교신문 2221호 / 허균
www.ibulgyo.com
- 국립경주박물관
www.gyeongju.museum.go.kr
-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4.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직지심체요절』

청주 대성초등학교 정 원 종

"금속 활자[鑄字]를 만든 것은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 참으로 무궁(無窮)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 처음 만든 글자는 모양이 잘 되지 못하여, 책을 박는 사람들이 성공(成功)이 쉽지 않음을 근심했다. 경자년(1420) 겨울 11월에 우리 전하(세종)께서 이를 걱정하고 유념하시어 공조 참판 이천(李蕆, 1376~1451년)에게 명하여 새로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게 하시니, 매우 정교(精巧)하고 치밀하였다. 또 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 ?~1436년)과 좌대언(左代言) 정초(鄭招, ?~1434년)에게 그 일을 맡아 감독하게 명하여 일곱 달만에 일이 성공하니, 인쇄하는 사람들은 편리하다고 하였고, 하루에 인쇄하는 것이 20여 장에 이르렀다. (……) 이로써 글은 인쇄하지 못할 것이 없어,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문교(文敎)의 일어남이 마땅히 날로 앞서 나아갈 것이요, 세도(世道)의 높아감이 마땅히 더욱 성해질 것이다. 저 중국 한(漢)·당(唐)의 임금들이 단지 재리(財利)와 전쟁술에만 정신을 쏟아 그것을 국가의 급선무로 삼은 것에 비교한다면, 책을 펴내어 널리 배우게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니, 실로 우리 조선 만세(萬世)에 한이 없는 복이다."

세종대왕의 명으로 주자소에서 활자 모양을 개량한 다음 이에 대해 변계량(卞季良, 1369~1430년)이 쓴 발문, 『조선왕조실록』 세종 4년(1422) 10월 29일 계축일.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인쇄술은 그 시대의 도서 문화나 과학 기술이 발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로 우리 나라의 금속 인쇄술이 유서 깊음을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다.

이번 수업에서는 『직지』로 대표되는 우리 조상들의 인쇄 문화를 알아본다. 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활자를 직접 만들어 한 권의 책을 옛 방식대로 직접 만들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쇄 문화, 특히 한국의 고인쇄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각자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되새겨 보자.

2. 수업 목표

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인류의 유산인 『직지』를 알아본다.

나. 한 권의 책이 인쇄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활자를 직접 만들어 찍어 본다.

다. 전통 책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나라의 고인쇄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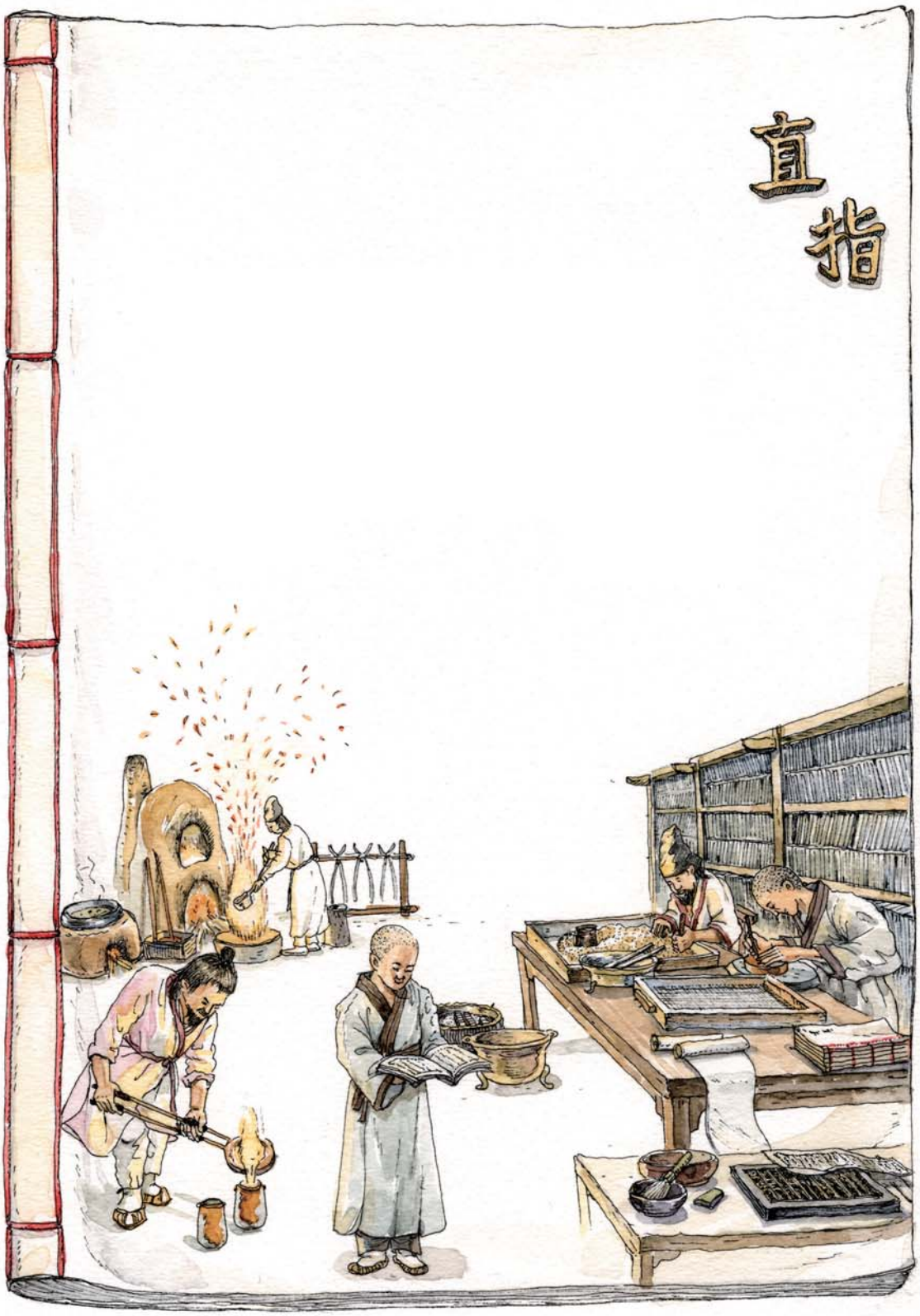
3. 수업 계획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직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조상들의 인쇄술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전통 제책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고무 활자로 그 위에 글자를 찍어 봄으로써 전통적인 기록의 방법을 실제적으로 체험한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인쇄물인 『직지』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는 이유를 조사해 온다. 또 프랑스에 있는 『직지』를 발견하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임을 증명한 박병선에 대한 자료도 읽어 오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直指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직지심체요절』

02.
학습 주제
직지와 인쇄 과정을 알아보고,
활자 찍어 책 만들기

03.
준비물
- 동영상 자료
- 인쇄 도구(조각칼, 고무판, 한지, 먹물, 신문지)

04.
핵심 활동
1.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와 전통 인쇄술 알아보기
2. 활자를 만들어 한지에 찍기
2. 전통 책 만들기

05.
학습 유형
문화재 프로젝트 학습

06.
관련 단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2)-①
역경을 이겨 내며 꽃피운
고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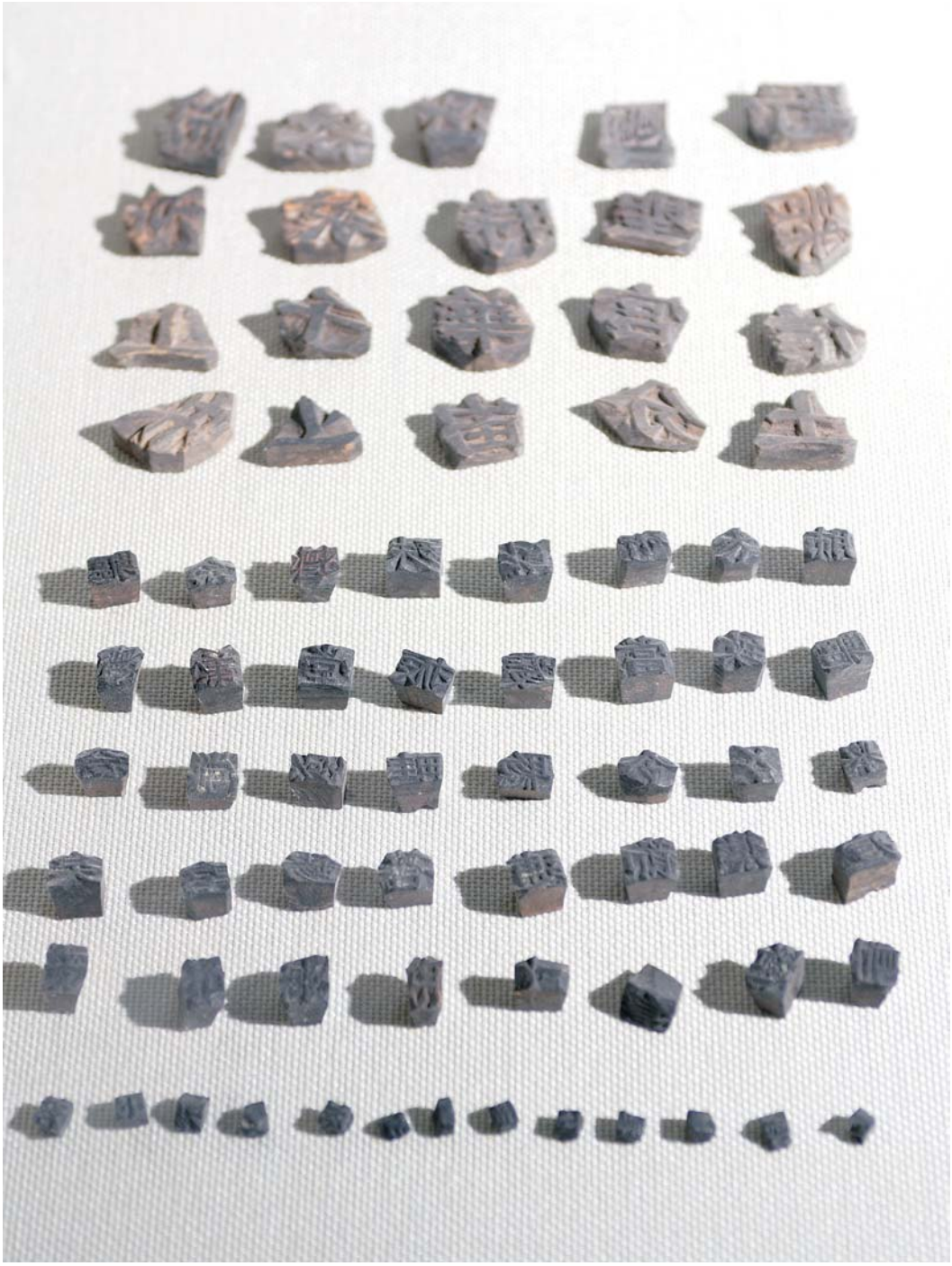
07.
수업 시기
4월

08.
시간
80분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나 서점의 책들은 기계로 인쇄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인쇄물을 만들었을까?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직지』를 통해 전통 인쇄술을 알아보고, 직접 활자를 만들어 책에 찍어 본다. 활동 1) 『직지』와 전통 인쇄술 알아보기 활동 2) 활자를 만들어 한지에 찍기 활동 3) 전통 책 만들기	자료 1. 인쇄 관련 동영상 유의점) 옛날에는 책을 만드는 데 어떤 점이 불편했을지 상상하게 하여 관심을 유도한다.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직지』와 전통 인쇄술 알아보기 ① 세계의 금속 활자본인『직지』가 인쇄된 곳이 어딘지 알아본다. ②『직지』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본다. ③『직지』의 본래 이름과 저자, 내용을 알아본다. ④ 세계 기록 유산을 알아본다. ⑤ 금속 인쇄의 과정을 카드 맞추며 알아본다. ⑥ '목판 금속 인쇄 장단점 알기' 학습지를 작성한다.	자료 2. 『직지』 관련 자료 자료 3.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자료 4. 금속 활자, 목판 인쇄 과정 자료 5. 학습지–1

© 이승무



각종 목활자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활자를 만들어 한지에 찍기 ① 고무판에 활자 새기기 - 활자를 새기는 과정을 설명한다(양각). - 고무판에 글자를 펜으로 미리 그려 놓는다. - 문장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새기고 싶어 하는 글자를 선택하게 한다. - 조각칼을 이용하여 활자를 완성한다. ② 새긴 글자를 한지에 찍기 - 새긴 활자에 먹물을 묻힌다. - 각자 고무판에 새긴 글자를 모아 찍어서 문장을 완성한다.	자료 6. 활자 만들어 찍기 유의점) 미술–다색 판화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의점)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의점) 교사가 계획한 문장을 순서대로 인쇄하고, 인쇄 후에 실물 화상기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활동 3) 전통 책 만들기 ① 전통 책 만들기 과정을 알아본다. ② 실제로 책을 만들어 본다. ③ 만들어 놓은 고무 활자로 글자를 책에 찍으면서 인쇄의 의미를 되새긴다.	자료 7. 전통 책 만들기 유의점) 원을 만들어 앉아 책을 옆 친구에게 넘기면서 자신이 새긴 글자의 위치에 알맞게 활자를 찍어 문장을 완성한다.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퍼즐 맞추기 학습지를 풀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②『직지』 및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③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소개하고 박물관 견학 및 체험 활동을 소개한다.	자료 8. 학습지–2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인쇄 관련 동영상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의 [정보 자료 > 동영상 자료] 코너에서 청주 MBC 25주년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을 볼 수 있다.

자료.2 『직지』관련 자료

1) 『직지』는 무슨 책일까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금속 활자본(영인본),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고려 시대의 승려인 경한(景閑, 1299~1374년) 백운화상이 편찬한 책으로, 부처와 여러 고승들의 법어(法語), 대화, 편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지』의 권말에는 고려 우왕 7년(1377)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 배포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가 간행된 것은 백운화상이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한 지 3년 후이다. 현재 상권은 사라지고, 하권만 전하고 있는 이 금속 활자본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백운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에서 1378년 간행한 『직지』의 목판본이 우리 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영광 불갑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흥덕사본 『직지』와 취암사본 『직지』의 필사본이 각각 1권씩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줄여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라고 불리며, 중심 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따온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요절'은 도를 닦는 데 도움이 될 구절을 얻을 책을 일컫는다.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발견 배경

『직지』는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때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해도 서양에서는 1455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금속 활자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직지』는 그보다도 70여 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본이었다.

『직지』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다가 발견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인 병인양요 이후 조선은 프랑스와 국교를 맺었다. 당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사람은 콜렝 드 플랑시(Colin de plancy, 1853~1922년)였다. 플랑시는 조선의 도자기와 고서에 관심이 많아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많은 책을 수집했다. 이때 『직지』 하권을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플랑시는 임기를 마친 후 자신의 수집품을 모두 프랑스로 가지고 갔다. 그렇게 프랑스로 건너간 『직지』는 1911년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1943년)에게 팔렸다가 그의 유언에 따라 1950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던 한국 유학생 박병선(朴炳善, 1928년~)이 이를 발견하고 금속 활자본임을 증명함으로써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 종의 책만 찍어낼 수 있는 목판 인쇄와 달리 활자 인쇄는 활자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책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인쇄 기술이었다. 이처럼 인쇄 기술의 새로운 전기가 된 금속 활자의 발명은 세계 인쇄 출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직지』는 2001년 『승정원 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복원된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

3) 『직지』의 요람, 청주 흥덕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 권하의 말미에는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흥덕사의 터가 어디인지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5년 10월, "서원부 흥덕사(書原府 興悳寺)"라고 새겨진 쇠북(금구)과 "황통 10년 흥덕사(皇統十年 興悳寺)"라고 새겨진 큰 그릇 뚜껑(불발)이 발견되면서 과거에 흥덕사가 있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직지』를 탄생시킨 흥덕사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탄생한 흥덕사의 절터는 1986년 5월 8일 사적 제315호로 지정되었고, 청주시에서는 1987년부터 5년 동안 복원 작업과 청주고인쇄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현재 흥덕사지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금당과 3층 석탑이 복원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승무

『직지』의 금속 활자본이 간행된 흥덕사의 터
(복원된 모습), 청주

4) 『직지』는 목판으로도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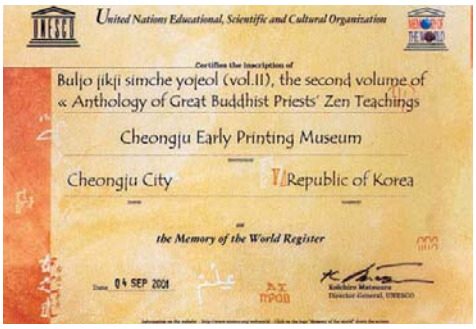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직지의 목판본은 고려 우왕 4년(1378) 6월 여주 취암사에서 법린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목판본은 금속 활자본과 달리 닥종이에 인쇄되었으며, 상·하권 본문에 1377년 성사달(成士達, ?~1380년)이 쓴 서문과 1378년에 쓴 이색(李穡, 1328~1396년)의 서문이 함께 실려 있다.

목판본은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영광 불갑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과 영광 불갑사의 소장본에는 서문이 없는 상태이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목판본
보물 제113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자료.3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Memory of the World)

1)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유네스코 인증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격년제로 선정하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이다.

기록 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두 가지로 나뉘며, 주로 도서관·문서고 등에 보관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값진 소장 문서이다. 필사본·도서·신문·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 그림·프린트·지도·음악 등 비(非)기록 자료,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오디오·비디오·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관리에 대해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2년마다 6월 말까지 각국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록 유산 잠재 목록을 제출하면 9월 초에 유네스코 일반 정보 사업국(PGI)에서 신청서를 사전 심사하고, 다음 해에 국제 자문 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등록 여부를 심의·추천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을 결정한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177점의 기록 유산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세계 기록 유산의 주요 기준

영향력(Influence)

기록 유산이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ex) 세계 역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 종교 서적 등

시간(Time)

국제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ex) 초기 영화 산업의 자료 유산, 독립 운동 또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의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

장소(Place)

기록 유산이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locality)와 지역(region)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ex)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특별히 중요한 장소와 관련되거나, 전 세계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치, 사회 종교 운동의 태동을 목격하고 있는 기록 유산

사람(People)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과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현저하게 다룬 경우

ex)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 편년사(Radziwill Chronicle) 사업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ex)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쓰인 원고, 근대 미디어 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하나의 민족 문화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드러진 가치가 있는 경우

● 이차적인 기준(등록보조기준)

◦ 원상태로의 보존(Integrity) 특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희귀성(Rarity) 독특하고 특별히 진귀한 경우

2) 유네스코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유네스코 직지상은『직지』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 기록 유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제정한 상이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69차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년마다 기록 유산 보존·활용에 크게 공헌한 개인·단체에게 시상하고 있다. 후보는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자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협의), 정부간 기구(IGOs), 유네스코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INGOs)가 추천하며, 수상자는 국제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하고, 심사위원단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한 세계 기록 유산 국제 자문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자에게 상금 미화 3만 불이 수여된다(비용과 상금은 우리 나라 청주시가 부담).

● 역대 수상자

◦ 2005년 체코 국립 도서관(체코, 2005년 9월 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시상)

◦ 2007년 과학학술원의 음성 기록 보관소(오스트리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기록 유산 국제 자문위원회에서 시상)

자료.4 금속 활자 인쇄 과정과 목판 인쇄 과정

1) 금속 활자 인쇄 과정 카드

금속 활자 인쇄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한 카드를 제시한다. 카드를 섞어 놓고 순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한다. 4~6명으로 이루어진 조를 짜서 조별 활동으로 진행한다.

01.
글자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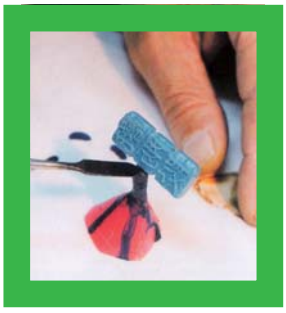
자본은 수서(手書-손으로 쓰기), 모사(模寫-베껴 쓰기), 판본(版本-인쇄된 것) 등의 방법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글자본을 정한 후 글의 내용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수량을 정하여 종류별로 자본을 제작한다.

02.
자본 붙이기

결정된 자본의 종류에 따라 어미자의 제작에 필요한 낱개 혹은 연속된 판형(版型) 틀을 만든다. 밀랍(蜜蠟)을 녹여 판형 틀에 붓고 응고시켜 밀랍 판형을 만들고, 그 위에 정해진 자본을 뒤집어 붙인다.

03.
어미자 만들기

밀랍 판형에 붙인 자본을 따라 조각칼을 사용하여 양각으로 새긴다. 양각된 어미자의 획(劃)이나 굵기 등 내면을 잘 다듬고, 이어진 밀랍 판형이라면 일정한 크기로 하나씩 낱개로 잘라내어 완성한다.



04.
주형틀 완성하기

평평한 목판이나 철판 위에 거푸집을 장치한 후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 가지를 넣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물토를 채워 넣는다. 이때 쇳물을 부어 넣을 입구와 쇳물이 잘 흘러들어가게 하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05.

쇳물 붓기

활자를 만들고자 하는 금속을 녹이고, 주형은 쇳물이
흘러 들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이거나
가장자리에 무거운 것을 얹어 고정시킨다.
주형의 입구로 녹인 쇳물을 부으면 쇳물은 입구에서
홈을 따라 흘러들어 간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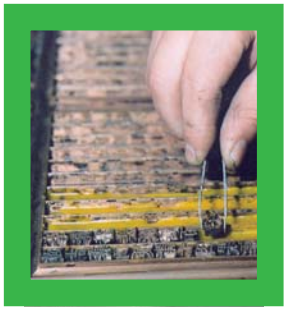
활자 떼어내기

주형에 부은 쇳물이 식으면 활자 가지쇠를 들어내고,
쇠톱 등을 사용하여 활자 가지쇠에 달린 활자를 하나씩
떼어 낸다. 하나씩 떼어낸 활자를 줄로 깎고 다듬어
활자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활자를 완성한다.

07.

조판

인쇄할 내용에 따라 활자를 뽑아 인판 틀에
조판을 하는데, 먼저 밀랍을 계선 사이에 깔고
열을 가하여 녹인 후 활자를 하나씩 늘어놓는다.
이 때 인쇄하기 좋도록 수평을 잡는다.



08.

인쇄

금속에 잘 묻는 유연먹(기름을 태운 후 먹과
섞은 것)을 사용한다. 활자 면에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놓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인체를 사용하여 골고루 문질러 애벌 인쇄를 한다.

출처 청주고인쇄박물관

※ 위 금속 활자 인쇄 과정 카드는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의 사진 자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주소: http://www.jikjiworld.net/content/jikji/index.jsp?top=02&sub=2&left=02&url=mn020/mn020_030.jsp

2) 목판 인쇄 과정 카드

목판 인쇄의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한 카드를 제시한다. 카드를 섞어 놓고 순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4~6명으로 이루어진 조를 짜서 조별 활동으로 진행한다.

자료.5 학습지 – 1

목판 인쇄와 금속 활자 인쇄의 장단점 알기

_____ 초등학교 ____ 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 보기의 문장들을 보고 목판, 금속 인쇄의 빈칸에 넣으세요.

보기	• 판에 뒤틀림이 없다. •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다. • 아무먹이나 사용할 수 있다. • 판을 관리하기 쉽다. • 잘 닳지 않는다. • 판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 인쇄가 빠르고 편리하다.	• 먹을 만드는 데 번거로움이 있다. • 인쇄 결과물이 부드럽다. • 판을 보관하기가 어렵다. • 인쇄를 많이 할 수 없다. • 판을 만드는 데 시간이 적게 든다. • 제작이 편리하다.

	장점	단점
목판 인쇄		
금속 인쇄		

목판 활자는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뒤틀림도 있고 닳기도 하지만 금속 활자는 금속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인쇄해도 잘 닳지 않고 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쉬웠다. 반면 목판 활자는 찍을 때 아무 먹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금속 활자의 먹은 특별히 따로 제조해야 했기 때문에 먹을 만드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목판 인쇄의 장점은 금속 인쇄에 비하여 제작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들고 인쇄 결과물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의 특성상 뒤틀리거나 썩는 등으로 보관하기가 어렵고 인쇄를 많이 하면 금방 닳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료.6 활자 만들어 찍기(1.s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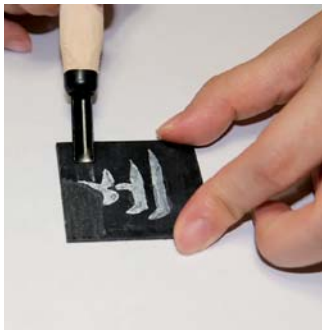
고무판에 글자를 새긴 후에 학생들이 새긴 고무판 전체를 모아서 한지에 찍었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교사가 미리 문장을 만들어 준비한다. 문장은 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문장을 만들며, 문장을 만들 때 학생들과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학생 수가 25~30명일 때 (1~2글자씩 활자를 만들 수 있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청주에서 만들어 졌으며,
우리 조상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준비물

글자 새기기



새긴 글자 모아 놓기

활자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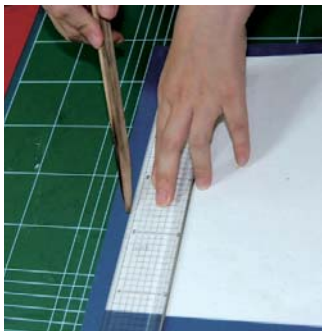
먹물 묻히기

한지에 찍기

자료.7 전통 책 만들기(2.swf)

예) 준비물 : 한지, 도화지, 가위, 풀, 펀치, 자, 끈, 바늘, 각자 만든 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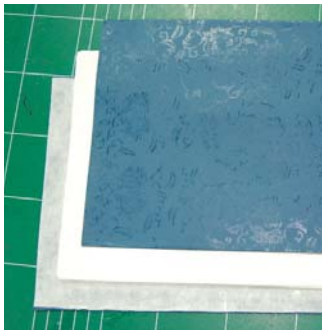
한지 크기에 맞게 표지에 표시하기



표지 모서리 잘라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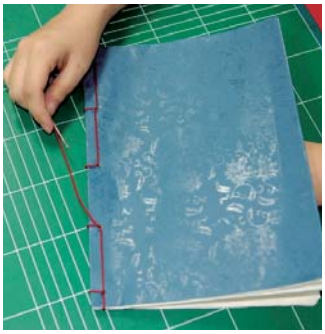
표지 가장자리 풀로 붙여 접기

표지와 속지 합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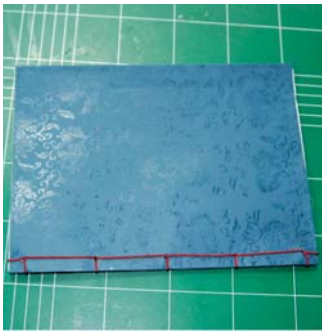
실로 꿰맬 부분 구멍 뚫기

실로 꿰매기



실 매듭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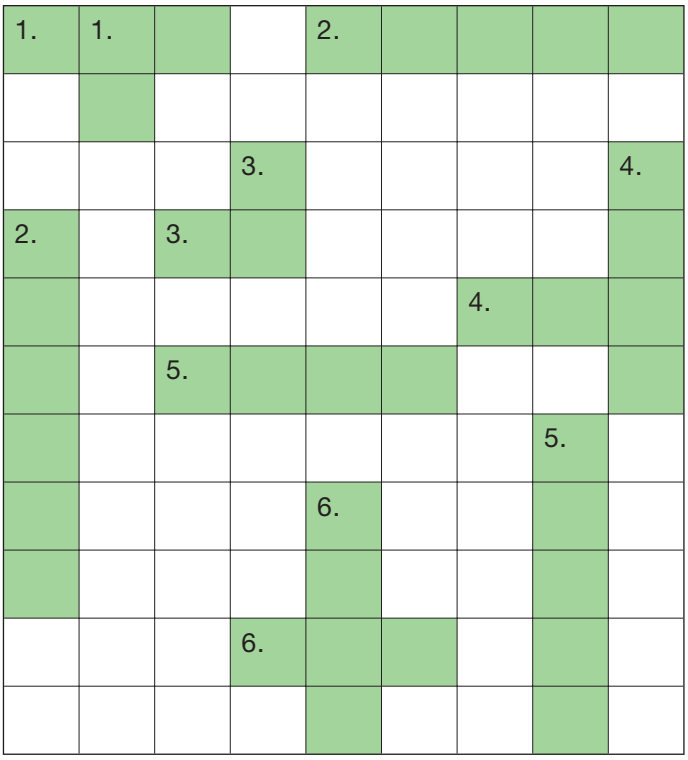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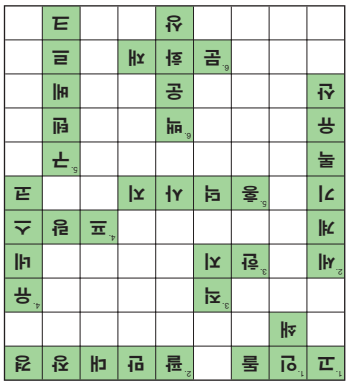


자료.8

학습지 – 2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래의 가로, 세로 설명을 잘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정답 풀이

가로 열쇠

1.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으로써 돌을 올려놓아서 만든 무덤의 이름은?
2. 이것은 고려가 원나라의 침략에 맞서 종교적 염원으로 그 침략을 극복하고자 만든 불교 목판 경전으로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3. 주로 닥나무[楮]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로써 잘 찢어지지 않으며, 양지와 달리 색이 잘 변하지 않아 1,00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종이는 무엇일까?
4.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 직지는 현재 ○○○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5. 충북 청주시 운천동(雲泉洞)에 있는 사찰터인 이곳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 유적지이다.
6. ○○○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 주는 귀중한 유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로 열쇠

1. 문자·그림·사진 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 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일로서 우리 나라에서 금속 ○○가 세계 최초로 발명되었다.
2.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은 무엇일까?
3.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 시대에 인쇄된 이 불교 서적의 이름은 무엇일까?
4. ○○○○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 기구이다.
5. 독일의 인쇄술 창시자로서 금속 활자로 『42행 성서』를 인쇄한 사람은 누구일까?
6.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그의 저서 『불조직지심체요절』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 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고 부른다.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1) 훈민정음(1997년 등재)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며, 조선 왕조 제4대 임금인 세종이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우리말과 구조가 다른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 체계여서 대다수 백성들이 배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세종 25년(1443)에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이름하였다.

세종 28년(1446)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설명한 한문 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책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남아 있는 본은 1940년경 경북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귀중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 시대, 목판본,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

2) 조선왕조실록(1997년 등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1392~1863년) 동안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그 역사 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3) 승정원일기(2001년 등재)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1400년경)에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조1년(1623) 3월부터 고종31년(1894) 6월까지 272년간 이 곳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융희 4년(1910)까지 총 3,243책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 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과 더불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이며, 또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록보다 오히려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원본은 한 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보 제303호(1999년 4월 9일)로 지정되어 있다.

4) 조선 왕실 의궤(2007년 등재)

의궤(儀軌)는 조선 왕실에서 국가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작성되거나 사용된 모든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이다. 같은 유교 문화군에 속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의궤의 체계적 편찬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궤는 조선 시대 600여 년에 걸쳐(1392~1910년)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뿐 아니라, 건축물·왕릉의 조성과 왕실 문화 활동 등에 대한 그림 기록도 담고 있어 600여 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 여 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궤에는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 왕조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 연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국조보감감인청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화성성역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3)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 및 제경판(2007년 등재)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 해인사

고려대장경판(高麗大藏經板)의 제작은 한국이 13세기에 일구어낸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다. 고려대장경판은 81,258 목판에 새긴 대장경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 자료다.

고려대장경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한 불교 대장경판으로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불교 대장경의 원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 언어로 된 경전, 계율, 논서, 교리 및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등을 한역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원문인 일부 문헌까지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이러한 대장경판의 제작은 상당한 국고 및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에 소장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87,000여 장의 목판은 1098년부터 1958년까지의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경판들로써 국가 제작판과 사찰 제작판으로 나뉜다. 국가 제작판은 고려대장경으로 81,258판 5,200여만 자에 달하고, 사찰 제작판은 5,987판이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책과 인쇄의 역사』, 크리스치안 털만 지음, 오석균 옮김, 계림북스쿨, 2002.
- 『고인쇄』, 천혜봉 지음, 대원사, 1996.
- 『금속활자장』, 박문열 지음, 화산문화, 2001.
-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지음, 박철민 그림, 대교출판, 2008.
- 『수난의 문화재-이를 지켜 낸 인물 이야기』, 문화재청 엮음, 눌와, 2008.
- 『직지심체요절』, 김홍영·라경준 지음, 최준규 그림, 스쿨김영사, 2007.

참고 사이트

- 청주고인쇄박물관

www.jikjiworld.net

- **관람 시간** 09:00~18:00
- **전화 번호** 043) 269-055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 유산

www.unesco.or.kr/whc

- 유네스코 직지상

www.jikjiprize.org

- 디지털 직지

www.digitaljikji.net

5.

미션명 : 이매의 턱을 찾아라!
(우리의 하회탈과 친해지기)

인천 부내초등학교 황 재 인

초랭이 : 이매야, 이매야 이누마야
이매 : 왜 그노 이누마야. (하며 엉뚱한 데 보다가 초랭이 쪽으로 얼굴만 바보스럽게 돌린다)
초랭이 : 아까 있잖나, 중놈하고 부네하고 춤을 요래요래 추다가(중춤 흉내) 내가 오이께네 저짜로 안갔부랬나.
이매 : 흐흐흐흐, 우습다 우스워. (하며 무릎을 친다)

(초랭이는 말을 빠르게, 이매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초랭이 : 이매야, 이매야 이누마야.
이매 : 왜그노 이누마야.
초랭이 : 중놈하고 부네하고 노는 세상인데 우리도 춤이나 실컷 추고 노다 가는 게 어떻겠노. (하며 춤추는 동작)
이매 : 그래, 그래, 좋다, 좋아. (하며 끄떡뜨덕 손뼉친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상쇠는 세마치. 이매가 초랭이 쪽으로 찌우뚱 거리며 리듬에 맞추어 걸어가다가 초랭이가 그 뒤쪽으로 걸어가면 초랭이를 찾기도 하며 관중들과 장난치기도 하는데 초랭이는 마당의 공간을 전부 활용하면서 다시 초랭이를 따라가며 이 동작을 한두 번 반복. 초랭이가 적당히 세마치의 장단에 맞추어 이매의 어깨를 치면 상쇠는 세마치를 끝맺는다.

초랭이 : 이매야, 이매야 이누마야. (하며 주위를 맴돈다)
이매 : 왜그노 이누마야. (하며 고개를 좌우로 느리게 돌린다)
초랭이 : 우리끼리만 노께 아니라 너 집에 선비하고 우리 집에 양반하고 나와 싸움이나 시켜 보는 게 어떻겠노?
이매 : 좋다, 좋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상쇠는 세마치)

하회 별신굿, 파계승 마당 대본 중에서,
1978년 이창희 옹의 구술을 바탕으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탈춤은 서민들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던 소통의 장이었다. 일종의 대중 문화, 민중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 중, 턱이 없는 '이매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매탈은 턱이 없어 바보탈, 병신탈이라 불리는데, 하회 별신굿의 파계승 마당과 양반 선비 마당에 등장한다. 이매의 순박하고 바보스러운 생김새와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그러한 웃음 뒤에는 속되게 타락한 상층 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가 깔려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중 문화는 서구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화를 이루는 정신의 근본에는 사람들의 뿌리가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부터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가꿔왔던 문화와 그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하회탈과 친해지는 동안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정서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우리 탈의 풍자와 해학, 하회탈의 과학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탈 박물관을 찾아가 보고,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 본다.
다. 하회탈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매탈의 완성된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렇게 그린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라. 우리 탈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3. 수업 계획

하회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재청의 가상 이벤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벤트에 응모하게 하면서 우리 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이매탈을 복원시키며 하회탈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게 한다. 그리고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탈춤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 보고 '도전! 골든벨' 형식의 퀴즈 게임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즐겁게 확인한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문화재에는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가 있다. 그 차이를 학생들이 미리 조사해 오도록 한다. 그리고 하회 별신굿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이매의 턱을 찾아라!

02.
학습 주제
하회탈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라진 이매탈의 턱 복원하기

03.
준비물
- 〈허도령과 탈 이야기〉 애니메이션
-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
- 안동하회마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 수업자 제작 파워포인트
- 학습지-1 · 2

04.
핵심 활동
1. 우리 나라의 탈 알아보기
2. 사이버 탈 박물관 탐방하기
3. 이매탈 복원도 스케치하기
4. 제작 중점 및 작품 발표하기

05.
학습 유형
- 멀티미디어 활용 문화재 조사, 탐구 학습
- 문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06.
관련 단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2-(1)-①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3-(1)-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07.
수업 시기
5월,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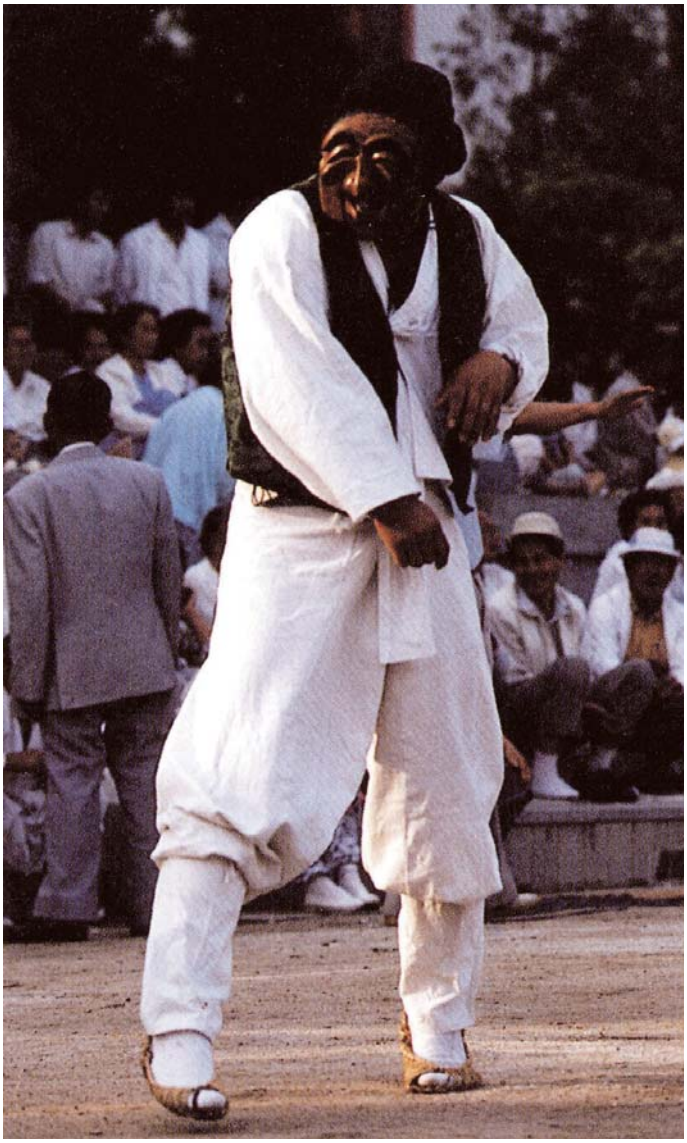
08.
시간
50분

09.
장소
컴퓨터실(ICT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① '허도령과 탈 이야기' 동영상 시청하기 하회탈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매탈의 턱이 완성되지 못한 사연이 담긴 '하회탈의 전설'을 들려 준다. ② 문화재청 가상 공모 확인하기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재청의 가상 이벤트 제시하기 **참가 대상:** 대한민국 초등학생 **공모 내용:** 미션! 이매의 턱을 찾아라! **공모 설명:** 하회탈은 우리 나라의 많은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국보 제121호, 병산탈 2개 포함)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 유산이며 가면 미술 분야에서는 세계적 걸작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하회탈 중 유독 이매탈만은 턱이 없는 채 전해지고 있다. 이에 금번 문화재청에서는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써 대한민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매탈의 복원된 모습을 공모하고자 한다. 참고 사항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제시된 참고 자료를 활용해 우리 나라의 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 • 참고 자료: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 **2.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하회탈의 우수성과 하회탈 제작의 특징을 충분히 살펴볼 것** • 안동 하회마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3. 복원된(턱이 있는) 이매탈의 모습을 스케치 할 것** **4. 제작 중점 및 작품 설명을 함께 할 것**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우리 탈의 풍자와 해학, 하회탈의 과학성을 이해하고, 하회탈 제작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매탈의 완성된 모습을 스케치할 수 있다. 활동 1) 우리 나라의 탈 알아보기(개별) 활동 2) 사이버 탈 박물관 탐방하기(개별) 활동 3) 이매탈 복원도 스케치하기(모둠별) 활동 4) 제작 중점 및 작품 발표하기(모둠별)	자료 1. 〈허도령과 탈 이야기〉 동영상 자료 2. 문화재청 가상 공모 파워포인트 유의점) 실제와 같은 느낌을 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메인 화면에서 팝업창이 뜨는 형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한다. 유의점) 공지에 세부 사항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 흐름 및 위계를 학습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우리 나라의 탈 알아보기 ①〈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 시청 ② 탈의 정의, 우리탈의 역사, 우리의 탈과 외국 탈의 차이점, 탈놀이의 의미, 하회별 신굿 놀이, 탈놀이의 분포 등 알아보기 - 이해를 돕기 위해 상영 중간에 교사가 설명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③〈도전! 골든벨〉 형식의 퀴즈로 동영상을 감상하며 알아낸 사실들 확인하기	자료 3.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 유의점) 동영상 시청 전, 학습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사후 평가가 있을 것임을 안내해 동영상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한다. 자료 4. '우리 나라의 탈' 도전! 골든벨 유의점) 동영상 내용을 개괄적으로 테스트하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 문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활동 2) 사이버 탈 박물관 탐방하기 ① 관련 사이트 안내하기 - 문화재청 가상 공모에서 제시된 참고 사이트를 안내한다. - 각 사이트를 간단히 소개한다. ② 사이버 탈 박물관 탐방하기 - 제시된 사이버 공간을 방문해 하회탈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이해한다. - 제시된 사이버 공간에서 하회탈 제작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 제시된 학습지를 해결하면서 이매탈의 복원된 모습을 스케치하기 위한 준비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5. 안동 하회 마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자료 6.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유의점) 사이트를 직접 링크해 제시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안내한다. 유의점) 각 사이트를 간단히 안내하며, 사이버 탈 박물관 탐방 시 참고 자료로 작성할 학습지에 대한 안내도 덧붙인다. 자료 7. 학습지–1 유의점) 순시하며, 학생 활동을 돕는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3) 이매탈 복원도 스케치하기 ① 스케치하기 전 모둠별 의견을 공유하기 - 각자 사이버 탈 박물관을 탐방해 수집한 결과물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고, 복원될 이매탈 스케치에 대한 합의된 최종 의견을 도출해낸다. ② 이매탈 스케치하기 -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된 학습지에 이매탈의 복원도를 스케치한다. ③ 제작 중점 및 작품 설명서 작성하기 - 스케치와 더불어 기존 하회탈 제작 방법 상의 특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술한다.	자료 8. 학습지–2 유의점)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모둠별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유의점) 기존 하회탈의 모습을 모방하기보다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복원한 작품에 점수를 많이 줄 것임을 인지시킨다.
	활동 4) 제작 중점 및 작품 발표하기 ① 각 모둠별로 제작 중점 및 작품 발표하기 - 모둠별 발표 시 모둠 평가지를 배부, 작성하여 하회탈 제작의 특징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서로 평가한다. ② 문화재청 가상 공모 작품 선출하기 - 작성된 모둠 평가지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가상 공모에 출품할 작품 1점을 최종 선출하고, 소정의 포상을 한다.	자료 9. 상호 평가지 유의점) 모둠 발표 시, 다른 모둠의 설명에 집중하고, 서로의 작품을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호 평가지를 작성하게 한다.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포스트잇에 학습하며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적는다. ② 작성된 포스트잇을 발표하고, 칠판에 그려진 이매탈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서 탈의 의미를 되새긴다.	유의점) 단순히 느낀 점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칠판에 그려진 이매탈의 윤곽을 자신의 포스트잇으로 채워가면서 우리 탈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하회 별신굿 놀이의 이매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허도령과 탈 이야기〉 동영상

하회탈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고려 중엽 약 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회마을엔 허씨들이 집성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 재앙이 들어 사람의 힘으론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한다. 마침 이 마을에 살던 허도령이라는 사람의 꿈에 신이 나타나 "탈을 12개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 굿을 하면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계시를 하며 탈이 "다 만들어 질 때까지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까지 일러 주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허도령은 그때부터 목욕 재개하고 문 밖엔 금줄을 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며 오랜 시간 동안 탈 제작에 몰두했다 한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던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허도령이 하도 그리워 어느 날 금줄을 넘어 허도령이 탈을 만드는 방문의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한다.

"누구도 들여다보게 해선 안 된다"는 신의 금기가 깨어지는 순간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하며 그때 만들고 있던 "이매"탈은 턱을 채 만들지 못한 채 허도령이 죽음으로서 지금까지 턱이 없는 모습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출처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www.mask.org/coding/sub5/sub4_1.asp

자료.2 문화재청 가상 공모 파워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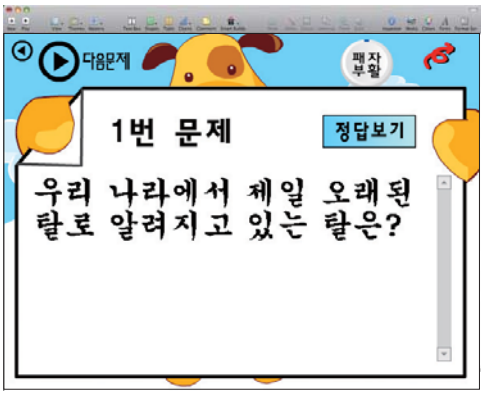
수업 도입 부분에서 이와 같은 미션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심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실제 상황의 재현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여러 명의 학습자가 하나의 조를 이루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문제, 현재나 과거에 논쟁이 되었던 주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는 개인의 경험 모두가 문제로 개발될 수 있다. 개발된 문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조별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므로 대인 관계, 협동 작업, 의사 소통 기술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

자료.3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 우리의 탈 이야기〉 동영상

본 자료는 수업자가 2007년 인천광역시 교육 방송 연구대회에 출품했던 〈덩딱덩딱, 다함께 얼쑤!〉라는 작품의 초반 도입부를 본 수업 지도안의 흐름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원래의 동영상은 각 지방에 분포하는 탈놀이의 종류와 그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학습자에게 생소한 우리 나라의 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본 수업의 의도에 맞게 우리 나라의 탈 전반에 대한 개관을 중점으로 재편집하였다. (런닝 타임 5분, 파일 형식 wmv)

자료.4 '우리 나라의 탈' 도전! 골든벨 퀴즈



출처 http://oksone.new21.org

동영상을 통해 습득된 우리 나라의 탈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도전! 골든벨〉 형식의 퀴즈이다. 총 열 문제로 제작되었으며, 시간을 고려해 문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탈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개괄적 차원에서의 확인을 목적으로 문제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문제를 맞춘 학습자에게 즉각적 보상을 실시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3, 5, 10번의 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 / 정답

1.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탈로 알려진 탈은?
   : 조개탈

2. '탈'이라는 말의 두 가지 뜻은?
   : 나쁜 일이나 재앙 / 그것을 없앤다는 의미

3. 외국 탈에서 볼 수 없는 우리 탈의 특징은?
   : 역할에 따른 인물의 개성을 잘 표현함

4. 조선 후기 우리 탈놀이의 특징은?
   :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5. 조선 후기 탈놀이가 양반들을 풍자했던 이유는?
   : 양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6. 하회별신굿놀이의 여섯 마당은?
   : 무동, 주지,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선비

7. 탈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까닭?
   : 각 지방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했기 때문

8. 황해도 지방의 탈춤의 종류는?
   : 봉산 탈춤, 강령 탈춤, 은율 탈춤

9. 하회마을에서 공연되고 있는 탈놀이의 이름은?
   : 하회 별신굿 놀이

10. 우리의 탈이 소중한 까닭은?
    : 우리 조상의 숨결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5 안동 하회마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자료.6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미션명 : 이매의 턱을 찾아라!

(우리의 하회탈과 친해지기)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 인터넷 사이트(www.mask.kr, www.mask.org)를 참고해 가며 아래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아래의 탈에 이름을 붙여 주세요.

2. 하회탈 중 턱이 떨어져 있는 탈은 양반·선비·백정탈이 있습니다. 이 탈들의 제작 과정을 조사해 적어 보세요.

3.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의 사이버 전시실(제1전시실 : 한국관)을 방문해 하회탈과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의 탈들을 비교해 보고, 어떤 점이 다른지 적어 보세요.

자료.8 학습지 – 2

미션명 : 이매의 턱을 찾아라!

(우리의 하회탈과 친해지기)

학교

학년 반

모둠명

1. 자, 모둠별로 이매탈을 완성해 볼까요?

2. 작품의 어떤 면을 부각시켰습니까?

3. 작품의 전체적인 설명을 적어 보세요.

자료.9 **상호 평가지**

모둠 평가지 (모둠명 :

모둠 이름/총점	모둠 평가 내용		
	공모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나요?	얼마나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했나요?	작품 중점 및 작품 설명은 성실했나요?
점	☆☆☆☆☆	☆☆☆☆☆	☆☆☆☆☆
점	☆☆☆☆☆	☆☆☆☆☆	☆☆☆☆☆
점	☆☆☆☆☆	☆☆☆☆☆	☆☆☆☆☆
점	☆☆☆☆☆	☆☆☆☆☆	☆☆☆☆☆
점	☆☆☆☆☆	☆☆☆☆☆	☆☆☆☆☆
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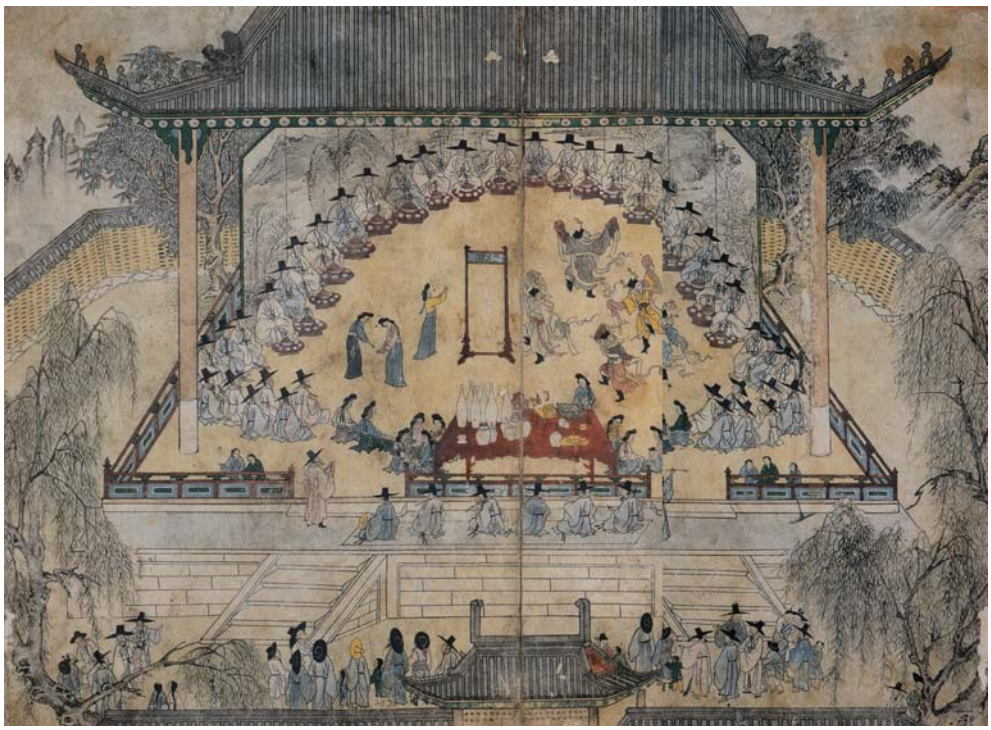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탈이란?

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 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자로는 면(面), 면구(面具), 가면(假面), 대면(代面), 가두(假頭)[01], 가수(假首)라 하고, 우리 말로는 광대, 초라니, 탈, 탈박, 탈 바가지라고 하기도 하며,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탈이라 일컫는다.

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원시 시대로 추정된다. 원시인들은 동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수렵 가면을 사용했으며, 이후 동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에 가면을 사용하면서 점차 주술적 의미를 띠고, 종교나 신앙의 의식용으로 변화하였다.

가면의 한자를 풀어 보면 가짜 얼굴이란 뜻이다. 하지만 가면은 원래의 얼굴을 감추고 다른 얼굴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이나 신에 이르기까지 가면이 표현하고 있는 그 나름의 인격이나 신격을 완성한다. 즉 탈을 쓰게 되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거둔다.



이원기로회도, 필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02. 탈의 역사

1) 탈의 기원

원초적인 탈은 악한 신을 물리치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제 얼굴이 아닌 상징적 신격의 또 다른 얼굴을 만들고자 했던 인간의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원시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착한 영혼과 나쁜 영혼의 싸움에서 빚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쁜 영혼을 쫓는 방법으로 탈을 쓰고 춤추며 주문을 외웠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냥을 할 때 짐승을 겁주거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02]

2) 우리 탈의 역사

우리 민족의 탈의 기원은 기원전 5천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이미 돌이나 뼈 등으로 소형 인물상이나 동물상들을 만들었고 암벽화, 벽화 등에서 보이는 여러 정황으로 탈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문헌 자료로는『삼국지(三國志)』의「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과 중국의 사서(史書)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여러 부족이 제천(祭天)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위해 가무백희를 열었으며 이 연희에서 탈도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삼국사기』의「잡지(雜志)」에 수록되어 있는 최치원(崔致遠, 857~?년)의「향악잡영(鄕樂雜詠)」5수(首)는 탈놀이에 대한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①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무덤들의 벽에 그려진 그림들 중 특히 무용총의 벽화에서 고구려 당시의 무악(舞樂)을 느낄 수 있다. 안악 제3호 동수묘 벽화 중 후실의〈무악도〉에서 등장하는,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춤꾼은 탈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마상재(馬上才)[03], 칼싸움, 공을 던지는 농환, 양걸등 잡희의 모습을 팔청리 고분과 약수리 고분, 미천왕 고분의 벽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악[04]은 악기와 탈춤의 수용으로 백제악, 신라악을 능가하여 삼국악의 총칭으로 불린다. 현재 고구려악의 유산들은 일본에 전해진 우방악(右方樂)에서 찾아볼 수 있다.

01 얼굴 앞을 가리는 면구를 가면, 뒷머리까지 가리는 것을 가두, 가수, 투두(套頭)로 구별하기도 한다. 오늘날 '탈'이 가면과 같은 말로 쓰이지만, 우리 탈놀이〔가면극〕에 사용되는 탈은 모두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고, 뒤에는 뒷머리를 가리는 '탈보〔假面布〕'가 있다. 때문에 우리 탈은 가두에 가깝다.

02 탈은 원시 집단 생활에서 신령, 악귀, 요괴, 동물 등 비인간적인 것으로 가장하여 주술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 사용했다. 즉 외적이나 악령을 위협하거나, 신의 존재를 표시하거나, 죽은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 또는 토테미즘(totemism) 신앙에서 보이듯이 동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② 백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외침을 많이 당했으나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 남조 왕조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고려사(高麗史)』의 「악지(樂志)」는 '선운산', '무등산', '방등산', '정읍', '지리산' 등 백제의 다섯 가락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백제 무왕 13년(612)에 백제 사람 미마지가 '기악(伎樂)'을 남중국의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전하는 산대 놀이와 일본의 기악이 같은 계통의 놀이라는 의견에 따른다면, 백제 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기악의 옛 형태가 일본에서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대사가 없는 묵극에서 대사극으로, 신앙성을 띤 연희에서 세속적 연희(산대놀이의 형태)로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③ 신라

신라는 7세기 후반에 삼국 통일에 성공하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신라악을 전하는 문헌으로는 『고려사(高麗史)』의 「악지(樂志)」에 실린 '삼국속악조(三國俗樂條)'가 있다. 신라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검무(劍舞), 무애무(無碍舞), 처용무(處容舞), 오기(伍伎)를 꼽는다. 이 중 검무에 대한 기록은 『동경잡기(東京雜記)』와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등장한다. 신라의 황창이란 7세 소년이 검무를 빙자하여 백제왕을 죽이고 목숨을 잃어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연희가 후세까지 전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춤은 단순한 모의무(模擬舞)나 검술의 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을 쓰고 연희하는 희곡성이 짙은 가면 무희였다. 한편 처용무는 뿌리 깊은 신앙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처용 설화는 신앙성을 띤 주술 전승으로 일상 생활 속에 전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처용의 형상을 본 뜬 탈이 신앙적 상징물로 발전하였다. 이후 처용무는 굿에서 가무극으로 변화하면서 후세에 이르렀다.

03 말을 타고 부리는 무예(武藝)의 하나다. 달리는 말 위에서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기예로, 고려 시대에 성행한 격구(擊毬)나 희마(戱馬)가 조선 시대에 마상재로 계승된 것으로 추측한다. 원래 무술의 용도로 발생하였으나, 실제 전쟁에서보다 구경거리, 재주 부리기 곡마로 주로 알려졌다.

04 수 시대의 역사서인 『수서(隋書)』의 「악지(樂志)」에서는 고구려의 악곡이었던 지서가(芝栖歌)와 지서무(芝栖舞)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나라의 「십부기(十部伎)」 가운데 고려기(高麗伎)에는 호선무(胡旋舞)와 광수무(廣袖舞)가 들어 있는데 이러한 악무들은 서역계 악무이며 조선조까지 전승되었다. 현재는 고구려악의 유산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일본에 전해진 우방악, 곧 고마가쿠(コマガク)에서 흔적을 찾아보아야 할 형편이다.

④ 고려

통일 신라와 조선의 다리 구실을 한 고려는 고유한 민족관을 형성하려 노력하였고, 동시에 신라 문화를 계승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성장시켰다.

고려는 국교인 불교를 중심으로 사회의 구조를 다시 구성했다. 그러한 가운데 명절과 불교 행사의 규모는 점점 커졌으며 행사의 횟수도 많아졌는데, 팔관회와 연등회가 그 중 대표적인 행사이다. 팔관회의 문헌으로는『고려사』의「예지(禮志)」가 있으며 여기서 '태조 원년 음력 11월에 신라의 유습을 부활시켜 팔관회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팔관회 행사 중에 탈놀이나 탈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⑤ 조선

조선 왕조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였지만 연등회나 팔관회 등의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서히 종교적 의미가 옅어지면서 산대잡극(山臺雜劇)과 나례(儺禮) 쪽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국가적 지원이 사라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민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자생적으로 전승되어 온 탈놀이를 비롯한 산대잡희들은 면면히 그 생명력을 유지 · 발전시키면서 오늘에 전한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그 나름의 독창적인 탈들이 전승되고 있다.

궁중에서는 처용무와 학춤이 성행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정해진 거처가 없이 무리지어 떠도는 광대를 '뜬광대'라 칭했는데, 이들 놀이패 중 탈놀이를 하는 놀이패로는 남사당패(덧뵈기), 대광대패(오광대 놀이 계통), 초란이패(초란이굿), 중매구(오광대 놀이 계통) 등이 있었다. 이들의 탈과 탈놀이는 현재 남사당패(덧뵈기)말고는 독자적 전승은 거의 끊어진 상태다. 대광대패와 중매구의 탈놀이는 경상남도 일원에 잔존하고 있는 오광대 놀이에서 그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⑥ 오늘날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탈놀이에서 쓰이는 탈들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역사 발전과 함께 변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 문화인데 이것을 문화재로 고정시켜 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처일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탈놀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탈은 지나간 어느 시기의 표정으로 굳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삶과 함께 부단히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생명력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수한 탈들에 우리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구태여 토속적인 데 국한하지 않고 오늘의 춤, 연극에 쓰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탈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옛 것에 대한 단순한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밑거름의 바탕 위에서 오늘의 사회와 연관 지어 그 고유함을 이어 나가야 하겠다.

03. 하회탈의 특징과 제작 과정

한국 전통 연희에서는 가면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대개의 경우 종이나 바가지로 만들어 탈놀이가 끝나면 태워 버렸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의 경우, 마을에서 집을 지어 보존해 왔을 뿐 아니라 탈에 대한 금기나 제약이 심해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하회탈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9종(각시, 양반, 부네, 중, 초랭이, 선비, 이매, 백정, 할미) 의 탈 이외에도 떡달이, 별채, 총각 3종이 더 있었으나 일제 시대 때 잃어버린 것으로 전한다. 하회탈은 매년 정월 보름날에 거행되는 별신굿 놀이(중요 무형 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됨. 예능 전수자로 이창희 옹을 위촉하였다)에 사용하였다. 서민들이 평상시에는 입에 담지 못하던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마음껏 토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들 가면은 오리나무로 만들고 채색했으며 턱을 따로 만들어 노끈으로 달아서 놀이 때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백정과 양반은 세련된 입체감으로 눈을 끈다. 한편 1980년대에는 2개의 주지 탈을 추가로 하회탈에 지정하였는데 이 탈은 별신굿 놀이의 한 마당인 '주지 놀음' 때 사용했던 것으로 다른 탈들과는 다르게 반타원형의 판자 한쪽에 코와 입을 따로 만들어 붙였고, 판자의 표면에는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눈을 그렸다. 주위에는 보자기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코 위에는 구멍을 통해서 끈을 꿰게 되어 있다.

양반

각시

부네

선비

중

백정

이매

할미

초랭이

주지

04. 우리 탈의 생김새

일반적으로 우리 탈은 기괴하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실제 얼굴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고 왜곡되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탈들에게 우리는 친근감과 인간적인 느낌을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탈이 민중의 삶, 민중의 미의식과 닮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탈의 모양은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재료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대소쿠리로 만든 탈은 소쿠리를 거꾸로 세운 사다리꼴 모양이며, 마분지를 재료로 만든 탈은 수염이 세모나게 강조되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일정하다. 탈의 모양에 따라 탈이 나타내는 성격도 다르다.

백정은 장방형의 모양이고, 역삼각형의 탈은 초랭이에 많이 쓰이며 이것은 항상 촐랑거리면서 세태를 풍자하는 날카로움을 형상화하는 듯하다. 여성의 부드러움을 나타낼 때에는 갸름한 모양의 탈을 썼다.

이목구비는 주로 입체감을 달리하여 표현하였는데, 강한 성격을 지닌 남성을 나타내는 탈일수록 입체감을 크게 표현했다. 또 더 큰 효과를 위하여 강렬한 색이나 혹을 사용하기도 했다. 불룩불룩한 혹의 조형성은 탈에 강한 입체성을 부여한다. 눈은 대체로 크고 동그랗게 뜬 모양이 대부분인데, 마치

초랭이

중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세태들을 보고 나서, 놀라움과 불만을 말하려는 듯하다. 한편 양반은 웃는 표정의 형상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풍류나 즐기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방상씨 탈이나 시시딱딱이는 황금색 눈을 네 개 달아 귀신을 쫓는 위엄성을 표현했다.

반달 모양, 입 꼬리가 처진 것, 위로 올라간 것 등 탈의 입 모양 또한 다양하다. 우리 탈에는 특히 입이 삐뚤어진 것이 많은데, 양반이나 샌님들이 미색 다툼이나 허망한 말장난만을 하는 모습을 정상이 아닌 입모양으로 표현하여 그들이 하는 말의 실상을 입의 형상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또 각시탈의 입을 막은 이유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풍자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 탈의 강렬한 오방색이 갖는 주술적 의미는 마을의 풍농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활동적이고 규모가 큰 탈들은 주로 붉은색이다. 취발이, 말뚝이 등의 젊은이의 탈은 양반이나 노장 등 늙은이와 지배층을 공격하는 탈들에 쓰인다. 반면 흰색은 험한 일을 하지 않고 귀하게 자랐다는 것을 뜻하는 색으로써 여성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탈에 쓰였다. 노장이나 늙은 중들은 거의 흑색탈로 표현된다. 수도로 경지에 이른 고승이지만 흑색으로 표현해 고승들의 관념적 허위를 풍자한 것이다.

할미와 각시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봉산 탈춤』, 김지일 지음, 두산동아, 2006.
- 『엑설런트 티칭』, 한정선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애들아! 탈춤이랑 놀자』, 송인현 지음, 두산동아, 2004.
- 『하회탈, 하회 탈춤』, 임재해 지음, 지식산업사, 1999.
- 『한국의 탈춤』, 조동일 지음, 이화대학교출판부, 2005.
-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조동일 지음, 지식산업사, 2006.

참고 사이트

- 안동 하회마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www.mask.kr

- 사이버 하회동 탈 박물관 사이트

www.mask.org

-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www.hahoemask.co.kr

6.

소리로 엮어 가는 우리 이야기, 판소리

성남 금상초등학교 박 주 만

"얼시구나 졸시고, 절시구나 졸시고, 얼시고 절시고 지화자 좋네, 얼시구나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돈돈돈 돈 봐라, 살았네 살았네 박흥부가 살았네, 야 이놈의 돈아 어데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시구나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같이 둥글 둥글 도는 돈 돈돈돈돈 돈돈돈돈 돈 봐라 (……) 얼시구나 졸시고, 여보아라 자식들아, 야 이놈들아 춤을 추어라.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얼시구나 돈 좋다, 돈 좋다 돈 봐라.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 얼시구나 졸시고."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 아니리(말), 발림(몸짓)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음악극이다. 이러한 판소리 음악은 우리 역사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한 전통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뛰어난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2차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매우 예술성 높은 음악이기도 하다.

이번 수업에서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흥부가〉의 박타는 대목 중 '돈타령' 부분을 감상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능동적인 판소리 감상을 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판소리의 예술성을 배울 수 있다.

2. 수업 목표

가. 판소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나. 장단을 치며 판소리를 감상한다.

다. 판소리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느껴 본다.

3. 수업 계획

인터넷에서 조사한 판소리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흥부가〉 중 '돈타령'을 직접 들어 봄으로써 판소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기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영상 자료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도록 한다. 또 판소리 다섯 마당의 내용을 파악하고, 장단을 직접 치면서 적극적으로 판소리의 흥취를 느껴 본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학생들이 판소리의 개념과 특징을 미리 조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함으로써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소리로 엮어 가는
우리 이야기, 판소리

02.
학습 주제
판소리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판소리 공연을
감상하면서 전통 문화의
소중함 깨닫기

03.
준비물
소고

04.
핵심 활동
1. 판소리 조사 발표하기
2. 판소리 감상하기
3. 판소리 구성 요소 알기
4. 판소리 다섯 마당 이야기 알기
5. 판소리 감상하며 장단 치기

05.
학습 유형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06.
관련 단원
- 초등학교 6학년 음악, 음악극
- 사회, 2-(1)-③
  서민 문화에 나타난 서민들의
  생각 알아보기

07.
수업 시기
5월

08.
시간
100분(2차시)

09.
장소
교실

● 1차시 수업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판소리 공연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 판소리 연주 장면의 학습 자료를 보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 음악회나 TV시청 등을 통한 판소리 경험을 서로 이야기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판소리 공연 감상을 통해 판소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판소리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느낀다. 활동 1) 판소리 조사 발표하기 활동 2) 판소리 감상하기 활동 3) 판소리 구성 요소 알기	자료 1. 판소리 공연 사진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판소리 조사 발표하기 ① 과제 학습으로 조사한 판소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② 인터넷이나 백과사전 등에서 찾은 판소리 과제 학습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③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나 인상적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예) 판소리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은 세계적 음악이다. 활동 2) 판소리 감상하기 ①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 부분을 동영상으로 감상한다. ② 학생들에게 지금 듣는 부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상하며 듣기를 권한다. ③ 감상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④ 전래 동화 『흥부전』의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고 수업 시간에 감상한 판소리의 내용이 어떤 장면인지 이야기 나눈다. ⑤ 판소리 공연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활동 2) 판소리 구성 요소 알기 ① 동영상을 통해 〈흥부가〉 '돈타령'을 다시 감상한다. ② 판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본 뒤, 다시 한 번 판소리 〈흥부가〉 '돈타령' 대목을 감상하며, 판소리를 이루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창** : 소리꾼이 하는 노랫가락 • **아니리** : 소리꾼이 하는 말 또는 대화 • **발림** : 소리꾼이 하는 몸짓 • **추임새** : 고수 혹은 관객이 하는 흥을 돋우는 말("얼씨구", "좋다", "으이" 등)	자료 2. 학습지–1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판소리를 공부한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② 다음 시간에 배울 판소리 장단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소고를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 2차시 수업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 지난 시간에 배운 판소리의 뜻과 구성 요소를 다시 확인한다. - '판소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둠별로 삼행시를 짓는다. - 모둠별로 지은 삼행시를 발표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판소리 이야기 내용을 파악하고, 판소리 장단을 연주한다. 이 과정에서 판소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활동 1) 판소리 다섯 마당 알기 활동 2) 판소리 감상하며 장단 치기	자료 1. 판소리 공연 사진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판소리 다섯 마당 알기 ① 판소리로 공연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알아본다. ② 그림과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판소리 마당을 퀴즈로 풀어 본다. ③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이해한다.	자료 3 판소리 연상 퀴즈 파워포인트 자료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판소리 감상하며 장단 치기 ① 판소리 공연에서 북의 역할을 알아본다. ②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을 이해한다. : 노래의 반주를 해 주는 역할 소리꾼의 흥을 돋우는 역할 음악을 더욱 세련되게 해 주는 역할 ③ 〈흥부가〉 '돈타령' 대목을 들으면서, 중중모리 장단의 빠르기를 감지한다. ④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박을 구음으로 해 본다.	자료 4. 판소리의 장단 자료 5. 판소리 다섯 마당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			○			○			○		
덩			쿵			쿵			쿵		

➜ 기본 장단을 익히고 연주해 봅시다.

⑤ 중중모리 장단을 무릎장단으로 쳐 본다.

⊖		|	○	|	|	○	○	|	○		○
덩		덕	쿵	덕	덕	쿵	쿵	덕	쿵		쿵

덩 : 양손을 함께 무릎을 친다.
쿵 : 왼손만 무릎을 친다.
덩 : 오른손만 무릎을 친다.

⑥ 한 장단씩 교사와 주고받으며 소고로 연주해 본다.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판소리'를 배우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 ②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판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할 일들을 이야기해 본다.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판소리 공연 사진

자료.2 학습지 - 1

우리의 소리 "판소리"

- **학습 주제 :** 판소리를 감상하며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차시:** 1차시

_____ **초등학교** ____ **학년** ____ **반** ____ **번** **이름** _____

⊙ 다음 시간에는 판소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둠별로 〈보기〉의 주제 중 한 가지씩 정하여 조사하여 봅시다.

---- 〈 **보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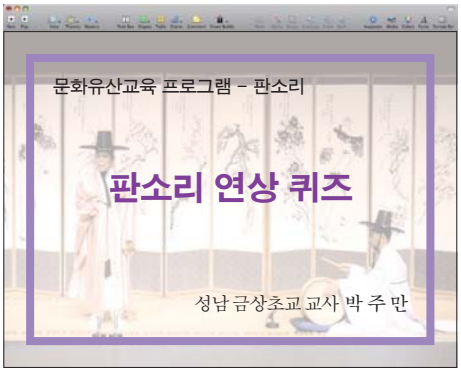
① 판소리란? ② 판소리 다섯 마당 ③ 판소리 장단
④ 판소리 무형 문화재 ⑤ 유명한 판소리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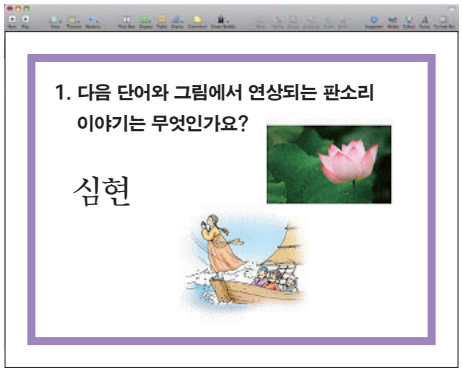
---

1. 우리 모둠이 정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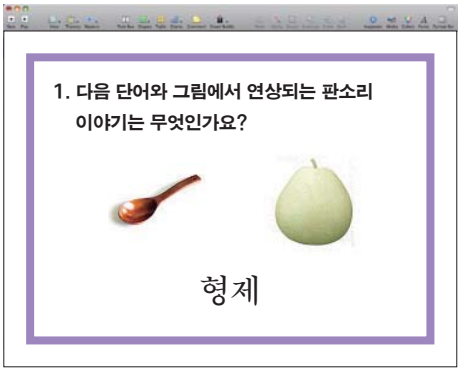
2. 조사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자료.3 판소리 연상 퀴즈 파워포인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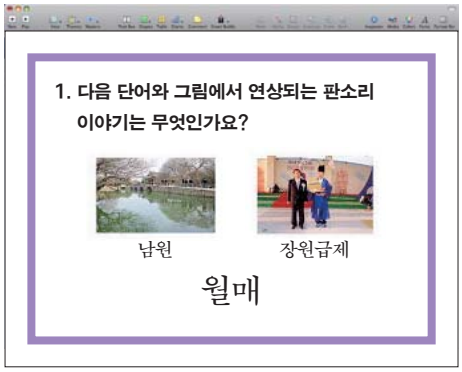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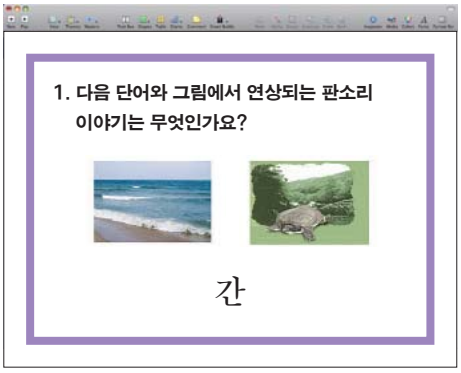
정답 : 심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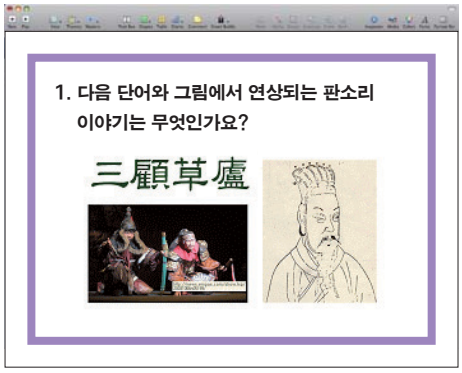
정답 : 흥부가



정답 : 춘향가



정답 : 수궁가



정답 : 적벽가

자료.4 판소리의 장단

반주자인 고수는 창자가 소리를 할 때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준다. 북은 둥그런 통 양쪽에 소가죽을 대어 만드는데, 지름이 40cm, 폭이 25cm 안팎이다. 고수는 왼쪽 손바닥으로 궁편을 치고, 오른손에는 20cm 정도 길이의 북채를 쥐고 채편과 북통을 두들겨 장단을 친다.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장단은 대략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가장 느린 진양조는 24박이고, 그 다음 중모리는 12박, 보다 빠른 중중모리가 12박, 좀 더 빠른 자진모리는 4박, 그리고 가장 빠른 휘모리는 4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변형 장단인 엇모리 5박 또는 10박, 엇중모리 6박 등이 있다.

자료.5 판소리 다섯 마당

처음 판소리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판소리 열두 마당이라고 하여, 열두 개의 이야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곱 마당은 점차 판소리로 공연되지 않음으로써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만 남았고, 이를 판소리 다섯 마당이라고 일컫는다.

1) 춘향가

남원의 기생 출신 월매의 딸 성춘향은 광한루에서 그네를 뛰다 사또의 아들 이몽룡의 눈에 띄게 된다. 사랑에 빠진 춘향과 몽룡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떠나자 생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새로 온 변사또로부터 수청 들기를 요구받았으나, 몽룡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수청을 거절하여 옥에 갇혀 처형될 위기에 놓인다. 한편,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고향 남원으로 내려와 춘향을 구하고, 변사또를 벌한다. 〈춘향가〉는 문학성으로나 음악성으로나 연극적인 짜임새로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서 가장 예술성이 높은 마당으로 꼽힌다.

2) 심청가

심청의 어머니가 심청을 낳다가 죽자, 눈이 먼 아버지(심학규, 심현)는 젖동냥을 해 가며 심청을 기른다. 효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양미 삼백 석을 벌기 위해 제수로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바다에 살고 있던 용왕은 심청의 사연을 듣고는 연꽃을 태워 지상으로 올려 보낸다. 이를 지나가던 임금이 심청의 아름다움에 반해 왕비로 삼게 되고,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이에 심청과 아버지의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진다. 〈심청가〉는 예술성이 높기로는 〈춘향가〉 다음으로 평가되며, 슬픈 대목이 많아서 계면조로 된 슬픈 소리가 많다. 또한 아니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에 능하지 않고는 〈심청가〉를 이끌어 가기가 매우 어렵다.

3) 흥부가

부모가 죽자 형 놀부는 집안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밖으로 내쫓는다. 아내와 수많은 자식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흥부는 놀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놀부는 문전박대하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지붕에서 떨어진 제비 새끼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이듬해 봄이 되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자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 주자 마찬가지로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 왔는데, 이를 심자 박에서 놀부를 벌하는 온갖 괴물이 나타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마음씨 고운 흥부는 파산한 놀부를 모셔와 행복하게 살아간다. 〈박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흥부가〉에는 서민다운 재담이 가득 담겨 있고, 또 놀부가 탄 박통 속에서 나온 놀이패들이 벌이는 재담도 들어 있어서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서 가장 해학성이 강한 마당으로 꼽힌다.

4) 수궁가

병이 든 용왕은 자신의 병에 토끼의 간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라로 하여금 그것을 구해오도록 명한다. 육지로 올라간 자라는 토끼을 꾀어, 용궁까지 데려가는 데는 성공하지만 간을 깨끗한 바위틈에 숨겨 놓았다는 토끼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결국 토끼를 놓치고 만다. 〈수궁가〉는 〈토끼타령〉, 〈별주부타령〉, 〈토별가〉 따위로 불리기도 한다. 〈수궁가〉의 사설이 소설로 바뀐 것은 『토생전』, 『토끼전』, 『별주부전』, 『토공사』, 『토별산수록』 따위로 불린다.

5) 적벽가

중국 위나라, 한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에 조조와 유비와 손권이 서로 싸우는 내용을 담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 가운데, 양자강 적벽에서의 싸움(적벽대전)과 그 앞과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삼고초려에는 장수의 위엄 있는 기상을 그리느라고 웅장하고 유유한 소리가 많고, 장판교 싸움과 적벽 싸움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긴박한 과정이 많아서 자진모리 장단에 우조 소리가 많고, 군사 설움 타령이나 화용도 대목에는 슬픈 계면조 소리와 재담이 많이 들어 있다.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판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란 예부터 판소리나 잡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쓰였다. 넓은 의미에서 소리는 판소리 공연 전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소리하는 사람' 등의 표현을 볼 때 우리 민속악에서 '창' 즉, '성악'을 가리키는 말로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는 이런 뜻의 '소리'에 일이 벌어진 자리를 뜻하는 '판'이라는 단어가 붙어 형성된 말로 짐작된다. '판'이라는 말은 '굿판', '씨름판', '판이 깨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형식 중에서도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특정 공연 양식을 가리키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소리, 광대 소리, 타령, 잡가, 창, 창악, 극가, 창곡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오다가 '판소리'라는 용어로 정착하였다.

1964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지정), 강릉 단오제(2005년 지정)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지정되었다.

02. 판소리의 구성

판소리의 판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창자(唱者), 고수(鼓手), 관객 이렇게 셋이다. 그 중에 창자는 판소리의 꽃으로, 그의 음색이나 표현에 따라서 판소리는 크게 달라진다. 창자는 노래로 하는 '창', 말로 하는 '아니리', 그리고 몸짓으로 하는 '발림'을 섞어가며 소리를 한다.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춰 주는 반주자로, "얼씨구", "좋다", "으이", "그렇지" 같은 감탄사를 내는데 이를 추임새라고 한다. 추임새는 고수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소리 공연은 관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객들은 그저 듣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임새를 넣으면서 공감하고 격려하며 함께 즐기게 된다.

정리하면, 판소리는 창, 아니리, 발림, 추임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판소리의 종합 예술적 성격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노래로 하는 창은 음악적 요소를, 말로 하는 아니리는 문학적 요소를, 몸짓으로 하는 발림은 연극적 요소를 담고 있어 판소리를 종합적 공연 예술로 볼 수 있다.

● 단가(短歌)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노래를 말한다. 판소리의 사설이 긴 데 비해, 짧다는 뜻으로 '단가'라 부른다.

단가는 소리판에서 두 몫을 담당한다. 판소리의 발성법으로 익힌 판소리는 소리를 시작하여 삼십분이나 한 시간쯤이 지나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게 되기 때문에 길고 힘든 판소리를 하기 전에 단가를 불러 목을 푸는 한편 성대의 상태를 시험하고 음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한편 청중을 환상의 세계 곧 판소리적 시·공간으로 끌어들여 즐거운 기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리판에 참여토록 하는 몫도 한다.

단가의 장단은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중모리 장단이 대부분이지만 중중모리 장단과 엇중모리 장단도 쓰인다. 그리고 조는 우조(羽調, 담담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며 흔히 느린 장단에 맞추어 부른다)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나, 계면조(界面調, 여성스럽고 처절하며 향토적인 특색이 강하다)를 섞어 부르기도 하고 경드름(밝고 경쾌한 느낌이 강하다)으로 부르기도 한다. 보통 속도로 2~3분에서 5분 정도까지 걸린다.

사설은 주로 강산 풍경이나 역대 성군(聖君)이나 영웅호걸(英雄豪傑), 철인(哲人), 문장재사(文章才士), 절세미인을 그린 고사(古事)를 노래한 것들이 많다.

03. 판소리 다섯 마당

판소리의 내용은『춘향전』,『흥부전』등 널리 알려져 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예수전〉과 같은 창작 판소리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판소리라고 하면 주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를 말한다. 이를 일컬어 '판소리 다섯 마당'이라고 한다.

판소리가 발생할 당시에는 원래 판소리 열두 마당이 있었다.『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에 따르면 판소리 열두 마당은 〈장끼 타령〉, 〈변강쇠 타령〉, 〈무숙이 타령〉, 〈배비장 타령〉,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춘향가〉, 〈적벽가〉, 〈강릉 매화전〉, 〈숙영낭자전〉, 〈옹고집〉이라 한다. 이 열두 마당 가운데서 〈변강쇠 타령〉, 〈배비장 타령〉, 〈장끼 타령〉, 〈옹고집〉은 사설만 전하고, 〈무숙이 타령〉, 〈강릉 매화전〉, 〈가짜 신선 타령〉은 사설조차도 사라졌다. 이 일곱 마당이 언젠가부터 판소리로 공연되지 않으면서 지금의 판소리 다섯 마당이 정착된 것이다.

04. 판소리 명창들의 흥미로운 일화

1) 명창 권삼득

권삼득(權三得, 1772~1841년)은 판소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조선 정조 대왕 때의 명창이다.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인 '안동 권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유학 공부를 멀리하고 소리 공부에 그만 빠져버렸다. 당시 광대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소리를 한다고 하니, 권삼득의 문중 어른들은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하여 권삼득 명창을 멍석에 말아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 권삼득 명창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죽기 전에 소리를 원 없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중의 어른들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고, 권삼득 명창은 〈춘향가〉에 나오는 이별가의 한 대목을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절절했던지, 주변이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고 문중의 최고 어르신마저 감동시켰다. 그후 권삼득 명창은 가문을 떠나 소리 공부를 하였고, 〈흥부가〉의 제비 노정기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명창이 되었다.

2) 명창 송흥록

권삼득 명창의 고수를 하던 송 첨지의 아들인 송흥록(宋興祿, 1801~1863년)은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소리를 하게 되었다. 워낙 타고난 목을 가진 데다가 영민하여, 동편제의 시조가 된 송흥록이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중에 듣는 귀신 울음소리를 얻기 위해 겪은 일화가 있다.

명창 송흥록은 귀신 울음소리를 판소리 선율로 표현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비오는 날 공동묘지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소리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관복을 입은 사람이 송흥록 명창을 깨웠다. 이웃 고을에 사는 영의정 대감의 회갑연에 그를 초대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다. 송흥록 명창은 연회가 펼쳐지고 있는 곳으로 따라 나섰다. 송흥록 명창은 그곳에서 영상 대감이 청한 '옥중비가'를 불렀는데, 영상 대감이 하는 말이 자신이 귀곡성을 가르쳐 줄 터이니 따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귀신 소리 같은지 오싹한 기운이 돌았다. 그렇게 귀곡성을 따라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그가 누워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이름 모를 무덤 속이었다고 한다.

05. 판소리의 역사

판소리는 조선 전기에도 불렸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이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판소리 사설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영조30년(1754)에 문장가였던 만화(晩華) 유진한(柳振漢, 1711~1791년)이 한시로 쓴 〈만화본 춘향가〉이다. 이 문집에는 가사로 된 〈춘향가〉 2백 구가 실려 있다. 이를 보면 당시 호남 지역에서 〈춘향가〉가 이미 판소리로 널리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가 기록으로 남은 시기는 판소리의 청중이 서민에서 양반층으로 확대되는 때이다. 이때 식견 있는 양반들에 의해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창극사』에서는 영조(英祖, 1694~1776년), 정조(正祖, 1752~1800년) 때에 판소리 광대로 우춘대, 하은담, 최선달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판소리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며, 연희판 도중에 불리는 민요, 잡가, 타령 등과 마찬가지로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막간 음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전기 8명창 시대

순조(純祖, 1790~1834년) 무렵으로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염계달, 고수관, 김계철, 신만엽, 주덕기, 박유전과 같은 명창들이 나서 갖가지 장단과 조를 짜서 판소리의 음악 수준을 크게 발전시켰다. 권삼득은 설렁제를, 모흥갑은 강산제를, 염계달과 고수관은 경드름과 추천목을, 김제철과 신만엽은 석화제를 짜넣었고, 가왕(歌王)이라고 불리던 송흥록은 진양 장단과 우조, 계면조를 발전시켜 판소리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 올렸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에 판소리는 서너 개의 유파로 나뉘어 발전되었는데, 이것으로써 그때 명창들의 활동이 독보적이면서도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후기 8명창 시대

철종(哲宗, 1831~1863년) 무렵으로 박만순, 송우룡, 김세종, 정춘풍, 장자백, 이날치, 정창업, 김정근, 한송학과 같은 명창들이 나왔는데, 박만순, 송우룡, 김세종, 장자백은 동편제를, 이날치, 정창업은 서편제를, 김정근, 한송학은 중고제를 발전시켰다.

3) 근대 5명창 시대

고종(高宗, 1852~1919년) 무렵으로 박기홍, 김창환, 김찬업, 송만갑, 유성준, 김석창, 이동백, 김창룡, 김채만, 정정렬과 같은 명창들이 활약했는데, 이 가운데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이 '5명창'으로 꼽힌다. 이 다섯 명창의 뒤를 이어 장판개, 김정문, 공창식, 박중군, 임방울, 김연수, 이화중선, 박녹주와 같은 명창이 나왔다.

조선 시대 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한 문화 상황에서 김창환, 이동백, 김창룡, 송만갑, 정정렬 등의 5명창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판소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심하게 위축되었다. 이 때 판소리는 배역을 나누어 연극적으로 소리하는 '창극'이라는 형식으로 변모하기도 했으나 해방과 전쟁 이후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각이 일어남에 따라, 판소리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다.

4) 현대의 판소리

1964년, 판소리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고, 판소리 창자는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사회적으로 판소리의 가치를 재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대학에서는 국악과가 설치되고, 국악예술학교도 개교했다. 이 무렵 명창 박동진(朴東鎭, 1916~2003년)의 활동을 비롯하여 꾸준한 완창발표회가 열려 판소리의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후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 전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창작 판소리의 등장, 마당극의 부활, 판소리 학회 창립, 판소리 영화의 흥행과 함께 수많은 명창들이 활동하게 된다. 이 시기 활동한 명창으로는 정광수, 박동진, 박봉술, 박초월, 김소희, 강도근, 한승호, 정권진, 한애순, 오정숙, 성우향, 조상현, 조통달 등이 있다.

06. 창자와 고수

1) 창자

'광대'는 과거에 '예능인'을 폭넓게 지칭하던 말이다. 조선 후기에 광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소리 광대', '줄 광대', '고사 광대', '어릿광대'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판소리가 독립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판소리만 전문으로 하는 이를 '소리 광대'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창자들은 '광대'라는 말에 얕보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하여 기피하였고,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소리 광대 중에서 명인이 된 사람을 '명창(名唱)'이라고 불렀고, 임금 앞에 불려나가 소리를 했다는 뜻으로 '어전 광대' 또는 '국창(國唱)'이라는 말로도 불렀다. 이들 소리 광대들이 활약하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조선 영·정조 이후로 알려져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 배역과 모든 상황을 표현해야 하는 성악이기 때문에 발성법과 창법과 가사 붙임새 등이 매우 중요하다. 판소리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대체로 목에서 피가 나고 아무는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소리의 최고 경지에 오르는 것을 '득음(得音)'이라고 한다. 득음하기 위해 인분을 삭힌 물을 먹었다느니, 폭포 옆에서 독공(獨功)을 했다느니, 토굴에서 독공을 했다는 등의 일화들이 전해진다.

판소리의 발성법은, 내는 소리가 통성이라 하여, 배에서 숨을 올려 지르는 것임에서는 서양 발성법과 같으나, 목을 다스려서 약간 거칠고 텁텁한 소리를 질러 내며, 코의 울림보다는 입과 가슴의 울림에 더 힘쓰는 점이 다르다. 음질은 가객에 따라 달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 껄껄한 수리성, 단단한 철성, 밝고 맑은 천구성을 좋게 치고, 되바라진 양성, 발발 떠는 발발성, 콧소리가 나는 비성 따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친다.

2) 고수

반주자인 고수는 창자가 소리를 할 때 북으로 장단을 맞춰 준다. 북은 둥그런 통 양쪽에 소가죽을 대어 만드는데, 지름이 40cm, 폭이 25cm 안팎이다. 고수는 왼쪽 손바닥으로 궁편을 치고, 오른손에는 20cm 정도 길이의 북채를 쥐고 채편과 북통을 두들겨 장단을 친다.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장단은 대략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가장 느린 진양조는 24박이고, 그 다음 중모리는 12박, 보다 빠른 중중모리가 12박, 좀 더 빠른 자진모리는 4박, 그리고 가장 빠른 휘모리는 4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변형 장단인 엇모리 5박 또는 10박, 엇중모리 6박 등이 있다.

고수는 소리의 극적 내용의 긴박과 이완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을 가려 짠다. 그리고 슬픈 계면조(界面調), 화평스러운 평조(平調), 웅장한 우조(羽調), 씩씩한 설렁제(드렁조), 경쾌한 경드름(경조(京調)) 등을 판소리의 극적 내용의 희로애락에 따라 적절하게 가려 쓴다. 고수의 고법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를 구사할 수 있고, 창자의 창법과 의미를 잘 조화시키며 흥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명고수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수의 중요한 역할은 창자와의 교감이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와 같이 창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가 하면, 간단한 대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창자를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해 "얼쑤", "그렇지", "으이" 등 간단한 말로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그리고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허지!" 등 창자의 변화나 상황에 대응하여 즉흥적인 말로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판소리계에서는 흔히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고수의 역할에 창의성과 수련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훌륭하게 공연될 수 있는 것이다.

07. 판소리의 유파와 기법적 특징

판소리의 유파란 전통 용어로는 제(制) 또는 대가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소리의 지역적 특징을 가리키거나 그것을 전승한 명창들의 파(派)를 의미한다. 판소리의 전성기로 양반과 서민층이 함께 즐기는 예술로 발전하게 된 19세기에 이르러서도 대부분의 창자는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이 명창의 경지에 오른 후에 부와 명예를 함께 얻게 되기도 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법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명창의 집에 수 년 혹은 십 수 년에 이르도록 기식하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출한 명창이 사는 지역이 자연스레 판소리 전승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후에 명창이 이사를 하여 지역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이전의 지역적 기준보다 명창 자신의 기준에 의해 유파를 나누기도 하였다. 같은 〈춘향가〉라고 하더라도 '강산(박유전)제 춘향가', '김세종제 춘향가'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 사승(師承) 관계야말로 유파를 형성하는 중요한 축임을 알 수 있다.

최초로 유파를 정의한 기록은 정노식(鄭魯湜, 1891~1965년)이 지은 『조선창극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노식은 판소리의 유파에는 동편제(東便制), 서편제(西便制), 중고제(中高制), 호걸제(설렁제) 네 가지가 있으며, 유파별로 기법과 미의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기술하였다. 쉽게 말하면 '소리 스타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동편제와 서편제는 지금까지 대립항으로 존재하지만 중고제와 호걸제의 개념은 명료하지 않다. 중고제는 '비동비서(非東非西)'라 하여 중간적인 소리 스타일이고, 호걸제는 중고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 충청 지역의 소리 스타일이다.

이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소리 스타일은 동편제와 서편제이다. 동편제는 지역적으로 전라도 섬진강의 동쪽인 운봉·구례·순창·흥덕 등지에서 발원하였으며 송흥록이 중시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장하고 씩씩하며, 기교를 부리지 않고 선천적인 음량을 소박하게 그대로 드러내어 소리하는 특징을 지녔다. 동편 소리는 아니리가 길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발림도 별로 없으므로 오직 목에서 내는 통성에만 의지하는 소리제이다. 동편제가 비기교적이고 건조한 연기로 일관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스럽고 소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북도 원칙적으로 대마디 대장단에 충실하다.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인 광주 나주 보성 등지에서 전승되는 유파의 소리를 지칭하며, 박유전(朴裕全, 1835~1906년)의 법제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계면조를 주로 써서 슬프고 원망스런 느낌을 처절하게 잘 그려내고, 정교하면서도 화려하게 그려 낸다. 엇붙임이나 잉애걸이 등 장단의 변화를 통해 뛰어난 기교를 보여 준다.

08. 영화 〈서편제〉

2008년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李淸俊, 1939~2008년)의 소설『서편제』를 임권택(林權澤, 1936년~) 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으로, 1994년 개봉하여 판소리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산골 동네에 소리꾼인 유봉이 찾아온다. 그는 과부였던 동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마을을 떠난다. 그 둘은 유봉의 수양딸 송화와 동호를 키우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동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죽자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가르치고, 동호에게는 북치는 법을 가르치며 유랑 생활을 한다.

그들은 유봉과 함께 소리로 먹고 살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생활은 점점 어려워진다. 소리를 들어 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냉대와 멸시 속에 희망 없이 살다가 동호는 유봉과 싸우고 떠나버린다. 동호가 떠난 뒤 송화가 소리를 거부하자, 소리의 완성에 집착한 유봉은 약을 써서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들고 만다. 이후 유봉은 죽고, 송화는 힘들게 홀로 소리를 하며 살아간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유봉과 송화를 찾아 나선 동호는 산골 주막에서 송화를 만나게 되고, 송화에게 소리를 청하여 그는 북을 치고 송화는 한에 맺힌 소리를 들려 준다.

이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은 판소리의 미학에 깊이 천착하였는데 이후 판소리 〈춘향가〉를 재해석한 〈춘향뎐〉을 발표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서편제〉의 주제 의식을 계승한 〈천년학〉을 발표했다.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

09. 세계 속의 판소리

1)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 지정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창설된 국제 연합의 특별 기구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유산, 세계 기록 유산, 세계 무형 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 무형 유산의 선정 대상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문화 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 유산으로, 언어·문학·음악·춤·놀이·신화·의식·습관·공예·건축 및 기타 예술 형태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판소리와 함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해외 완창 공연

2002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가을 축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됨에 따라 해외 최초로 판소리 완창 공연이 열렸다. 안숙선, 이난초(춘향가), 김일구(적벽가), 김수연(흥부가), 조통달(수궁가), 김영자(심청가) 명창의 소리를 미리 감상한 마르코비츠(Josephine Markovits) 예술 감독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평했다.

한국 축제 행사로는 가장 먼저 티켓이 매진돼 축제의 최고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판소리 공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소리 명창 조통달 씨에 의하면 "외국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추임새를 하더라"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관람 태도가 한국의 젊은 관객들보다 훨씬 더 진지해 놀랐다"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호평 이후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판소리 완창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3)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소리의 중심지였던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축제로,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고, 세계의 음악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매해 10월 중순에 열린다. 2000년 예비 축제를 거쳐 2001년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판소리 명창 명가, 판소리 다섯 마당, 새내기 명창, 국립 창극단 공연, 한·중·일 타악 페스티벌을 비롯해 해외 초청 공연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소리와 만날 수 있다.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판소리와 놀자』, 이경재 지음, 윤정주 그림, 창비, 2005.
- 『판소리–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13』, 이영일 지음, 스쿨김영사, 2008.
-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이성재 지음, 서해문집, 2006.
- 『100가지 민족문화 상징 사전』, 주강현 지음, 한겨레아이들, 2007.
- 『판소리의 세계』, 판소리학회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0.
- 『명창들의 시대』, 윤석달 지음, 작가정신, 2006.
- 『우리 국악 100년』, 한명희 · 송혜진 · 윤중강 지음, 현암사, 2001.
- 『동편제와 서편제의 연구』, 최난경 지음, 집문당, 2006.
-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 배연형 · 서희원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참고 영화

- 〈서편제〉, 임권택 감독, 오정해, 김명곤 주연, 1994.

참고 사이트

- 두산 백과사전 국립국악원 > 국악 박물관

www.ncktpa.go.kr

- 한국전통소리문화

www.koreamusic.org

● 고창 판소리 박물관

www.pansorimuseum.com

● 코리아트넷 > 함께하는 우리 > 소리

www.koreartnet.com

● 한국브리태니커 – 판소리

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pansori/paw.html

판소리 동영상 감상 사이트

● 판소리닷컴

www.pansoree.com

: 판소리 관한 자세한 정보와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 임방울 재단 홈페이지

www.imbangul.or.kr

: 국창 임방울 선생의 관한 자료와 판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악 연주를 동영상과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다.

● 명창 오정숙 선생의 홈페이지

www.dongchosori.co.kr/index.htm

: 판소리에 관한 정보와 판소리 다섯 마당의 주요 대목 사설이 있다.

7.

생활의 순간 포착!
풍속화 〈야묘도추〉

서울 영도초등학교 백 유 라

"내가 세든 집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살고 있었다.
그 쥐들은 항상 밝은 대낮에 떼지어 다니며 제멋대로 갖은
횡포를 부렸으니, 침상(寢牀) 위에서 수염을 쓰다듬는가 하면
혹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담벼락을 뚫고 농짝에
구멍을 내어 집안에 온전한 구석이 없으며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마구 갉아 옷걸이에 성한 옷이 없었다. 부엌문을
밀치고 들어가 음식을 덮어 둔 보자기를 들치고서는 사발을
딸그락거리고 항아리를 핥는가 하면 곡식을 먹어치우고
책상을 갉으며 시렁에 올려둔 귀한 책까지도 모조리 쏠아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정신을 못차릴
정도였다. 그놈들은 항상 줄기차게 오르내리고 끊임없이
드나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뚱땅거리므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질러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슬그머니 일어나 몽둥이를
집어던져 놀라게 하면 잠시 엎드려 있다가 곧 다시 일어났다.
쥐구멍에 물을 붓자니 담벼락이 허물어질까 염려되고, 불을
지르자니 집이 탈까 염려되고, 돌맹이를 던지자니 그릇이
깨질까 염려되어 손으로 때려잡아볼까 하였으나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내가 몹시 걱정한 끝에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와 으슥진 곳에 놓아 두었더니……"

최연 지음, 송기채 옮김, 「쥐와 노는 고양이」, 『간재집』에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잘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10?년)나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3대 풍속화가에 꼭 꼽히는 긍재(兢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년)도 자기 시대의 풍속을 그림으로 잘 그려낸 화가임에 분명하다.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48쪽에 제시된 〈반상도〉를 그린 김득신의 〈야묘도추〉는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는 듯하다. 이번 수업에서는 모둠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활동하면서 〈야묘도추〉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를 발견하고, 서민에 초점을 맞춘 그림인 풍속화를 보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 양식을 이해해 본다.

아울러 본 수업을 통해 우리 전통 미술품이 가진 매력을 맛봄으로서 우리 그림의 멋을 알고, 나아가 우리 나라 미술품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수업 목표

가. 풍속화의 배경과 가치를 이해한다.

나. 스스로 김득신이 되어 우리 문화 유산인 풍속화를 직접 체험한다.

다. 작품 감상 후, 우리 전통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나간다.

3. 수업 계획

김득신이 그린 여러 풍속화를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느낌을 발표를 통해 서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탐정과 감상자가 되어 작품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던지는 탐정놀이를 해 보며 그림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풍속화의 제목을 스스로 지어 보고, 그림의 일부분을 바꾸어 보는 '김득신 따라잡기', 그리고 김득신에게 편지를 써 보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 풍속화에 대한 친숙함을 기른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풍속화는 어떤 그림을 뜻하는지 알아보고, 조선 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드라마나 영화, 책 등을 바탕으로 상상해 본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생활의 순간 포착!
풍속화 〈야묘도추〉

02.
학습 주제
김득신의 〈야묘도추〉를
감상하고, 풍속화가 갖는
의미를 알아 본다.

03.
준비물
- 동영상 자료(수묵화)
- 단어 카드 • 파워포인트 자료
- 모둠별 실물 그림 자료
- 타이머 • 학습지
- 교단 선진화 기기(실물 화상기, 프로젝션TV, 컴퓨터)
- 돋보기 • 붓펜
- 사인펜 • 필기구

04.
핵심 활동
1. 풍속화 감상
2. 김득신 따라잡기
3. 김득신에게 편지 쓰기

05.
학습 유형
문화재 실물 학습

06.
관련 단원
초등학교 6학년 2-(1)-①
새로운 사회로의 움직임

07.
수업 시기
9월

08.
시간
40분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① 동영상 자료 보기 영상에서 본 내용을 발표한다. ② 김득신 알아보기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활동한 화가이다. 조선 시대에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보관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청인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③ 풍속화의 의미 알기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발달한 그림을 말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김득신의 풍속화를 감상하고, 풍속화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자. 활동 1) 풍속화 감상 활동 2) 김득신 따라잡기 활동 3) 김득신에게 편지 쓰기	자료 1. 수묵화 동영상 자료 자료 2. 단어 카드 유의점) 미술 시간에 배운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김득신을 이해하도록 한다. 유의점) 판서로 학습 문제와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유의점) 활동 순서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풍속화 감상 ① 〈야묘도추〉 보기 -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살펴 본다. ②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첫 느낌, 첫 인상 말하기 -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본다. ③ '탐정 놀이'를 통해 풍속화 세부 감상하기 - 모둠원이 돌아가며 탐정과 감상자가 되어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모둠별로 아래의 질문에 맞추어 감상 활동을 한다. Q1.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렸을까요? Q2. 고양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Q3. 어미 닭과 병아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Q4. 남자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Q5. 여자의 표정과 동작은 어떠한가요? Q6. 오늘날과는 달라진 우리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 생활 도구를 찾아 보세요. Q7. 그림에서 잘 표현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Q8.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료 3. 김득신, 〈야묘도추〉 유의점) 전체적인 작품을 먼저 감상한 후, 제목을 소개하고 활동 이름을 '풍속화 감상'이라고 한다. 자료 4. 탐정 놀이를 위한 모둠별 실물 그림 자료 준비물) 돋보기, 타이머 유의점) 모둠원과 협동하여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자료 5. 김득신, 〈야묘도추〉 유의점) 아동의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도록 한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 교사와 함께 모둠별로 활동한 내용을 점검한다. A1. 종이에 수묵담채로 그린 것임. A2. 병아리를 물고 도망감. A3. 어미 닭은 자신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고양이를 향해 달려가고, 다른 병아리들은 놀라서 흩어져 도망가고 있음. A4. 담뱃대를 들고서 고양이에게 달려듦. A5. 놀라서 뛰어나옴. A6. 장죽, 탕건, 자리틀, 한복, 얹은머리, 버선 등 김득신의 풍속화인 〈야묘도추〉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 생활 도구를 파워포인트를 보며 알아본다. A7. 자유 답안 A8.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그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 ④ 풍속화의 제목 붙여 보기 - 풍속화의 제목을 스스로 붙인다. - 자신이 붙인 제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풍속화의 제목을 확인한다. : 야묘도추 (野: 들 '야', 猫: 고양이 '묘', 盜: 훔칠 '도', 雛: 병아리 '추')	자료 6. 〈야묘도추〉에 나타난 조상들의 생활 모습 자료 2. 단어 카드 유의점) 충분한 그림 감상 후, 한자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며 제목을 도입한다. 유의점) 〈파적도(破寂圖)〉라고도 불리나 본 수업에서는 그림의 내용상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야묘도추〉로 접근한다.
	활동 2) 김득신 따라잡기 ① 그림의 일부분 바꾸기 - 원래의 작품에서 그림의 일부분이 빠져 있는 학습지를 완성한다. ② 완성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이 완성한 학습지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작품에서 잘 된 부분을 찾아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다.	자료 7. 학습지–1 준비물) 붓펜, 사인펜 유의점) 김득신이 되어 우리 문화 유산인 풍속화를 체험하도록 지도한다.
	활동 3) 김득신에게 편지 쓰기 ① 김득신에게 보내는 그림 감상문 편지 쓰기 -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의 느낌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한다.	자료 8. 학습지–1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감상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점,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② 완성 작품을 학급 게시 코너에 전시한다.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수묵화 동영상 자료

드라마 〈이산〉의 한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으로 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이 왕과 중국 사신에게 보여줄 수묵화를 그리는 장면이다. 본 문화 유산 수업의 소재인 김득신의 〈야묘도추〉와 그림을 그리는 기법 면에서 같아 동기 유발 자료로 사용한다.(1′ 50″)

동영상 자료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

밑그림을 그리는 모습

채색하는 모습

자료.2 단어 카드

① 동기 유발에서는 '김홍도'~'풍속화 카드'를 사용하고, 활동 1)의 풍속화 감상에서 풍속화의 제목을 붙여 보는 활동에서는 '야묘도추', '野猫盜雛' 두 카드를 사용한다.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화원(畵員)
도화서	풍속화 (風俗畵)	야묘도추	野猫盜雛

② 단어 카드와 자료.1)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교사가 동기를 유발시키는 대본을 일례로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

화면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먹으로 스케치를 한 후에 색칠을 합니다. 등)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선 시대의 화가 중에서 〈서당도〉, 〈씨름도〉로 유명한 화가를 알고 있나요?
(김홍도요.)

김홍도와 함께 정조 임금 시기에 같이 활동한 화가 중에 여러분이 3학년 미술 교과서 10단원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란 단원에서 배운 신윤복이란 화가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홍도와 신윤복에 이어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화가를 한 명 더 공부해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득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조선 시대에는 화가라는 말 대신 화원(畵員)이라고 불렸어요. 또한 도화서라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나라의 관청에서 일을 했지요. 정조 임금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임금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이 세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조선 후기 시대에 발달한 그림을 풍속화(風俗畵)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득신이 그린 풍속화 한 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윗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단어 카드를 제시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3, 5　　김득신의 〈야묘도추〉

아동들과 전체적으로 풍속화를 감상할 때와 풍속화의 제목을 붙여보는 활동에서 다음의 그림을 프로젝션 TV에 띄워 놓고, 화면 자료로 활용한다.

자료.4　　탐정 놀이를 위한 모둠별 실물 그림 자료

실물 크기로 제작한 〈야묘도추〉 복사본을 모둠별로 제공하고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작품을 크기에 맞추어 출력한 뒤에 두꺼운 대지(臺紙)를 붙이고, 작품 뒤에 아래의 질문을 적어 주어 감상 활동을 돕는다. 이 활동은 문화재를 감정하는 역할 놀이를 응용한 활동이다.

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렸을까요?

② 고양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③ 어미 닭과 병아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④ 남자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⑤ 여자의 표정과 동작은 어떠한가요?

⑥ 오늘날과는 달라진 우리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 생활 도구를 찾아 보세요.

⑦ 그림에서 잘 표현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⑧ 이 그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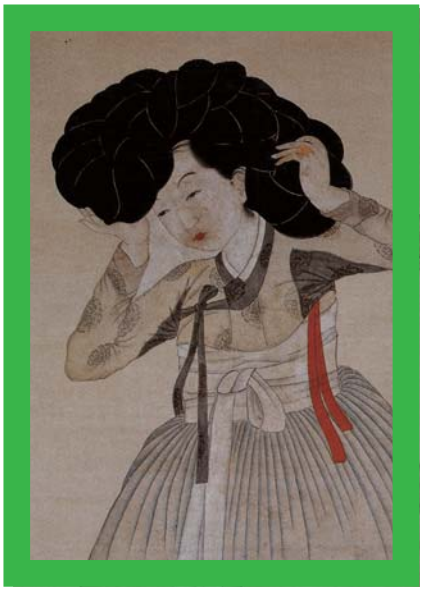
야묘도추, 김득신, 종이에 수묵 담채, 22.5× 27.1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설명 어느 봄날 툇마루에서 자리를 짜던 부부 앞에서 고양이가 병아리를 한 마리를 채어 가는 일이 발생한다. 다급한 어미닭은 새끼를 구하려고 고양이를 향해 소리를 내며 용감하게 덤벼들지만 고양이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뒤를 돌아보며 도망간다. 다른 병아리들은 놀라서 이쪽저쪽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이를 보던 남자는 쓰고 있던 탕건까지 떨어질 정도로 장죽을 치켜들며 고양이에게 달려드나 툇마루에서 곧 굴러떨어지기 직전이다. 짜고 있던 자리틀도 땅에 내동댕이쳐진 상태이고, 놀란 부인은 버선까지 벗은 발로 놀라 뒤따라 나온다. 이런 상황을 절묘하게 그린 그림으로 김득신의 재치가 한껏 엿보인다.

자료.6 〈야묘도추〉에 나타난 조상들의 생활 모습

① 버선: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발에 신는 물건.
흔히 무명, 광목 따위 천으로 만드는데 솜을 두기도 하고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② 얹은머리: 부녀자의 머리를 땋아 위로 둥글게 틀어 얹은 머리.
조선 영조·정조 때에 일종의 가발인 가체(加髢)가 유행하여 이로 인해 머리 형태가 점점 커지고 사치가 심해졌다. 그리하여 그 이후, 작은 비녀를 꽂는 쪽머리로 부녀자의 머리 모양을 바꾸었고 얹은머리는 그 모습이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얹은머리 형태는 조선 후기까지 남아 있었고, 기생들은 계속해서 가체를 사용하였다.
가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들과 기생들이 사용한 가발로, 여러 가지 장식을 포함한 가체의 무게는 3~4킬로그램은 너끈히 나갔다.



얹은머리, 〈미인도(작자 미상)〉의 일부, 해남 녹우당 소장

타래버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③ 자리틀: 자리를 짜는 장치.
양쪽 기둥에 나무를 건너지르고, 건너지른 나무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서, 날을 감은 고드랫돌(발이나 돗자리 따위를 엮을 때에 날을 감아 매어 늘어뜨리는 조그마한 돌)을 앞뒤로 걸쳐 놓고 왕골·부들·짚 따위를 엮는다.

④ 장죽: 잘게 썬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기구.
구부러진 끝에 담배를 담는 작은 통인 대통, 대통과 이어지는 설대, 입에 물기 편리하도록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물부리.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담뱃대에는 장죽이라고 불리는 긴 것과 곰방대라고 불리는 짧은 것이 있다. 긴 것은 1미터 안팎에 이르는 장죽은, 1618년경 우리 나라에 담배가 전파된 직후 부유층의 기호품으로 애용되면서 양반 권위의 상징이 된다. 담배가 대중에 보급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오늘날에는 궐련(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이 보급되어 썬 담배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담뱃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장죽 ©서헌강

©서헌강

자리틀을 이용해 자리를 짜는 모습

⑤ **탕건**: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망건의 덮개로 갓 아래에 받쳐 쓴 관(冠)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뜬다.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 중인은 망건 위에 독립된 관모로 사용하였다. 주로 말총을 엮어 만든다.

⑥ **한복**: 우리 나라의 전통 의복.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예복과 평상복이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 현재는 평상복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명절, 경사, 상례, 제례 때 주로 입는다. 남자는 통이 허리까지 오는 저고리에 넓은 바지를 입고 아래쪽을 대님으로 묶으며, 여자는 짧은 저고리에 여러 가지 치마를 입는다.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는다. 외출을 할 때나 예복으로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탕건

망건

갓

서민들이 주인공인 순간 포착 그림, 풍속화 〈야묘도추〉 활동지

이름 :

2. 김득신에게 '그림 감상문' 편지 쓰기

＊　2007년 11월 22일 임상 장학 공개 수업 모습

실제로 이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 중 모습

공개 수업에 참관하러 오신 교내 선생님들

활동 1)　탐정 놀이(작품 부분 감상)

활동 2)　김득신 따라잡기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풍속화란?

1) 의미: 풍속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왕실이나 조정의 각종 행사에서 서민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상을 주제로 하였다. 풍속화는 속된 그림이라는 뜻으로 '속화'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양반들이 보기에는 풍속화가 '저속한 계층의 삶을 담은 그림'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2) 발달: 조선 초기와 중기를 통해 성장했고 18세기에 이르러 김홍도, 신윤복, 강세황(姜世晃, 1712~ 1791년) 등에 의해 발전하였다. 사대부 사회에서 크게 대접받지 못하던 풍속화가 이 시기에 들어 발전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우선 같은 시기에 유행한 진경산수(眞景山水) 등과 같이 당대 화단에 축적된 사실주의의 영향이 크다. 또한 한글 소설, 판소리가 유행하는 등 문예계의 자주성 인식과 함께 실학의 발전 등의 사회 흐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경제력 상승에 따라 신분 질서가 동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서민 문화와 민중 의식의 성장은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풍속화의 발달을 불러일으켰다. 백성의 노고를 잘 알아야 한다는 유교의 애민 사상 또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풍속화는 19세기 중엽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상을 그려내지 못한다. 김홍도와 김득신이 개척한 화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주제 또한 몇몇 화가들을 제외하곤 틀에 박힌 그림이나 중국 서적의 삽화류를 참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걸출한 화가 또한 나오지 않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풍속화는 퇴조하게 된다.

3) 가치: 풍속화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기록화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의 시대상과 정서, 여러 가지 행사나 관습, 그 밖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생활 도구라던가 옷차림 등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풍속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가치관, 미의식 등을 어떤 문헌 자료보다 더 가깝게 알 수 있다. 당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기에 우리 나라 고유의 미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삶이 그림의 주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미술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02. 풍속화를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 화가들

1) 단원 김홍도

김홍도는 조선 시대를 대표할 만한 풍속화가이며 어릴 때부터 서화가인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 후 강세황의 추천으로 도화서[01]에 들어가 화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당대의 임금인 정조의 총애를 받아 벼슬에 올랐으며 말년에는 산수화를 주로 그렸다. 우리에게는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산수화, 인물화, 도석화 등 그림의 모든 분야에 두루 능통했다. 특히 김홍도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서민적이면서도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80쪽의 선택 학습 문제 2번에 제시된 〈벼 타작〉이란 작품을 보면 양반이 느긋한 표정으로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양반과 농민의 신분 질서 사회상을 반영한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당대를 풍자하면서도 낙관적인 시선이 깔려 있다.

2) 혜원 신윤복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3대 풍속 화가이다. 풍속화뿐 아니라 남종화풍(南宗畵風)의 산수에도 뛰어났다. 농촌의 백성들이나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와 달리 도회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 남녀 사이의 애정 풍속이나 세련된 양반들의 풍류 문화를 예리하게 묘사하고,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남겼다.

벼타작,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오풍정(端午風情), 신윤복, 간송미술관 소장

03. 긍재 김득신

1) 설명

김득신은 조선 후기 영 · 정조 시대에 김홍도와 신윤복과 함께 활동한 화가로 외할아버지, 삼촌과 동생, 아들 모두 화원으로 집안 전체가 화원 출신이다. 실력을 인정받아 도화서의 화원으로 활동하면서 첫 자비대령 화원[02]으로 뽑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풍속화를 남겼다. 김홍도의 스승인 김응환이 큰아버지여서 자연스레 김홍도와 어울리며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김홍도를 가장 충실히 계승하며 김홍도의 화풍을 19세기 화단에 넘겨 주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홍도와 더불어 백중하다'라고 평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았으며(유재건, 『이향견문록』), 궁중의 그림 그리는 일에 많이 참여하였다.

2) 주요 연표

- 1784년 〈정조 세자 책봉 의궤도〉 제작에 참여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 1791년 김홍도, 신한평, 이명기와 함께 수종화사로 〈정조 초상〉 제작에 참여
- 1796년 화성 성역을 담은 〈원행을묘정리 의궤도〉 제작에 참여
- 1802년 〈순조순원후 가례반차도〉 제작에 참여
- 1805년 인정전의 〈일월오봉도병〉 제작에 참여
- 1815년 〈8폭 병풍〉 제작 (간송미술관 소장)

＊ 이 밖에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양한 풍속화를 남겼다.

01 도화서는 조선 시대에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보관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청이다.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화원이 될 수 있었으며, 임금의 초상화나 행사 기록화,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하는 그림, 국가에서 발행하는 책의 삽화, 지도나 건축 도면을 그리는 다양한 임무를 맡았다. 이 곳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 화원이다.

02 화원 중에서 우수한 화원을 따로 뽑아 우대하고 격려한 제도로 '자비대령 화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자비대령 화원은 기존의 도화서가 예조에 소속되어 지금의 서울 종로구의 견지동에 위치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정비한 규장각 소속의 궁중 직속 화원이 되는 것이었다. 시험을 통해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짙게 그린 것과 옅게 그린 그림 각각을 제출하고, 제목을 주어서 사흘 동안 그리게 하여 평가하는 두 차례의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비대령 화원에 임명하였다. 정조는 풍속화나 책거리 그림을 자비대령 화원의 새로운 시험 과목으로 채택, 실시하였는데 이 덕분에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할 수 있었다.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을 비롯해 김홍도, 김득신, 이인문 등이 자비대령 화원으로 활약하였다.

3) 긍재 김득신의 작품 세계

귀시도 개인 소장

귀시도: 장터로 가는 한 무리가 강의 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짐을 실은 소와 말, 짐을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또는 머리에 이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화면의 왼쪽으로 곧 빨려 들어갈 듯하다. 목책 다리의 짙은 먹과 개울의 규칙적인 잔물결, 개울 너머 원경의 담묵 처리가 돋보인다.

대장간 간송미술관 소장

대장간: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발풀무질 하는 소년, 웃통을 벗어 제치고 메를 금방이라도 휘둘러 칠 듯한 총각 일꾼과 중년의 일꾼, 집게를 잡고 우리를 쳐다보며 웃는 남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동작을 잘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속 일꾼들이 쓰고 있는 머릿수건들 모두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하늘로 치솟으며 남실거리는 모습, 화덕 앞의 외씨버선의 맵시 표현이 눈에 띈다.

반상도 평양박물관 소장

반상도: 양반과 상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반상(班常). 이 그림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양반과 상민 부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 조선 시대 사회 질서를 알 수 있다.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남자와 두 손을 맞잡고 허리를 구부린 여자의 모습과는 달리 말 위에서 여유롭게 인사를 받는 양반의 모습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배경은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고, 벼 포기들이 자란 배경의 들녘 표현과 수평식 삼각형 구도가 인상적이다.

자리 짜기 개인 소장

자리 짜기: 한 가족이 방안에 둘러 앉아 서로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바로 앞에는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어머니는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으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얼굴을 빠끔히 내민 고양이를 배치한 것이 현장감을 한껏 살려 주고 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자리 짜기〉와 흡사한 부분이 있으나 김홍도보다 현장감 나는 생활 풍속도로 살려 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 두는 스님들 간송미술관 소장

장기 두는 스님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장기 두는 스님들을 그린 그림이다. 장기판 대신 땅바닥에 장기판을 그려 놓고, 돌멩이로 장기를 두는 모습, 옷매무새가 흐트러뜨린 채 장기에 푹 빠져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장기 알을 손에 든 스님은 방금 묘수를 생각해 낸 듯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맞은 편 스님은 장기판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 삭발한 머리이고, 뒤의 훈수를 놓고 있는 듯 보이는 스님은 고깔을 쓴 모습이 대조적이다.

천렵도 간송미술관 소장

천렵도: 천렵(川獵)이란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을 말한다. 이 그림은 물가에서 낚시질을 즐기는 한 무리의 농군들을 그린 그림이다. 젓가락질을 하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몰래 엿보는 아이, 술잔을 든 채로 먼 하늘로 시선을 좇는 중년 사나이, 버드나무 고목 가지는 바람에 나부끼며 뱃전에 꽂아 놓은 낚시대 위에 앉아 찌꺼기를 노리는 물새들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다. 배 위의 뱃집은 배의 각도와 어긋나서 투시법이 맞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짚신 삼기 간송미술관 소장

짚신 삼기: 문 앞에서 자리를 깔고 짚신을 삼는 남정네를 그린 그림이다. 어느 농가의 3대가 한 그림에 표현되었는데 할아버지는 곰방대를 물고 아들의 짚신 삼는 모습을 쳐다보며, 손자로 보이는 아이는 할아버지 등 뒤에 숨어 아버지 쪽을 쳐다보고 있다. 자리 옆으로는 짚신과 잔과 물병, 칼이 놓여있으며 할아버지의 허리춤에는 담배나 부시(부싯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쇳조각), 잔돈을 넣고 다니던 쌈지가 보인다. 비쩍 마른 몸에서 가난한 서민의 일상이 엿보이나 전체적으로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이다. 찌는 듯한 더위인지 어른들은 모두 웃통을 벗고 있고, 삽살개조차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는 모습이 재미나다.

투전도 간송미술관 소장

투전도: 옛날 사람들이 즐겨하던 노름, 투전에 열중하고 있는 남자들을 그린 그림이다. 투전에 빠져 눈빛이 게슴츠레하고 초조한 심정이 각각 인물들의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느껴진다. 눈빛의 방향, 패를 가리키는 자세, 허리춤의 돈 주머니 등이 노름판의 긴장감을 더해 준다. 18세기 말~19세기 초, 경제력의 성장에 따라 도박이 성행하였는데 이 그림은 당시의 도시 모습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그림 속에 안경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안경이 조선 후기에 벌써 나타난 물건임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장간, 김득신, 간송미술관 소장

대장간,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득신과 김홍도 그림 비교하기

두 그림을 보면 인물의 화면 배치 상태나 움직이는 자세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김홍도의 〈대장간〉은 배경이 생략되어 있으나, 김득신의 〈대장간〉은 배경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득신이 김홍도를 탐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김득신의 〈대장간〉은 김홍도보다 현장감을 살려 내었다는 평을 듣는다.

5) 수묵화

수묵화는 물과 먹으로만 그리는 그림으로 먹의 농담을 이용해 형상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와는 다르게 색을 진하게 넣는 그림을 채색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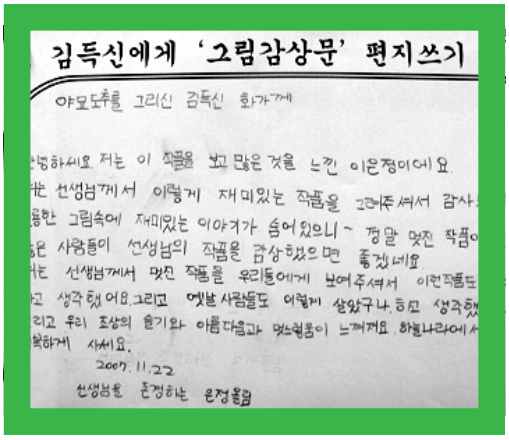
중국에서 발생한 수묵화는 수묵과 담채(淡彩)를 사용하여 그린 남종화와 화원이나 직업적인 전문 화가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북종화로 나뉘어갔는데, 그 중 남종화는 학문이 깊은 사대부들에게 더 사랑받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남종화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수묵화가 발달하였다. 다양한 중국 화풍들이 고루 전래되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 남종화에 기반을 둔 문인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산세와 이상미(理想美) 표현이 위주가 아닌 한국에 실재하는 산천(山川)을 한국적 화풍으로 그려낸 진경산수화가 대두하여, 서정적이면서 소박한 정감의 수묵화가 풍미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삶의 모습도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담고자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풍속화가 많이 나타나 한국 화풍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수업 후 결과물

활동 2) 김득신 따라잡기 결과물

활동 3) 김득신에게 편지 쓰기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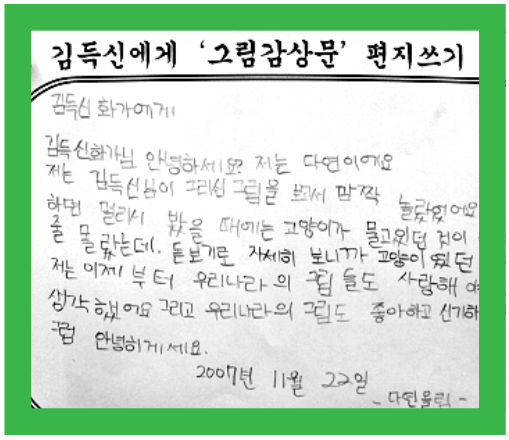
김득신에게 '그림감상문' 편지쓰기

야모도추를 그리신 김득신 화가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이은정이에요
바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그려주셔서 감사
풍한 그림속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으니~ 정말 멋진 작품이
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선생님께서 멋진 작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런작품도
고 생각했어요.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구나.하고 생각했
리고 우리 조상의 슬기와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느껴져요. 하늘나라에서
복하게 사세요.

2007. 11. 22

선생님을 존경하는 은정올림



김득신에게 '그림감상문' 편지쓰기

김득신 화가에게

김득신화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연이에요
저는 김득신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하면 걸리서 밖을 때에는 고양이가 물고있던 쥐이
줄 몰랐는데,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였던
저는 이제 부터 우리나라의 그림 들도 사랑해 야
상각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림도 좋아하고 신기하
겁 안녕히계세요.

2007년 11월 22일 - 다연올림 -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제7차 초등 4학년, 6학년 사회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 최순우 지음, 학고재, 1994.
- 『빛깔있는 책들 102-35 풍속화(하나)』, 이태호 지음, 대원사, 1995.
- 『빛깔있는 책들 102-39 풍속화(둘)』, 이태호 지음, 대원사, 1996.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은수 지음, 창작과 비평사, 1997.
-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문화재청 펴냄, 2006.
- 『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 화가 김홍도』, 최석태 지음, 아이세움, 2001.
- 2008 리움 미술관 연수 중 〈조선 시대 기록화와 화원〉, 홍선표 교수 강좌 내용.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연재 기사 > 그림이 있는 조선 풍속사

www.seoul.co.kr

8.

우리 전통 건축에서 수학이 보여요

원주 상지여자중학교 안 진 화

수학이란 바로 '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서양 과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분야가 바로 수학이었다. 때문에 과학하면 곧 서양을 떠올리고, 수학 역시 서양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럼에도 인간이 수를 떠나 사고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다면 우리 조상들의 수학과 숫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묻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석굴암의 정교한 비례 그리고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수학적 비례는 이미 고대부터 한국에도 고도의 수학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헌을 살피는 데는 역시 조선 시대가 유리하다.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가지 수학 관련 전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상당수의 수학책들이 저술되었던 것이다.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수(학)에 대한 조상들의 사고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김호, 『조선과학 인물열전』 중에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세계화와 기계 문명의 발달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민족 고유의 정신을 담은 전통의 절대적 가치는 점점 커지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전통의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 휴대전화, 엠피쓰리(MP3) 등 최신 전자 기기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전통이란 오래된 것이요, 오래된 것은 곧 낡은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만의 고유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네 전통 문화가 가진 '우수성'이다. 청소년들이 전통은 그저 낡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전통 문화에 담긴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번 수업은 일반적으로 전통 문화와 쉽게 접목시키기 어려운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우리의 전통 건축 속에 숨겨진 도형의 신비로움을 알아보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수업 목표

가. 우리 전통 기와의 곡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

나. 전통 창호의 무늬에 사용된 도형의 종류와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3. 수업 계획

실험을 통해 선조들이 만든 기와와 창호의 특징 및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사이클로이드(cycloid) 개념을 살펴보며 기와가 한국 기후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창호에 사용된 다각형들을 찾아내어 그 안에 담긴 수학적 규칙성을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사고와 지혜를 느끼며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있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생활 속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평면 도형의 개념을 정리한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우리 전통 건축에서
수학이 보여요

02.
학습 주제
창호와 기와에 숨은
선조들의 지혜 배우기

03.
준비물
- 프로젝션 텔레비전 • 실물 화상기
- 파워포인트 자료 •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과 스티로폼 공 2개(제작 또는 실험 인터넷 사이트 준비)
- 과제물 • 활동지 • 암키와
- 직육면체 상자 • 마분지
- 볼펜심 부착한 스티로폼 원 (모둠별 제작)

04.
핵심 활동
1. 우리 전통 기와에 숨은 수학 원리 찾기
2. 우리 전통 창호에서 도형 찾기
3. 모둠별로 학습지 작성하고 발표하기

05.
학습 유형
-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 모둠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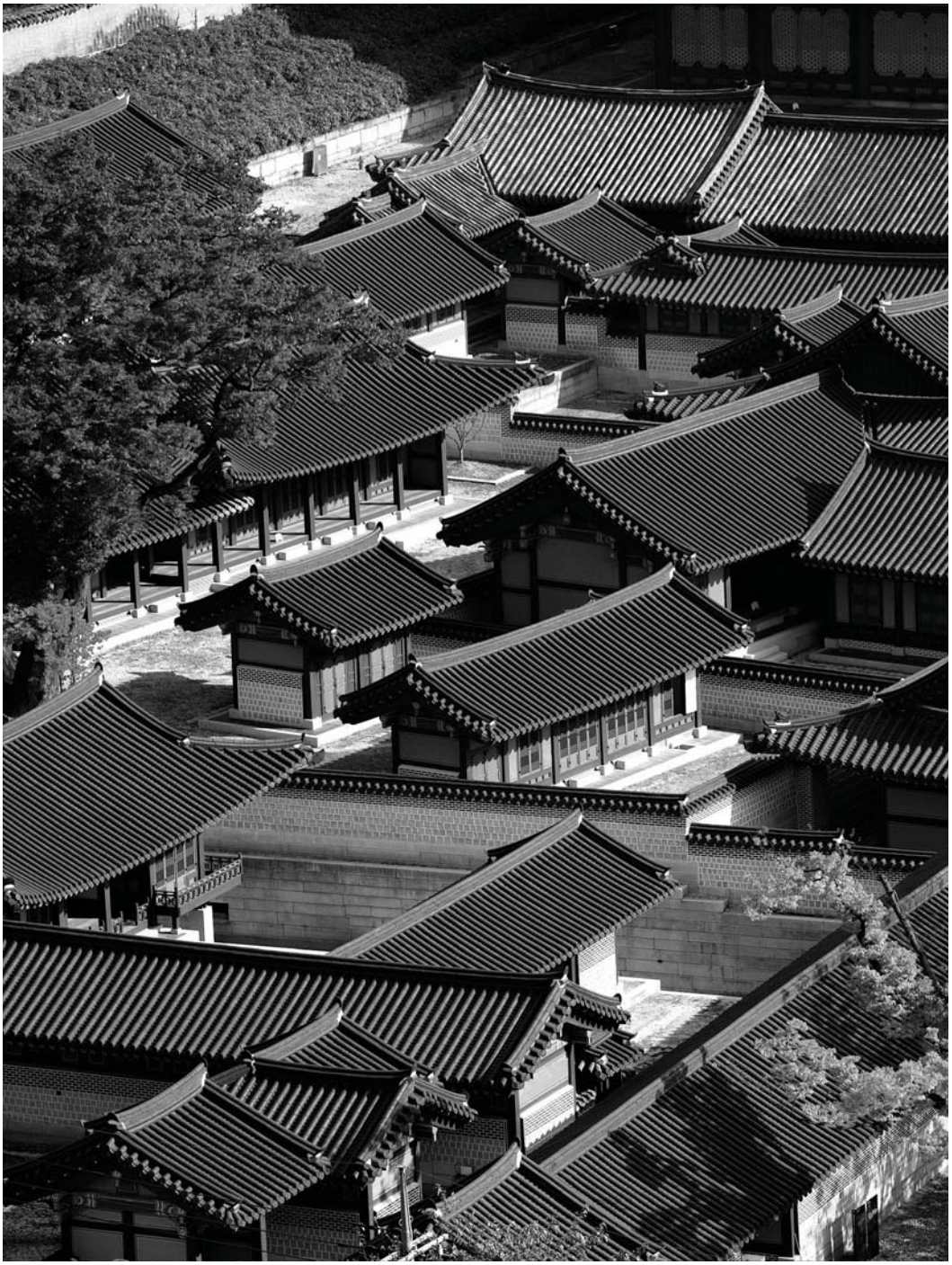
06.
관련 단원
중학교 1학년 수학
Ⅲ. 도형의 측정 –
1. 평면도형의 측정

07.
수업 시기
11월

08.
시간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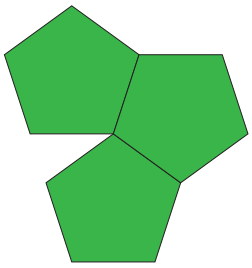
09.
장소
교실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소풍 때 우리 전통 건축물에서 어떤 도형을 발견했는지 질문한다. - 미리 과제로 준비한 사진 자료나 그림을 발표하면서 토론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우리 전통 건축물의 구성 요소 가운데 기와와 창호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그 지혜를 배운다. 활동 1) 우리 전통 기와에 숨은 수학 원리 찾기 활동 2) 우리 전통 창호에서 도형 찾기 활동 3) 모둠별로 학습지 작성하고 발표하기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우리 전통 기와에 숨은 수학 원리 찾기 ① 외국의 기와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우리 기와와 비교하게 한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모양의 기와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과 직접 우리 기와의 모양을 그려 본다. ② 사이클로이드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 - 직육면체 상자 안에 마분지를 깔고 주위에 볼펜심을 부착한 스티로폼 원을 한 바퀴 굴려 선을 그린다. - 교사가 제작한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로 공 굴리기 실험을 보여 주거나 사이트에 나온 실험을 보여 준다. ③ 전통 기와에 사이클로이드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 기와의 둥근 곡선은 빗물이 지붕 아래로 최대한 빨리 내려갈 수 있게 만든다. - 독수리 역시 먹이를 잡으러 하강할 때는 더 빨리 내려오기 위해 사이클로이드를 그리며 내려온다.	자료 1. 우리의 전통 기와 자료 2. 전통 기와에 숨은 사이클로이드



© 이한구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우리 전통 창호에서 도형 찾기 ① 창호의 모양을 관찰하고 어떤 도형으로 구성되었는지 관찰한다. ② 지금까지 살펴본 창호들 중 정다각형만으로 평면을 채운 창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정자 창호, 빗살 창호, 솟을 빗살 창호, 귀갑 창호 ③ 정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창호가 없는 이유를 알아본다. -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frac{180^\circ(5-2)}{5} = 108^\circ$ 한 꼭지점에 모인 x개의 내각 합: $108^\circ \times x = 360^\circ$ 위 수식에서 x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없다. 즉, 정오각형으로는 평면을 채울 수 없다. 	자료 3. 창호의 종류
	활동 3) 모둠별로 학습지 작성하고 발표하기 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배운 것을 복습한다. - 기와의 곡선에 대한 특징, 곡선을 사용한 이유, 우리 나라 창호의 특징, 창호에 사용한 다각형의 종류 ② 모둠별로 이야기하며 함께 학습지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자료 4. 모둠별 활동지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우리 전통 건축에 드러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느낀 점을 각자 이야기해 본다. ② 오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그 지혜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마무리한다. ③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물을 제시한다. - 꽃살 창호를 디자인하여 채색한 후, 학교 축제 때 전시한다.	자료 5. 꽃살 창호 디자인 과제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우리의 전통 기와

전통 가옥, 대전

창덕궁(昌德宮, 사적 제122호, 세계 문화 유산) 선정전(宣政殿), 서울

자료.2 전통 기와에 숨은 사이클로이드

한 원이 일직선 위를 굴러 갈 때, 원 둘레 위의 한 점이 그리는 자취는 곡선의 형태를 띤다. 1599년경 갈릴레이는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다른 움직이는 물체의 자취와 달리 특별한 특징이 있다.

직선과 곡선 위에 각각 공을 놓고 굴러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 보면, 두 개의 공 가운데 곡선 위에 놓인 공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클로이드 위에서는 각 지점에서 중력 가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직선에서보다 작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해 공의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직선이나 다른 어떤 궤적보다 도착 지점에 빨리 다다르는 것이다. 즉, 움직인 길이로 보면 직선이 더 짧지만, 공이 내려오는 속도는 곡선 쪽이 더 빠르다. 이런 이유로 사이클로이드를 '최단강하곡선(最短降下曲線)'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기와에 차용했다. 한국 기와의 곡선은 사이클로이드와 흡사하다. 이는 우리 나라 전통 건축물의 소재 및 기후와 관련이 깊은데,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던 과거에는 특히나 여름 장마철이면 급작스러운 비로 인한 건물 침식이 빈번했다. 따라서 조상들은 기와를 사이클로이드와 같은 둥근 곡선을 지닌 형태로 만듦으로써, 빗물이 지붕에서 최대한 빨리 떨어지도록 해 비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자료.3 창호의 종류

한옥 건물의 정면은 대부분 벽 대신 창호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창호는 그 건물의 얼굴이자 표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전통 창호는 먼저 창살을 짜고, 그 안쪽에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한지를 바르는데, 창살의 짜임에 따라 그 이름이 다양하다.

1) **띠살 창호:** 일정한 수직선과 함께 수평선을 다섯 줄씩 상·중·하 세 곳에 넣은 창호다. 길이가 긴 창호에는 상·중·하 각각 다섯 줄, 일곱 줄, 다섯 줄의 수평 살대를 놓아 비례를 맞춘다. 일반 가옥이나 사찰, 왕궁 등에 많이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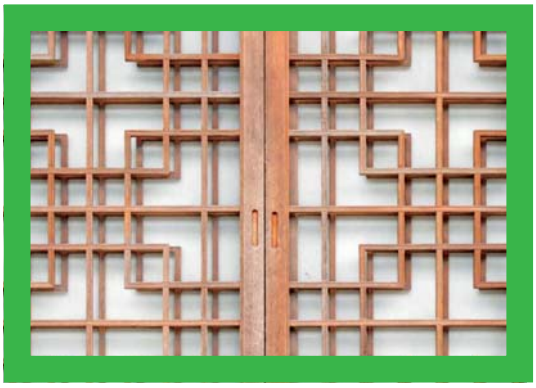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수평선

수직선

창경궁(昌慶宮, 사적 제123호)
양화당(養和堂), 서울

2) **완자 창호:** 창살의 짜임이 '만(卍)' 자 모양을 한 것으로, 왕궁의 내전, 여성 공간, 사찰의 승방 등에 많이 사용한다.



발견할 수 있는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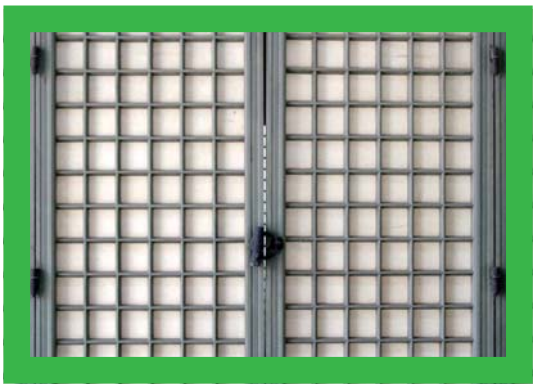
수직선

수평선

직사각형

직지사(直指寺), 경상북도 김천시

3) **정자 창호:** 창살의 짜임이 우물 '정(井)' 자 모양을 한 것으로, 왕궁이나 사찰의 정면 창호로 많이 사용했다.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사각형

창경궁 문정전(文政殿), 서울

4) **빗살 창호:** 창살을 45° 로 기울여 짠 것으로, 왕궁이나 사찰 창호에 널리 사용했다.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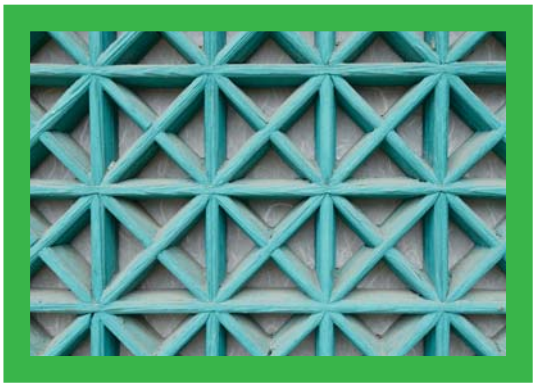
평행사변형

마름모

남장사(南長寺), 경상북도 상주시

5) **격자 빗살 창호:** 정자살과 빗살이 합쳐진 형태로, 꽃살, 빗살 창호의 바탕이 된다.

© 이승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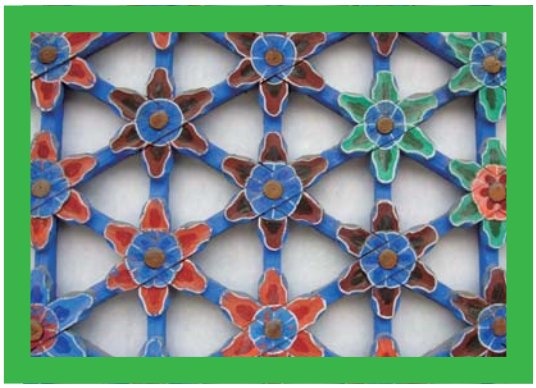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사각형

이등변삼각형

남장사, 경상북도 상주시

6) 솟을 빗살 창호: 수직선의 살과 30°, 150° 방향 살이 합쳐진 것으로, 왕궁이나 사찰에서 쓰던 꽃살 창호의 짜임에 바탕이 됐다.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직지사(直指寺), 경상북도 김천시

7) 꽃살 빗살 창호: 정자살과 빗살을 결합한 격자 빗살 창호에 장식을 더한 것이다.

© 이승규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사각형

이등변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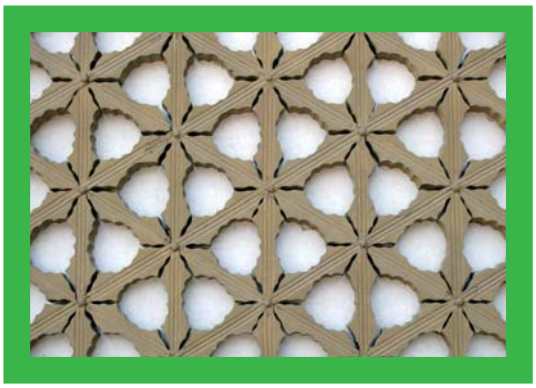
남장사, 경상북도 상주시

발견할 수 있는 도형

마름모

삼각형

김룡사(金龍寺), 경상북도 문경시



발견할 수 있는 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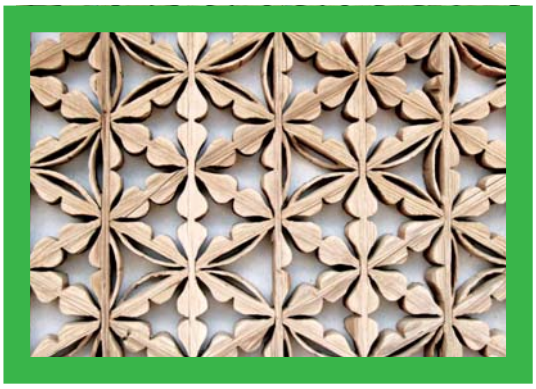
정삼각형

정육각형

창덕궁 인정전(昌德宮, 국보 제225호), 서울

*

창경궁 명정전(明政殿,
국보 제226호)에서도 같은
무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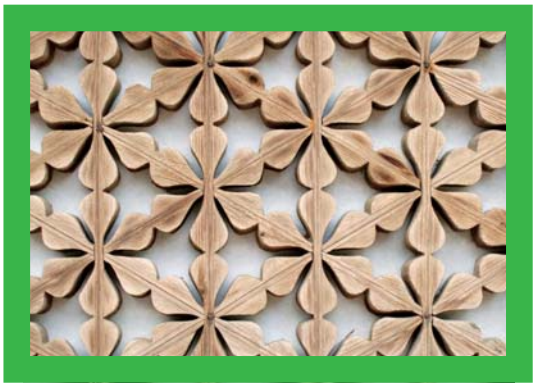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육각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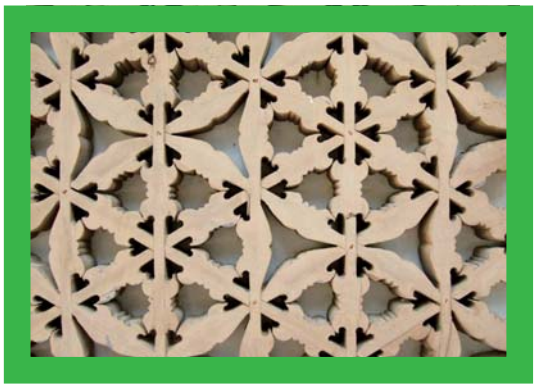
기림사(祇林寺)
대적광전(大寂光殿, 보물 제833호),
경상북도 경주시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육각형

기림사 대적광전, 경상북도 경주시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원

평행사변형

기림사 대적광전, 경상북도 경주시

8) 귀갑 창호: 창살을 거북이의 등 무늬처럼 짠 것으로, 조선 말기 가옥에서 주로 발견된다.

발견할 수 있는 도형

정육각형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침(武寧王陵 頭枕, 국보 제164호)의 귀갑 문양, 충청남도 공주시

*

두침은 머리를 고이는 베개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 주검의 머리 부분을 받쳐 놓았던 받침대를 말한다.

우리 전통 건축에서 수학이 보여요

1학년 ____ 반 모둠 이름 _____

1. 다음은 우리 나라 전통 기와(암키와)로, 외국의 기와와 달리 특별한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2. 위에서 말한 곡선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3. 우리 선조들은 슬기롭게도 기와에 사이클로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우리 나라 창호의 특징을 꼽아 봅시다.

5. 창호는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면서 빈틈 없이 평면을 채웁니다. 다음 창호의 이름을 써 봅시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6. 다음은 한 종류의 정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창호들입니다. 빈 칸을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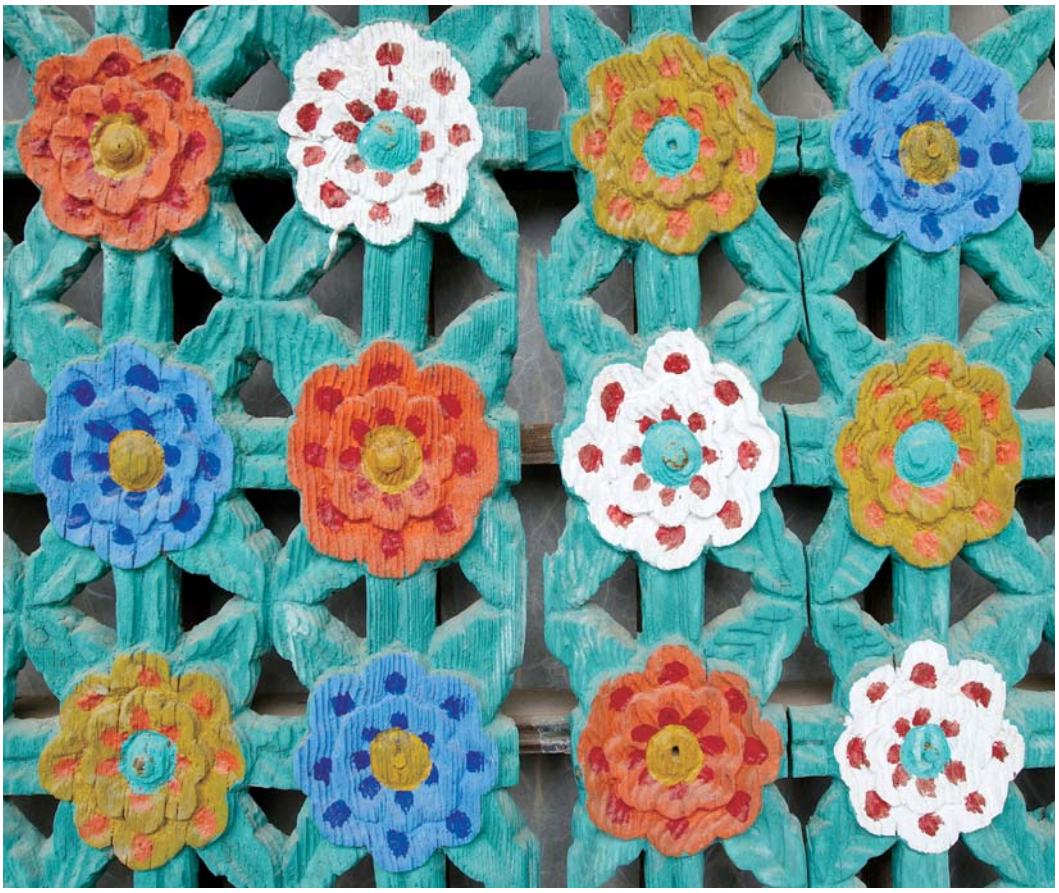
창호 이름	사용된 정다각형	한 내각의 크기	한 꼭지점에 모인 도형의 수
	정사각형		4개
빗살 창호		90°	
솟을 빗살 창호		60°	
	정육각형		3개

7. 위의 6번 문제에서 정오각형은 왜 창호에 사용하지 못할까요?

자료.5 꽃살 창호 디자인 과제

여러 가지 창호살을 응용하여 나만의 아름다운 꽃살 창호를 만들어 봅시다.

예) 준비물: 마분지, 각도기, 콤파스, 30cm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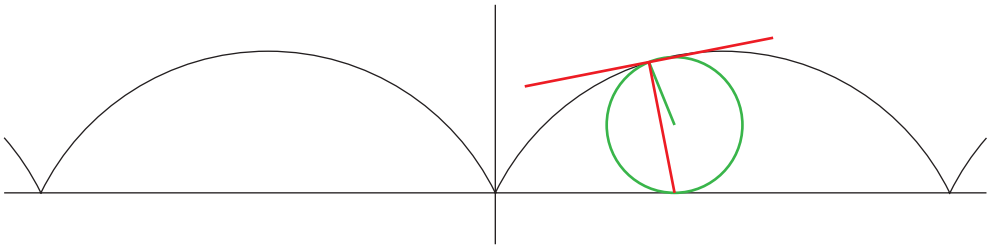


©이승무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기와와 사이클로이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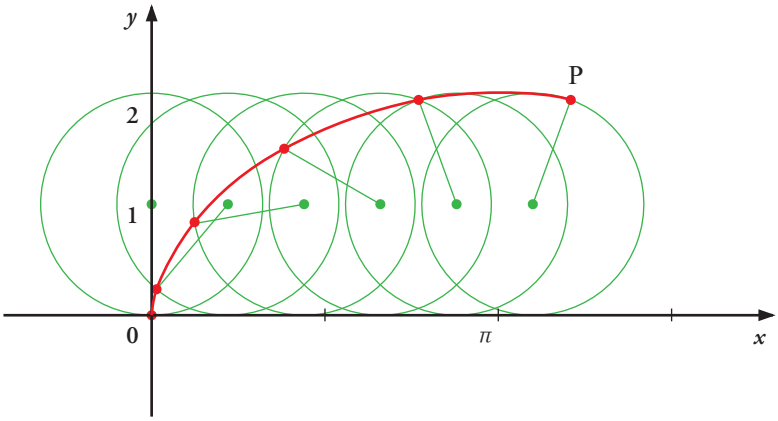
수학에는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 있다. 이는 한 원이 회전할 때, 원주 위의 한 정점이 그리는 자취를 말한다. 사이클로이드란 말은 1599년 경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년)가 처음 사용했고, 17세기에 이르러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년)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곡선의 원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날개 끝이 몸체를 기준으로 타원 형상을 그리는 것에서 착안했었다고 한다.



사이클로이드는 평면 곡선의 일종으로, 공간 안에 두 점 A,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중력 작용만 받는 질점(역학적으로 볼 때 질량은 있으나 부피가 없는 물체로, 실재하지는 않는다.)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이 가장 적은 곡선을 말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거리상으로는 A와 B를 연결한 직선이 가장 짧으므로 이동 시간도 최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험을 해 보면 사이클로이드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직선 거리를 이동할 때의 걸리는 시간보다 적으며, 최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이클로이드를 '최속강하선(最速降下線)' 또는 '최단강하곡선'이라 부른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 최적의 곡선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독수리는 목표물(먹이)을 향해 날아갈 때 직선을 그리지 않고, 사이클로이드에 가까운 비행을 하는데, 이는 목표물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인 동시에, 목표물 획득 후 가장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사이클로이드는 우리 전통 건축물의 기와 지붕에서도 발견된다. 지붕을 덮고 있는 암키와와 그 끝에 얹힌 암막새의 곡선은 사이클로이드에 매우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이 곡선을 기와에 사용했을까? 우리 나라의 여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장마철이 있다. 목조 건물의 기와에 많은 양의 빗물이 스며들면 건물의 목재가 부식될 것이므로, 결국 건물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빗물이 기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기와에 떨어진 빗물이 가장 빨리 흘러내릴 수 있는 형태가 필요했던 것이다. 비단 암키와뿐 아니라 지붕의 전체적인 모양도 곡선을 이루는데, 이 역시 사이클로이드에 가까워 빗물이 최대한 빨리 지붕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한다.

* 발전학습



사이클로이드는 수학사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 '기하학의 헬레네(Helene)*', '분쟁의 씨'라고도 불린다. 또한 수학적, 물리학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미적분학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기와에 나타난 사이클로이드를 고등학교 수업으로 연장할 경우, 미적분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에서 원이 회전하는 각을 t라고 하면, 원 위의 한 점 P의 x좌표와 y좌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 t - \sin t,\ y = 1 - \cos t,$

여기서 만약 점 P가 $t = 0$에서 $t = 2\pi$까지 움직인 거리(s)를 구하거나, 이 구간에서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S)를 구하려면 적분을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s = \int_0^{2\pi} \sqrt{(\frac{dx}{dt})^2 + (\frac{dy}{dt})^2}\, dt = 8$$

∴ 처음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또,

$$S = \int_0^{2\pi} y\, dx = 3\pi$$

∴ 처음 원의 넓이의 3배

* **헬레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Zeus)의 딸로, 그녀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지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다.

02. 전통 창호의 역할과 아름다운 도형

창호(窓戶)는 창(window)과 문(door)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한옥 창호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창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창과 문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한옥의 벽체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지만, 건물 정면에서부터 보이는 창호는 창살의 짜임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드러내며 한옥의 멋과 표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창호를 갖지만 중국과 일본은 창호지를 창살 바깥쪽에 붙이는 반면 우리는 창살 안쪽에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건물의 창에는 대개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창에 한지를 발랐다. 한지는 유리와 달리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방 안 분위기를 은은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며, 안팎의 공기가 한지를 투과하여 드나들 수 있으므로 채광뿐 아니라 공기 순환에도 유리하다. 특히 과거에는 뜨거운 온돌 바닥으로 방 안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웠는데, 이 때 창호에 붙은 한지가 방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창호는 이러한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도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창살의 짜임을 통해 건물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식의 기능도 겸했다. 예를 들어, 띠살 창호나 완자 창호에서는 정사각형과 다양한 직사각형을 볼 수 있고, 정자살, 빗살 및 격자 빗살 창호는 많은 수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창호 가운데 정자살, 빗살, 솟을 빗살, 귀갑 창호는 각각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육각형만으로 평면을 채운 것이다.

창호이름	사용된 정다각형	한 내각의 크기	한 꼭지점에 모인 도형의 수	평면
정자 창호	정사각형	90°	4개	90°×4=360°
빗살 창호	정사각형	90°	4개	90°×4=360°
솟을 빗살 창호	정삼각형	60°	6개	60°×6=360°
귀갑 창호	정육각형	120°	3개	120°×3=360°

이외의 정다각형은 한 종류만으로는 평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창살은 만들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생활 공간에 지혜롭게 응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우수성은 기능성과 함께 미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03. 사진 자료 속 문화재

1)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로,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 3대 임금인 태종(太宗, 1367~1422년)이 1404년에 한성(漢城) 향교동(鄕校洞)에 경복궁(景福宮)의 이궁(離宮)[01]을 짓도록 명하여 이듬해에 완공했고, '성(盛)한 덕'이라는 뜻으로 창덕궁(昌德宮)이라 이름 지었다. 그 후 인정전(仁政殿)·선정전(宣政殿)·소덕전(昭德殿)·빈경당(賓慶堂)·여일전(麗日殿)·정월전(淨月殿)·옥화당(玉華堂) 등 많은 전각을 지었으며, 1412년 비로소 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세우며 궁궐의 면모를 갖추었다. 세조(世祖, 1417~1468년) 즉위 후 정전인 인정전을 다시 짓고 궁내 각 전각 명칭을 고쳤는데, 이 때 고쳐진 이름들이 대체로 오늘까지 이어진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조선 왕조 3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 타 버렸는데, 창덕궁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복구에 들어가 1609년에 중건했다. 이후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는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경복궁을 대신해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는 역사의 주 무대가 되었다. 그 후에도 창덕궁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특히 1917년 화재로 대조전(大造殿)을 비롯해 내전 일곽이 소실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1920년 경복궁에서 왕비의 침전이던 교태전(交泰殿)을 헐어 중궁전인 대조전을 지었으며, 경복궁에서 임금의 침전이던 강녕전(康寧殿)을 헐어 왕이 사무를 보던 편전(便殿)인 희정당(熙政堂)을 짓는 등 경복궁의 많은 전각 및 동·서 행각들이 창덕궁 복원을 위해 해체, 전용되었다. 조선 5대 궁궐 가운데서는 여러 건물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건축과 조경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후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정원으로 손꼽힌다.

2) 창경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조선 시대 궁궐로, 창덕궁과 함께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되었다. 성종 15년(1484) 당시 생존하였던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세 분의 대비를 모시고자 옛 수강궁(壽康宮) 터에 창건했다. 따라서 생활 공간인 내전(內殿)이 발달했으며, 창덕궁의 동쪽에 있는 별궁으로 창덕궁의 부족한 주거 공간을 보충하는 동시에, 창덕궁과 더불어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궐이라는 궁역을 형성했다.

01 **이궁(離宮):** 왕이 공식적으로 정사를 보던 법궁(法宮) 외에 따로 세운 궁. 법궁은 정궁(正宮)이라고도 한다.

한편 창건 당시 외전(外殿)으로 명정전(明政殿), 편전(便殿)으로 문정전(文政殿), 내전으로 환경전(歡慶殿) · 경춘전(景春殿) · 인양전(仁陽殿) · 통명전(通明殿) · 양화당(養和堂) · 여휘당(麗暉堂) · 사정각(思政閣) · 환취정(環翠亭) 등의 전각을 지어 독자적인 궁궐로서의 구조도 갖추고 있다. 전각의 당호는『경국대전』,『동국통감』등을 편찬한 서거정(徐居正, 1420~1488년)이 지었다.

창건 당시 전각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고, 광해군 8년(1616)에 명정전, 환경전 등 주요 전각을 재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크고 작은 화재로 소실과 복구를 반복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 몇 개 전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훼손되어 동 식물원으로 꾸며졌다. 1910년에 일제는 그 이름도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하고, 벚나무를 잔뜩 옮겨 심어 일반에 공개했다. 1983년부터 1986년에 비로소 다시 궁궐 복원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창경궁의 이름을 회복하고, 명정전과 문정전 일대를 중심으로 복원하여 왕궁으로서의 옛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창경궁의 주요 전각들은 다른 궁궐들과 달리 남향이 아니라 자연 지세에 맞춰 동향으로 세워졌다. 또 명정전, 명정문, 홍화문 등은 17세기 조선 궁궐 건축 양식을 보여 주며, 특히 정전인 명정전은 조선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이한구

창경궁 전경

3) 직지사

신라 눌지왕 2년(418)에 신라에 불교를 들여온 고구려의 승려인 아도 화상(阿道和尙)이 도리사(桃李寺)와 함께 개창(開創)하였다. 그 이름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 하며, 일설에는 아도 화상이 일선군(一善郡, 善山) 냉산(冷山)에 도리사를 건립한 다음에 멀리 김천의 황악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길상지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직지사라 했다는 전설도 있다. 현재 국내 25본산(本山) 가운데 하나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本寺)[01]이며, 소속 말사(末寺)[02]가 54개 사찰에 이른다. 또한 본사의 산림(山林)은 약 600정보(町步)에 달하며, 사찰 경내 면적만도 약 3만 평에 이른다. 신라 때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과 삼층석탑(보물 제607호) 외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소속된 말사 역시 수많은 문화재와 고적을 지니고 있어 현재 직지성보박물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아래의 남장사와 김룡사도 모두 직지사의 말사들이다.

4) 남장사

경북 상주의 남장사는 노음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신라 흥덕왕 7년(832) 진감 국사(眞鑑國師, 774~850년)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다. 남장사를 창건한 진감 국사는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 와서 우리 나라에 전한 승려이다. 범패란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연주하는 불교 음악으로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순한 선율의 음악이다. 이런 이유로 이 남장사가 우리 나라 범패의 보급지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진감 선사는 경남 하동의 쌍계사도 창건했는데(당시 이름은 옥천사) 이곳에서도 범패를 가르쳤다고 한다. 또 진감 선사 이전에도 이미 신라에 범패가 유행했던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많다. 남장사는 상주 최고의 사찰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보물 제990호인 비로자나 철불 좌상, 보물 제922호인 목각탱과 관음선원에 있는 보물 제923호 목각탱 등의 뛰어난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말의 건축물인 극락보전의 솟을 꽃문은 그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01 **본사:** (=본산 本山) 한 종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큰 절을 뜻한다. 각 말사를 통할한다.

02 **말사:** 본사의 관리를 받는 절을 가리킨다.

5) 김룡사

신라 진평왕 10년(588) 운달 조사(雲達祖師)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그 이름을 운봉사(雲峰寺)라 하였다. 절의 이름이 김룡사로 바뀐 연유는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어 이곳 운봉사 아래에 피신하여 숨어 살면서 신녀가(神女家)를 만나 매양 지극한 정성으로 불전에 참회하더니 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용이라 하였다는 전설이다. 그 이후부터 가운이 크게 부유해져 사람들은 그를 김장자(金長者) 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리 이름 또한 김룡리(金龍里)라 하였으며, 운봉사 역시 김룡사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운달 조사의 개산 이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기까지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임진왜란으로 모두 탄 것을 다시 고쳐 지었다.

6) 기림사

석가모니가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승원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곳이 기원정사와 죽림정사이다. 특히 기원정사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스물 세 번의 하안거를 보낸 곳이다. 그 기원정사가 있는 숲을 기림(祇林)이라 하며, 경주 함월산 기림사는 거기서 따 온 이름이다.

기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의 본산인 불국사의 말사이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천축국(天竺國) 승려 광유(光有)가 창건, 임정사(林井寺)라고 하다가 원효(元曉, 617~686년)가 확장, 중수하고 기림사로 개칭하였다. 철종 14년(1863)에 법당과 요사(寮舍) 113칸이 불타 없어졌다. 당시 지방관이던 송정화(宋廷和)의 혜시(惠施)로 중건한 것이 현 건물이다. 다행히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동도역세제자기(東都歷世諸子記)〉, 〈부호장선생안(府戶長先生案)〉 등의 중요한 문적(文籍)과 근세 조선 역대 왕의 어필(御筆) 등이 화마를 피해 남았다.

이 밖에 목탑지(木塔址), 3층 석탑, 오백나한상(지방유형문화재 제214호) 등이 있고, 보물로 대적광전(大寂光殿: 보물 제833호), 건칠보살좌상(보물 제415호), 삼신불(보물 제958호), 복장 유물(보물 제959호) 등이 있다. 대적광전은 모란과 금강저 문양의 꽃문으로도 이름나다.

7) 사찰의 꽃문

불교 사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엄할 수 있었고 특히 불국토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법당 공간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정면의 문은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조선 시대에 창건·중건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건축 유산이다. 주변의 어느 전통 사찰을 방문하더라도 각 전각의 기능과 의미를 잘 표현하는 다양한 문살들을 관찰할 수 있다. 꽃문으로 특히 유명한 고찰로는 경상도 지방의 범어사, 통도사, 동화사, 용문사, 전라도 지방의 내소사, 불갑사, 선암사, 충청도 지방의 무량사, 마곡사, 개심사, 쌍개사 등이 있다.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 이명옥 · 김홍규 지음, 시공사, 2005.
- 『조선과학인물열전』, 김호 지음, 휴머니스트, 2003.
- 『한국 건축의 장』, 주남철 지음, 일지사, 1998.
- 『한옥에 살어리랏다』, 새로운 한옥을 위한 건축인 모임 지음, 돌베개, 2007.
- 『체험으로 즐기는 수학』, 김부윤 지음, 수학사랑, 2008.
- 『과학동아』, 2002년 2월호.
- 『미분과 적분』, 이강섭 외 6인 지음, 지학사, 2006.
- 『신 궁궐기행』, 이덕수 지음, 대원사, 2004.

참고 사이트

- 한국기와학회 ＞ 사진방

www.giwa.or.kr/giwa_index.aspx

- 기와의 구조

100.naver.com/slide/image_view.php?image_id=489799

방문하면 좋을 곳

청원산방: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장 심용식 씨가 운영하는 창호 전시장이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9.

조선 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부산 화신중학교 문 지 영

"호패법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호적(戶籍)을 정함이니, 이제부터는 대소신민(大小臣民)이 다 호패를 차게 하라……. 호패는 천하의 통법(通法)이다. 하나는 그 사람의 직임(職任)을 밝히고 하나는 그 호구(戶口)를 밝히며, 한편으로는 도적을 스스로 그치게 하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헤매거나 사는 곳을 잃는 근심을 없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 해를 생각하고 헤아려서 이제 이미 시행하기로 정하였으니, 종친·공신(功臣)·정부·육조 관리부터 반드시 착용하여 백성에게 보이도록 하라. 단지 염려되는 것은 변방의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집집마다 숨은 가솔 장정(率丁)을 잡아 내어 군액(軍額)에 충당하고, 다른 곳에 이사도 가지 못하게 얽매려나 보다.' 할 터이니, 짐은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널리 알리라. 어찌 국가에서 집집마다 장정들을 다 뽑아 가 너희의 생계를 빼앗으려 하겠는가? 또 산업(産業)을 경영함으로 인하여 행상(行商)하는 이들이나 더 좋은 땅에 살고자 하여 관에 고하고 이사하려는 이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할 수 있으리라. 이를 널리 행하여 알게 하고……. 자세히 상고하여 시행하라."

세조가 호패를 차게 하며 내린 어서,
『조선왕조실록』 세조 4년 무인(1458)년 4월 5일(임술)조.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요즘 전산화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하였을까? 개인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는 단지 자신을 증명하는 정보 단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한 자원이 된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들에 대한 자세한 통계 사항을 확보하고 관리하려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병역, 조세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민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가 오래 전부터 발달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조선 시대의 호패 제도다. 이번 수업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호패법(호패 제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 후, 모둠끼리 협동하여 호패의 특성을 탐구하는 사료 학습, 컴퓨터를 활용하여 호패의 제작 방법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조사 학습, 그리고 실제로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게 호패를 만드는 '나만의 호패 만들기' 제작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퍼즐 게임을 통해 중단원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학습을 한다. 역사 교과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 수업은 학생들이 호패의 특징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와 주민 관리 방법을 이해하며,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호패법의 목적과 호패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자신만의 독특한 호패를 만들어 본다.
다. 호패법에 담긴 조선 조정의 주민 관리 노력을 이해한다.

3. 수업 계획

먼저 사료 학습으로 모둠별로 나누어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과 『속대전』의 내용 안에 들어 있는 호패 제도를 찾아 보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호패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호패를 제작해 본다. 마지막으로 퍼즐 형식의 게임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강조한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 중요함을 정리하도록 한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조선 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02.
학습 주제
호패법의 목적과 특징을 알고,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와
주민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03.
준비물
• 파워포인트 자료 • 동영상
• 학습지 • 사료 • 나무 조각
• 각종 꾸미기 재료
• 육십갑자표 • 컴퓨터 등

04.
핵심 활동
1.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과
『속대전』 사료 조사
2. 호패의 제작 방법과
관리 방법 조사
3. 나만의 호패 만들기
4. 퍼즐 게임을 통해 중단원 학습
내용 정리

05.
학습 유형
• 사료 학습
• 조사 학습
• 제작 학습
• 게임 학습

06.
관련 단원
중학교 3학년 국사 5-(1)
조선의 성립

07.
수업 시기
3월, 4월

08.
시간
45분

09.
장소
사회과 교실(모둠 교실, 교실에서
모둠 만들어 수업 가능)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① "조선 시대에도 '주민등록증'이 있었을까요?" - 주민등록증의 목적을 설명한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 시장, 군수가 발급한다.) - 〈파워포인트 2〉를 보여 주며 질문한다. - 두 사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질문한다. - 모둠별로 토론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한다. - 공통점: 직인, 이름 기재 등 - 차이점: 사진의 유무, 크기, 재질, 기재 내용 등	자료 1. 파워포인트 유의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생증을 제시할 수도 있다.
	② 〈파워포인트 3〉의 뉴스 동영상을 보여 준다. - 오늘 학습할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다. - 뉴스 내용 중 상아, 서각, 출생 년도, 과거 급제의 연도 등을 강조한다.	자료 2. 뉴스 동영상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호패법의 목적과 호패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호패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호패법에 담긴 조선의 주민 관리 노력을 이해한다. 활동 1)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과 『속대전』 사료 조사 활동 2) 호패의 제작 방법과 관리 방법 조사 활동 3) 나만의 호패 만들기 활동 4) 퍼즐 게임을 통해 중단원 학습 내용 정리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과 『속대전』 사료 조사 ①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제시한 후 사료에서 알아내야 하는 주제를 알려 준다. ② 학생들은 사료를 읽으며 모둠별 주제의 답을 찾는다. - 모둠별 협동 학습을 할 때 유능한 학습자만이 활동을 하거나, 소외된 학습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실을 순회하면서 살펴본다. - 사료 학습은 많은 한자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컴퓨터 검색을 통해 뜻을 직접 유추하도록 한다.	자료 3. 호패의 이모저모 자료 4. 학습지–1, 2, 3, 4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 1모둠: 호패법의 목적을 찾는다. ○ 2모둠: 학습지의 자료를 보고 호패의 재질을 조사한다. - 종류 : 아패, 각패, 황양목패, 소목방패, 대목방패 - 조선 시대가 신분 사회임을 이해한 후,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도 달라짐을 이해한다. ○ 3모둠: 학습지의 자료를 보며 호패의 크기, 호패의 모양을 조사한다. - 과거의 길이 단위를 조사하여 현재 단위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비교한다. ○ 4모둠: 학습지의 자료를 보며 호패의 기재 사항 및 특징을 조사한다. - 신분이 낮을수록 호패의 기재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호패의 목적이 전체 인구를 파악하여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③ 4개의 모둠이 주제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④ 발표를 듣고 학생들의 발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가 부연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활동 2) 호패의 제작 방법과 관리 방법 조사 ① 〈학습지 5〉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역할극 대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게 한다. 이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패의 제작 방법과 관리 방법, 호패법을 어겼을 시 받는 형벌을 조사한다. - 역할극 대본에서 빈칸 부분을 위주로 검색하여 찾는다. 교사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돕는다. - 학생들은 역할극 대본의 정답을 들으며 자신들이 채운 정답과 비교한다. ② 역할극 대본을 읽어 보고자 하는 학생을 몇 명 뽑아 정답이 적힌 대본을 읽게 한다.	자료 5. 학습지–5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3) 나만의 호패 만들기** - 호패의 전체적 특징을 정리 및 설명한다. - 자신의 호패를 만든다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구상한다. - 호패 구상지에 자신이 만들 호패의 밑그림을 그린다. - 각자 들고 온 나무 조각에 자신의 호패를 만든다. 이 때 개성에 맞게 호패를 장신구나 솔 등으로 꾸민다. - 조선 시대에 사용던 호패의 크기와 비슷하게 제작하도록 하고, 만든 후에는 자신이 만든 호패의 재질, 특성 등을 설명하는 글을 덧붙인다. - 학생들이 만든 호패는 수행 평가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호패 만들기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 때 출생년도 등과 같이 연도를 표기할 때는 제시된 육십갑자표를 이용하여 호패를 만들도록 한다.	자료 6. 학습지–6 자료 7. 육십갑자표
	활동 4) 퍼즐 게임을 통해 중단원 학습 내용 정리 - 모둠별로 퍼즐 게임을 배부해 주고 학생들이 풀도록 시간을 준다. - 가장 먼저 퍼즐을 완성한 모둠(또는 학생)에게는 모둠 점수나 각종 보상을 준다.	자료 8. 학습지–7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② '나만의 호패 만들기'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차시까지 여유를 주고, 호패를 만들어 오도록 예고한다.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파워포인트 자료** (CD의 파워포인트 파일 참고)

자료.2 **뉴스 동영상** (이 책 224페이지 사이트 주소 참고)

자료.3 **호패의 이모저모**

1) 호패의 의미

- 조선 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신분에 관계없이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이다.

2) 호패의 목적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백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호구 파악)
- 직업과 계급을 분명히 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활용하기 위해

3) 호패의 종류

- **아패:** 조선 시대에 2품 이상의 문무관이 지니던 호패다. 상아로 만들었다.
- **각패:** 3품 이하의 관원과 삼의사의 관원으로 잡과에 급제한 사람이 차고 다니던 것으로 뿔로 만들었다.
- **황양목패:** 생원이나 진사가 차던 호패로 회양목(고향나무)으로 만들었다.
- **소목방패:** 유품이나 잡직 · 서인 · 향리, 서민은 자작나무로 만듦.
- **대목방패:** 공천 · 사천(공사노비)는 자작나무 또는 잡목(온갖 나무, 소나무 · 참나무 등)으로 만듦.

4) 호패의 크기와 모양

- **길이:** 3촌 7푼 ≒ 11.19cm
- **너비:** 1촌 3푼 ≒ 3.33cm
- **두께:** 2푼 ≒ 0.6cm
- **모양:** 위는 둥글고 아래를 모지게 함.

* **단위** 자 = 10 치 = 30.3 cm
촌(치) ⇒ 1치 = 1.1930inch = 3.0303cm
푼 = 0.1치 = 0.303cm ≒ 0.3cm

5) 호패의 기재 사항

- **고위 관료:** 기재 면제
- **현직 관료:** 관직만 기재, 그 외에 사대부는 전직 성명과 주소를 기재.
- **서민:** 얼굴의 색, 수염의 유무
- **군관:** 소속 부대와 키
- **잡색인:** 종사하는 부역, 주소
- **종:** 소속 집안, 나이, 주소, 얼굴 색, 수염 유무, 키 등
- 즉 신분이 낮을수록 기재하는 항목이 늘어났다.

6) 호패의 지급 및 반납

- **지급:**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삼사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 나머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관인 찍어 지급
- **반납:** 본인이 사망 시 관가에 호패를 반납

7) 호패의 관할 기관

- **서울:** 한성부
- **지방:** 관찰사 및 수령

8) 호패 위조 시 형벌

- **호패 위조, 또는 훔쳐서 사용한 자 :** 사형
- **빌려 차거나 빌려준 자 :** 장 100에 3년간 도형(徒刑, 강제 노역)

관리 김희의 호패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4 **모둠별 학습지**

① 학습지 – 1

우리는 호패 박사 : 호패의 의미와 호패법의 목적

● **호패란 무엇일까요?**

명나라 태조 황제의 법령과 기강은 엄하고 또 분명하여 군민의 무리에게 모두 호패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유망할 마음을 근절하여 호구가 증감하는 폐단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일제 중화 제도에 따라 모조리 갖추었는데, 오로지 호패만은 미치지 못하여 인민의 유망이 서로 잇따르고, 호구가 날마다 줄어듭니다. 감사와 수령이 비록 찾아서 잡는 데 정성을 다하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호패로 식별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하건대, 향장 · 사장 · 이장의 법을 세워서 1백 호에 향장을 두고 50호에 사장을 두고, 10호에 이장을 두어 양민과 천예(賤隷)의 액수를 두루 알지 않음이 없게 하고,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모두 호패를 주어 출입할 때에 차고 다니게 할 것입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두 토착이 되어 정한 직업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 군사를 강하게 하고 나라는 굳건히 하는 데 한 가지 모둠이 될 것입니다.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甲寅

● **호패는 왜 만들었을까요?(위의 글에서 찾아 보아요!)**

1. _____
2. _____
3. _____

② 학습지 – 2

우리는 호패 박사 : 호패의 종류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패용한다. 동반·서반 및 내관(內官) 2품 이상인 자는 아패(牙牌)를 패용하고, 삼의사(三醫司)로서 잡과에 등과한 자는 각패(角牌)를 패용하며, 생원 및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유품·잡직·사·서인·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사천(公私賤)·가리(假吏)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패용한다. 서울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각 해당 관(官)에서 낙인하여 이를 발급한다. 호패를 패용하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따라 처벌하고, 다른 사람의 호패를 패용한 자는 호적에 누락한 되로서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패를 빌려 준 사람은 장형(杖刑) 1백과 도형(徒刑) 3년에 처한다. 군병(軍兵)은 그대로 요패(腰牌)를 찬다.

— 『속대전』, 「호전」, 호적

● **호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호패는 (◯◯)에 따라 달라요!

아패 _____

각패 _____

황양목패 _____

소목방패 _____

대목방패 _____

● **이 단어가 어려워요! (글 속에 어려운 단어를 적어 봅시다)**

우리는 호패 박사 : 호패의 크기

> 의정부에서 호패법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모양은 길이가 3촌 7푼, 너비가 1촌 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합니다. 2품 이상은 상아를 쓰나 사슴뿔로 대용하고, 4품 이상에는 사슴뿔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위에서는 아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의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인 이하는 잡목을 씁니다. 본인이 호패를 바치도록 하며, 관에서 도장을 찍어 허락하고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나무를 바치도록 해 장인에게 만들게 합니다."
>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丁丑

● **아하! 옛날에는 이런 단위를 썼구나!**

촌(치)	
푼	
자	

● **호패의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길이: _____

너비: _____

두께: _____

모양: _____

● **호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호패 박사 : 호패의 기재 사항

> 호패에 기재할 항목은, 현직 관료는 관직만 기재하고 그 외 사대부는 전직·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서민의 호패에는 얼굴은 무슨 색이고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덧붙입니다. 군관은 소속 부대와 키를 적고 잡색인은 종사하는 부역과 주소를, 종들은 소속 집안과 나이, 주소, 얼굴 색, 수염 유무, 키를 적어서 낙인을 찍습니다. 고위 관료는 기재하는 것을 면제합니다.
>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丁丑

〈조선 시대는 신분 사회〉 조선 시대의 신분을 정리해 봅시다	신분에 따라 기재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하! 발견!
신분이 낮을수록 기재 내용이 ◯◯◯◯

자료.5 학습지 – 5

● **장면 1 _ 등장 인물** : 김 씨, 박 씨

김 씨: 어이, 그 소식 들었나? 호패법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호패라는 걸 만들어서 항상 차고 다녀야 된다는구만…….

박 씨: 호패? 그게 뭔가?

김 씨: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은 자작나무에 3촌 7푼 길이로 잘라서 이름이 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얼굴색,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을 적어서 관청에 내면 관청에서 확인을 해 준다고 하네…….

박 씨: 그러면 관청 도장(관인) 같은 것을 찍어서 확인해 준다는 말인게군……. 그런데 호패라는 그거, 안 만들면 안 되나? 나라에서는 뭣하러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군…….

김 씨: 호패법이라는 게 매우 강력해서 서울에서는 (____㉠____)에서 관리하고, 지방에선 (____㉡____)(____㉢____)이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구만…….

박 씨: 그런데, 저기 지나가는 저런 양반들도 호패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

김 씨: 저런 양반들은 우리 같이 직접 안 만들겠지? 옆 집 판씨가 그러는디……. 우리 동네에 가장 높은 양반 있잖어, 그 영의정에 오른 그 양반……. 그 양반은 호패에 적을 내용만 문서로 만들어 내면 (____㉣____)에서 만들어 준다는데…….

박 씨: 양반들은 이런 것도 편하게 하는구만……. 역시 사람은 신분이 높아야 혀.

● **장면 2 _ 등장 인물** : 사또(수령), 형리(형방에 딸린 아전), 갑돌이, 판돌이

형리: 사또. 저기 갑돌이는 호패를 위조한 죄로 여기 있사옵니다.

갑돌이: 아이고, 사또!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사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가? 갑돌이 네 놈은 호패를 위조한 대역죄를 지은 놈이니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갑돌이: 호패를 만들어 차고 댕기면 바로 군역에 끌려간다고 사람들이 그러기에……. 처자식을 먹여 살릴 곡식도 없는 마당에 세금도 내야 한다고 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형리: 호패를 위조하거나 훔쳐서 사용한 자에게는 (____㉤____)을 내려야 하옵니다.

사또: 네 죄는 네가 알렸다! (____㉤____)은 우리 (____㉥____)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니 우선 한성부에 알리겠노라. 너는 세 번의 심리 과정을 거치고 연말에 (____㉤____)을 받을 것이니라. 형리는 집행 연락이 올 때까지 저 놈을 옥에 가두거라.

형리: 예, 사또. 그리고 저기 있는 놈은 판돌이라 하온데, 호패를 빌려 차다가 걸렸사옵니다.

사또: 그래? 저 놈은 장(____㉦____)형에 3년간 (____㉧____)을 내리노라.

판돌이: 아이고! 사또, 장(____㉦____)은 너무 하옵니다. 3년간 (____㉧____)은 강제 노역인데, 제 가족들은 어찌 살라고……. 흑흑흑…….

정답: ㉠ 한성부 ㉡ 수령 ㉢ 관찰사(㉡, ㉢은 순서 상관없음) ㉣ 관청 ㉤ 사형 ㉥ 국왕(왕) ㉦ 100 ㉧ 도형

나만의 호패 만들기

앞면

- **크기:**
- **앞면 기재 내용:**
- **뒷면 기재 내용:**
- **기타 사항:**

뒷면

나의 호패를 소개합니다.

나의 신분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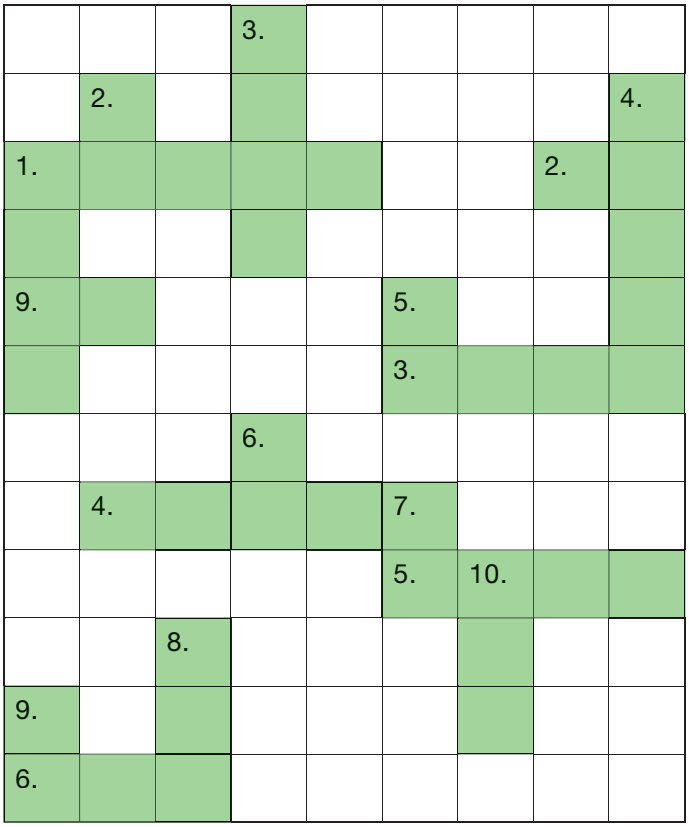
* 년도는 〈육십갑자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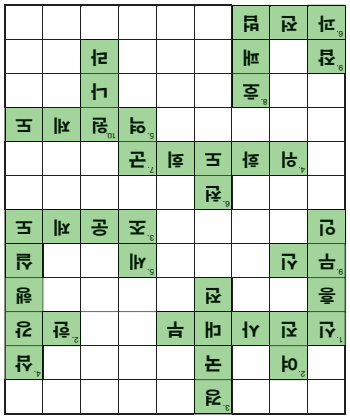
자료.7 육십갑자표(六十甲子表)

甲子(갑자)	1924, 1984, 2044	甲申(갑신)	1884, 1944, 2004	甲辰(갑진)	1904, 1964, 2024
乙丑(을축)	1925, 1985, 2045	乙酉(을유)	1885, 1945, 2005	乙巳(을사)	1905, 1965, 2025
丙寅(병인)	1926, 1986, 2046	丙戌(병술)	1886, 1946, 2006	丙吾(병오)	1906, 1966, 2026
丁卯(정묘)	1927, 1987, 2047	丁亥(정해)	1887, 1947, 2007	丁未(정미)	1907, 1967, 2027
戊辰(무진)	1928, 1988, 2048	戊子(무자)	1888, 1948, 2008	戊申(무신)	1908, 1968, 2028
己巳(기사)	1929, 1989, 2049	己丑(기축)	1889, 1949, 2009	己酉(기유)	1909, 1969, 2029
庚吾(경오)	1930, 1990, 2050	庚寅(경인)	1890, 1950, 2010	庚戌(경술)	1910, 1970, 2030
辛未(신미)	1931, 1991, 2051	辛卯(신묘)	1891, 1951, 2011	辛亥(신해)	1911, 1971, 2031
壬申(임신)	1932, 1992, 2052	壬辰(임진)	1892, 1952, 2012	壬子(임자)	1912, 1972, 2032
癸酉(계유)	1933, 1993, 2053	癸巳(계사)	1893, 1953, 2013	癸丑(계축)	1913, 1973, 2033
甲戌(갑술)	1934, 1994, 2054	甲吾(갑오)	1894, 1954, 2014	甲寅(갑인)	1914, 1974, 2034
乙亥(을해)	1935, 1995, 2055	乙未(을미)	1895, 1955, 2015	乙卯(을묘)	1915, 1975, 2035
丙子(병자)	1936, 1996, 2056	丙申(병신)	1896, 1956, 2016	丙辰(병진)	1916, 1976, 2036
丁丑(정축)	1937, 1997, 2057	丁酉(정유)	1897, 1957, 2017	丁巳(정사)	1917, 1977, 2037
戊寅(무인)	1938, 1998, 2058	戊戌(무술)	1898, 1958, 2018	戊吾(무오)	1918, 1978, 2038
己卯(기묘)	1939, 1999, 2059	己亥(기해)	1899, 1959, 2019	己未(기미)	1919, 1979, 2039
庚辰(경진)	1940, 2000, 2060	庚子(경자)	1900, 1960, 2020	庚申(경신)	1920, 1980, 2040
辛巳(신사)	1941, 2001, 2061	辛丑(신축)	1901, 1961, 2021	辛酉(신유)	1921, 1981, 2041
壬吾(임오)	1942, 2002, 2062	壬寅(임인)	1902, 1962, 2022	壬戌(임술)	1922, 1982, 2042
癸未(계미)	1943, 2003, 2063	癸卯(계묘)	1903, 1963, 2023	癸亥(계해)	1923, 1983, 2043

자료.8

학습지 – 7





퍼즐 정답

가로 열쇠

1. 성리학을 배경으로 고려 말에 등장하여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 정도전과 조준이 대표적.

2. ◯◯이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지요.

3. 지방에서 걷은 세곡을 수로나 해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제도.

4. 명이 철령 이북의 고려 땅을 요구하자 이성계가 반대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 압록강 가운데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한 사건.

5. 육로 여행자를 위해 교통(역마)과 숙박 시설(원)을 제공하는 제도.

6.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전, 현직 관리에게 재분배한 법.

9. 문신들의 횡포에 맞서 ◯◯들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권세를 얻으려 했다.

세로 열쇠

1.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면서 명성을 쌓고 또 관직을 받아 중앙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

2. 이 민족은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으며, 17세기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는데, 뒤에 청나라로 발전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3. 성종 때 완성한 것으로 조선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가 마련됨.

4. 세종 때 중국과 우리 나라의 충신, 효자, 열녀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 책.

5. 이 왕은 사육신을 제거하고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6. 도읍을 옮김. 遷都.

7. 군대에서 복역하거나 군대의 진영에서 부역하는 일.

8. 태종 때 실시한 법으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신분 증명패를 가지고 다니는 법.

9. 조선 시대 과거 제도는 문과, 무과, ◯◯가 있어요.

10. 몽골 고원에서 살던 유목 민족이 세운 국가로 황제 쿠빌라이가 중국을 통일했다.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호패법

1) 호패법이란

우리 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신분 증명 제도가 실시된 것은 조선 태종대에 실시된 호패법으로 알려졌다. 호패란 조선 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패로서 지금의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 기원은 중국의 원나라로 추정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왕 3년(1354)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륙군정(水陸軍丁)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 지속적 논의를 거친 후 태종 13년(1413) 9월 황사후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호패는 왕실, 조관으로부터 서민 공사천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호구와 장정의 수를 명백히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함은 물론 직업, 계급에 따른 신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병역의 의무와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역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외출 시 누구나 소지하게 함으로써 필요시 신분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호패
조선 시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호패를 들고 있는 초상화
하용표(河龍杓) 초상,
전(傳) 채용신(蔡龍臣) 그림,
191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호패법에 의하여 누구나 소지해야 했던 호패는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달랐는데,「태종실록」및『속대전』에 규정된 신분별 호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태종실록」의 규정	『속대전』의 규정
2품 이상 – 상아 또는 녹각	2품 이상 – 아패
4품 이상 – 녹각 또는 황양목	3품 이하, 잡과 합격자 – 각패
5품 이상 – 황양목 또는 자작목	생원, 진사 – 황양목패
7품 이하 – 자작목	잡직, 서인, 서리 – 소목방패
서인이하 – 잡목	공, 사, 천 – 대목방패

호패의 관리 책임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에게 있었다. 그 지급 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삼사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그 밖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관인을 찍어 지급하였다.『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호패를 위조하거나 훔쳐서 사용한 자는 사형, 빌려 차거나 빌려 준 자는 장 100대에 3년간 도형, 즉 강제 노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丁丑)일

"호패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만약 패를 바치고 호패를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논죄하며, 그 기일 이후에 호패를 받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논죄합니다. 만약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는 자가 있으며 각각 2등을 감합니다. 유이(流移)하는 자는 1등을 감하며, 이상(里長), 수령(守令)으로서 능히 고찰하여 본거지로 쇄환(刷還)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2등을 감하며, 관진(關津)의 관리로서 호패가 없는 이를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도 또한 2등을 감합니다. 호패를 위조하는 자에 의하여 태형(笞刑)을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패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응위율로써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 호패 제도의 변천

태종 13년(1413)에 처음으로 시행된 호패 제도는 그 뒤 숙종(1674~1720년 재위) 초까지 다섯 차례나 중단되었다. 호패 제도가 여러 번 중단된 이유는 호패를 받으면 곧 호적과 군적(軍籍)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부역을 져야만 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기피한 까닭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백성들은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가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었다. 또한 군역을 피하기 위해 자진하여 서원으로 투탁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받은 호패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를 막으려고 기재 내용을 호패 위에 붓으로 쓰던 것을 칼로 새기도록 한 적도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세종대왕도 호패법 시행이 부진한 것을 여러 차례 따져 물었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호패 제도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위조 호패, 호패 미소지, 호패 분실 등 호패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판결과 처벌이 너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 폐지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호패의 위조자는 극형, 호패를 차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조 때에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호패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세조 9년(1464) 1월 12일 호패법 개정 내용

- 당상관(정3품 이상 벼슬아치)의 호패는 상아를 쓴다. 소뼈, 사슴뿔도 통용한다. 3품 이하 천민에 이르기까지는 잡목을 쓴다.
- 비록 양적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여러 해 동안 양인으로 지내고 보증인이 있는 사람은 양인으로 간주한다.
- 천적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양인으로 하되, 비록 천적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천민으로 부역을 담당해 온 사람은 천민으로 간주한다.
- 양인 이하는 얼굴 생김새를 쓰되 얼굴의 흉터 · 애꾸눈 · 귀의 쪼개짐 · 언청이 · 절름발이 같이 외모에 표가 나는 것은 모두 기재한다.
- 몰래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양인을 노비로 기록한 사람은 곤장 100대에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긴다.

그러나 정묘호란(1627년)으로 군병 충당과 군량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과 운영상의 폐단 때문에 호패법은 1627년에 폐지되었다. 즉 적정 연령이 된 자가 호적에 입적되자마자 공노비, 사노비로 투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호패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 역시 농민에 대해 물질적 급부 없이 오직 필요한 국역 부담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단속만 강화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 의식이 있었다. 때문에 강력한 국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효과를 별로 얻지 못하였다.

3) 호패의 문제점

호패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근본 이유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여 부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과,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호패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선진적 제도였으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다고는 하나, 노비 등에게는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호패 소지자에 부과되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노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전체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둘째, 위조하기가 쉬워 위조 호패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고, 이로 인해 호패 소지자와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다. 즉 호패에는 소지자의 이름과 본관, 생년, 현직 신분 등이 기재되었는데, 이것이 실재 소지자의 정확한 신분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호패에 기록된 정보와 소지자와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차후 국민 신분증 제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가 되었다.

헤이그 특사
이상설(李相卨,
1870~1917년)의 호패 ,
독립기념관 소장

1. 2. 3.

1. **김동일(金東一)의 호패**
그는 진사(進士)이고, 본 거주지는 삼척(三陟)인데, 이 호패는 임오년(壬午年)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김낙숭(金樂崇)의 호패**
그는 유학(幼學)인데, 이 호패는 병진년(丙辰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김설현(金卨鉉)의 호패**
그가 신축년(辛丑年)에 태어났고, 정묘년(丁卯年)에 무과에 올랐으며, 임신년(壬申年)에 관직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02. 조선 시대의 형벌

1) 형벌의 종류

조선 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이용하였는데, 그 첫머리에 태(笞)·장(杖)·도(徒)·류(流)·사(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 형벌이 적혀 있다. 태, 장형의 경우는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태와 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원래 『대명률』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푸레나무를 사용하였고 없으면 다른 나무를 대신 썼다고 한다.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와 비슷하였다. 1년·1년 반·2년·2년 반·3년까지 기간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각각에 장60형·장70형·장80형·장90형·장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유형은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2,500리·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으며, 각각에 장 100형을 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극형인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다. 목을 매는 교형은 그나마 신체는 온전히 할 수 있었으므로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이라 하여 반역자와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더 가혹한 사형 집행 방식이었다. 또한 효수라 하여 참형에 처한 후 머리를 매달아 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2) 사법 기구

정식 사법 기구로는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 삼법사 및 의금부와 지방의 관찰사, 수령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비변사, 포도청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직접 심문할 수 있었다. 일반 사법 행정은 형조에서 관장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각종 소송과 사건에 대한 상급심 역할도 형조가 맡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형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이 가지고 있었고, 관청별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 군현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태형에 처할 만한 가벼운 범죄의 경우만 수령이 직접 처결할 수 있었으며, 장형 이상의 죄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국왕에 보고하였고, 국왕이 그 내용을 듣고 사형 여부를 결정하였다.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세 차례의 심리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사형을 집행당하였다.

03. 조선 시대의 관직과 품계

품계	문관	무관	지방직	부인의 품계	현대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	영사 도제조 대장		정경부인	국무총리
종1품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판사		정경부인	부총리
정2품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지사 제조 도총관		정부인	장관 차관 본부장 대장 도지사
종2품	동지사 참판 상선	동지사 부총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정부인	차관보 중장
정3품	참의 직제학	첨지사 별장	목사 병마절도사	숙부인 숙인	관리관 소장
종3품	집의 사간	대호군 부장	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	숙인	이사관 국장 준장
정4품	사인 장령	호군		영인	부이사관 대령
종4품	경력 첨정	경력 부호군 첨정	군수 병마동첨절제사	영인	중령
정5품	정랑 별좌 교리	사직		공인	서기관 소령 군수

품계	문관	무관	지방직	부인의 품계	현대
종5품	도사 판관	도사 부사직 판관		고인	부군수
정6품	좌랑 별제		도사 찬관 현령	의인	사무관 대위 면장
종6품	주부 교수	부장 수문장 종사관		의인	
정7품	박사	시정 참군	찰방 현감 교수 병마절제도위	안인	주사 계장 중위
종7품	직장	부사정		안인	
정8품	저작	사맹		단인	주사보 소위 준위
종8품	봉사	부사맹		단인	
정9품	부봉사 정차 훈도	사용		유인	서기 상사 중사
종9품	참봉	부사용 별장		유인	서기보 하사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 노회찬 지음, 일빛출판사, 2004.
-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과 그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양창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 「광해군대의 정국동향과 내정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하여」, 박시용,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3.
- 「조선전기의 호적법: 왕조실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달곤, 法學論集, 1987.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청년사, 2007.
- 『한국생활사 박물관(조선생활관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지음, 2005.
- 『우리네 사람들의 멋과 풍류』, 서울역사박물관 엮음, 2006.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 호패

www.cha.go.kr

- 서울역사박물관 > 호패

www.museum.seoul.kr

- 뉴스 동영상(자료.2)

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gonews&id=10229917&keyword=%C8%A3%C6%D0

10.

전통미를 담은 디자인

경기 동구중학교 곽 정 원

나는 조선 시대 백자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잘생긴 며느리' 같다는 말로 표현한 일이 있다. 실상 조선 백자 항아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우 추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잘생긴 며느리 같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다.
잘생겼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다르고 또 잘생겼다는 말에 며느리를 더하면 한층 함축성 있는 뜻을 지니게 된다. 잘생겼다는 말은 얄밉지 않다는 말도 되고 또 원만하고 너그럽다는 말도 되며 믿음직스럽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백자 항아리의 아름다움 속에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요소들과 귀여운 며느리가 지닌 미덕이 함께 있는 셈이 된다. 둥글고 풍요한 어깨에 알맞게 솟은 입이 있고, 허리 아래가 너무 홀쳤구나 싶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상큼한 아랫도리의 맵시가 아니고서는 이 항아리의 잘생긴 몸체를 가눌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싶어 진다.

최순우,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

01.
수업을 열며

1. 수업 개관

2008년 초, 방화로 인해 숭례문이 전소된 사건이 벌어졌다. 국보 1호로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했던 문화재가 그렇게도 허망하게 사라진 것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반성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7차 미술과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화 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련된 표현 기능을 배우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정서를 느끼며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인으로 기르는 데 더 힘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미적 체험', '표현' 및 '감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학습한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이 있는 문화 유산을 조사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디자인과 연결시켜 새로운 작품으로 표현해 본다. 이로써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문화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여 전통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수업 목표

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나. 전통미가 담긴 디자인을 구상하여 작품 제작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 쓰임새에 맞는 적절한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구상한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한다.

3. 수업 계획

한국의 전통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 다음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디자인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하고, 전통 문화 유산 중에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보고 싶은 것을 정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

4. 선행되어야 할 학습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 후기까지의 우리 나라의 미술을 감상하고,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이해한다.

02.
수업 지도안

01.
수업명
전통미를 담은 디자인

02.
학습 주제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 디자인하기

03.
준비물
- 각자 선택하여 조사해 온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
- 연필 • 지우개 • 풀
- 가위 • 색연필 등
-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재료

04.
핵심 활동
1. 한국의 전통미 알아보기
2. 디자인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3.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 제작 계획서 쓰기
4. 미술품 제작 준비 및 제작하기

05.
학습 유형
- 조사 탐구 학습
- 프로젝트 학습

06.
관련 단원
중학교 3학년 미술

07.
학습 시기
3~4월

08.
시간
200분(4차시)

09.
장소
교실

● 1차시수업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전통'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전통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나눈다. -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가 전통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토론한 다음, 계승해야 할 가치를 찾는다. 활동 1) 한국의 전통미 알아보기 활동 2) 디자인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파워포인트 자료와 교과서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한국의 전통미 알아보기 ① 전통미의 뜻을 설명한다. 전통미(傳統美)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② 한국의 전통미가 드러난 여러 예들을 설명한다. - 건축: 규모가 비교적 작고 높이가 낮으며, 지붕선이 대체로 곡선인 한옥, 여러 궁궐들 - 조각: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태와 잔잔한 미소의 불상 - 공예: 자연스러운 곡선의 형태와 동식물 무늬의 도자기, 목공예 - 회화: 담백한 맛의 진경산수화와 구수한 맛의 풍속화 ③ 전통미를 재창조할 때, 중요한 점을 설명한다. 재창조란, 전통 문화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 정신을 찾아 배우면서, 맥을 이어 가는 것이다. ④ 전통미를 느끼고 그것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자료 1. 한국의 전통미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활동 2) 디자인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① 디자인의 뜻을 설명한다. 디자인은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 주는 미술 활동을 의미한다. ②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디자인의 종류에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산업(제품) 디자인 등이 있다. ③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디자인의 예를 발표한다. 예) 휴대 전화, 옷, 가방, 필기 도구, 그릇, 가구 등	자료 2. 디자인에 대한 조사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다음 수업 안내 ① 참고 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현대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은 문화 유산을 조사해 오도록 한다. ② 준비물: 각자 선택하여 조사해 온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 연필, 지우개, 풀, 가위, 색연필 등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재료	

● 2차시수업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전 시간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 우수한 계획서와 학생 디자인 작품을 보여 준다. - 참고 자료들을 함께 감상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전통미가 담긴 디자인을 구상하여 작품 제작 계획서를 작성한다. 활동 1)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 제작 계획서 쓰기	파워포인트 자료와 교과서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 제작 계획서 쓰기 ① 계획서 배부 및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 글씨를 명확하게 쓰고 내용을 풍부하게 서술한다. - 아이디어 스케치는 채색을 포함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다. - 조사해 온 자료들은 계획서 후면에 첨부한다. ② 순회 지도를 통하여 다음 차시에 준비할 재료와 용구를 학습자 개개인과 의논한다. ③ 완성된 계획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과 의논하여 계획서에 적은 개개인의 재료와 용구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와 직접 실물을 제작하도록 한다.	자료 3. 생활 속의 미술 작품 제작 계획서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발표 - 완성된 계획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다음 수업 안내 - 교사는 미술품 제작을 위한 재료와 용구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도록 지도한다.	

● 3, 4차시수업

단계	교수 과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 동기 유발 - 전 시간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 우수한 계획서와 학생 디자인 작품을 보여 준다. - 참고 자료들을 함께 감상한다. 2. 학습 목표 제시 및 활동 순서 안내하기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구상한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한다. 활동 1) 작품 제작 준비 및 제작하기	파워포인트 자료와 교과서
전개	3. 활동하기 활동 1) 작품 제작 준비 및 제작하기 ① 작품 제작을 할 때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 칼이나 가위, 철사 등 날카로운 재료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접착제나 물감에 의하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형태를 제작한 후에 꾸미기 및 채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주변 환경 및 재료와 용구를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작품을 제작한다. ② 지난 시간에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사는 순회하며 개인별로 형태나 색채 등의 보완점을 지도한다.	자료 4. 준비 및 제작(실물 참고 작품)
정리	4. 정리 및 평가하기 ①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② 교사는 작품에 대하여 잘 된 점을 칭찬해 주고 보완할 점을 지적해 준다. ③ 주변 환경 및 재료와 용구를 깨끗하게 정돈한다.	

03.
수업용 참고 자료

자료.1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전통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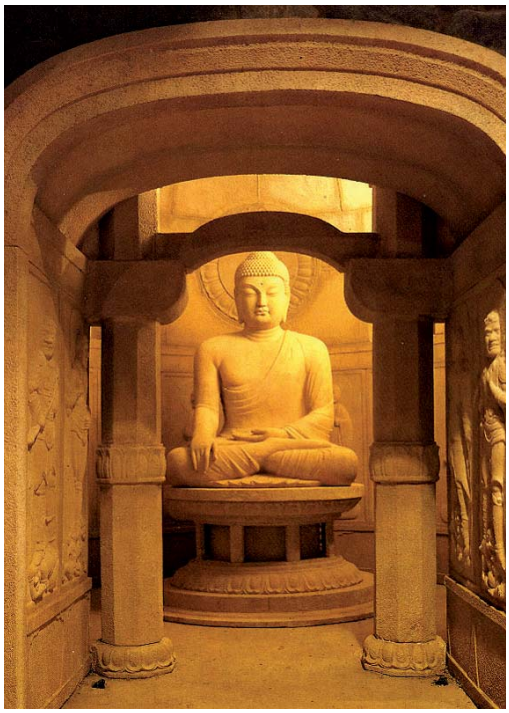
①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수평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궁궐과 한옥의 단아하면서도 날렵함, 정원의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절, 석탑, 부도 등의 불교 건축물에서 보이는 정돈되고 안정적인 장중함이 한국 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② **조각**: 한국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불상은 부드러운 곡선과 섬세한 표현을 통해 다른 아시아 지역의 불상에 비해 온화한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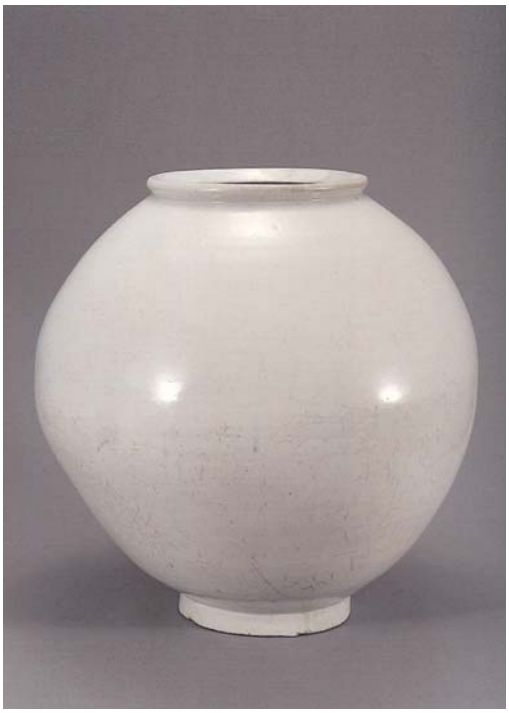
③ **공예**: 한국 공예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고려의 청자와 조선의 백자이다. 고려의 청자는 최고의 기술을 통해 얻어낸 품위 있는 색조와 아름다운 선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장식 없는 백자 항아리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느낌을 주는 독특함이 있다. 그 외에 나전 칠기 공예품이나 각종 장신구에서는 화려하면서도 정돈된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④ **회화**: 겸재 정선(鄭敾, 1676~1759년)으로 대표되는 진경산수화는 과감한 표현법과 묵색의 창연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풍속을 잘 기록한 김홍도의 작품은 독특한 장면 구성으로 그림을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평민들이 그린 민화에서는 단순하고 투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년)의 그림에서는 자신의 생활에서 기인한 아기자기한 여성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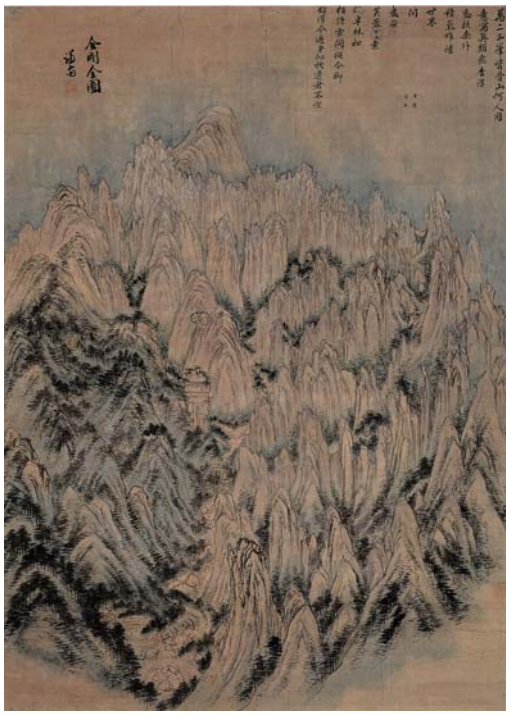
창덕궁, 조선 시대, 서울



석굴암 본존불, 통일 신라 시대, 경주



백자 달항아리,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강전도, 정선, 조선 시대, 호암미술관 소장

* 전통미의 재창조

조형이 보여 주는 세상의 아름다움 중에는 낡아 가는 것과 새로워 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고려 청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오늘의 식탁에 고려 청자기를 닮은 그릇들을
그대로 만들어 쓴다 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며 육중한 조선 시대의 유기 그릇들을 되올려도
꼴이 안 될 것이다. 즉 그것들은 각기 그 시대의 생활 공간, 생활 양식과 조화를 이룬 작품일 뿐더러
오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유장한 시대 감각이 짙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과거 조선 시대의 유물 중에는 아직도 새롭고 앞으로도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조형의 아름다움이 적지 않는다. 그것은 전통 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통해서 한국미의 오늘을
자리 잡아 줄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며, 시대를 초월해서 근대적이고 또 건강한 아름다움으로까지
번져 나갈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최순우,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세상을 살아가는 맛」 중

자료.2 디자인에 대한 조사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표시하다,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는 뜻의 라틴어 'designare'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조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분야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 선사 시대의 돌도끼나 토기 또한 그것의 쓰임에 맞게 구상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산업이 발달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다. 그때부터 디자인은 경제적 의미에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의 디자인이 성립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본다.

● 디자인의 조건

- ◦ 합목적성 디자인을 통해 구성된 것은 그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 ◦ 심미성 디자인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 ◦ 경제성 디자인은 그것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경제적, 시간적 노력을 들여 목표한 것을 이끌어 내야 한다.
- ◦ 독창성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 차별되는 지점을 만들어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 질서성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잘 조화하여, 그 디자인만의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 디자인의 과정

- ◦ 욕구 과정 우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또는 어떠한 용도로, 갖고 싶고 만들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가 생기는 단계.
- ◦ 조형 과정 머릿속으로 그 형태를 구체화하려고 스케치 또는 작도를 하며, 더 구체적 사용 자재, 제작 방법, 마감, 색채, 재료 등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각화하여 욕구에 형태를 부여하는 단계.
- ◦ 재료 과정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 특성 등의 지식이 필요한 단계로, 과학적 광범위한 지식과 깊은 경험이 요구되는 단계.
- ◦ 기술 과정 선택한 소재를 가지고 총체적 기술로 구체적 형태를 주는 단계.

* 의자 디자인의 예

아르네 야콥슨
(Arne Jacobsen)
개미 의자

에로 아르니오
(Eero Aarnio)
글로브

알바르 알토
(Alvar Aalto)
파이미오(Paimio)

자료.3 **생활 속의 미술 작품 제작 계획서**(수행 평가 반영)

자연,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생활 속의 미술 작품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생활 속의 미술 작품 제작 계획서

제출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작품 분야	**해당 분야에 ◯표 할 것**(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작품 제목	
재료와 용구	
제작 동기와 작품 설명	

아이디어 스케치

채색까지 하여 작품의 완성된 모습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할 것
용지가 모자랄 경우 별지 첨부 – 환경 디자인의 경우 자신의 바꿀 장소의 원래 사진이나 스케치를 뒷장에 첨부할 것

자료.4 준비 및 제작(실물 참고 작품)

04.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01. 한국의 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의 요소들을 실제 생활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의 전통이 부정되는 동시에 많은 유물과 예술 작품들이 유출되었고, 근대화 물결이 밀려오던 때에는 전통적 생활 용품 및 건축 양식이 오래되고 낡아 바꿔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어져 왔으며, 그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은 한국미를 다시 돌아보고 그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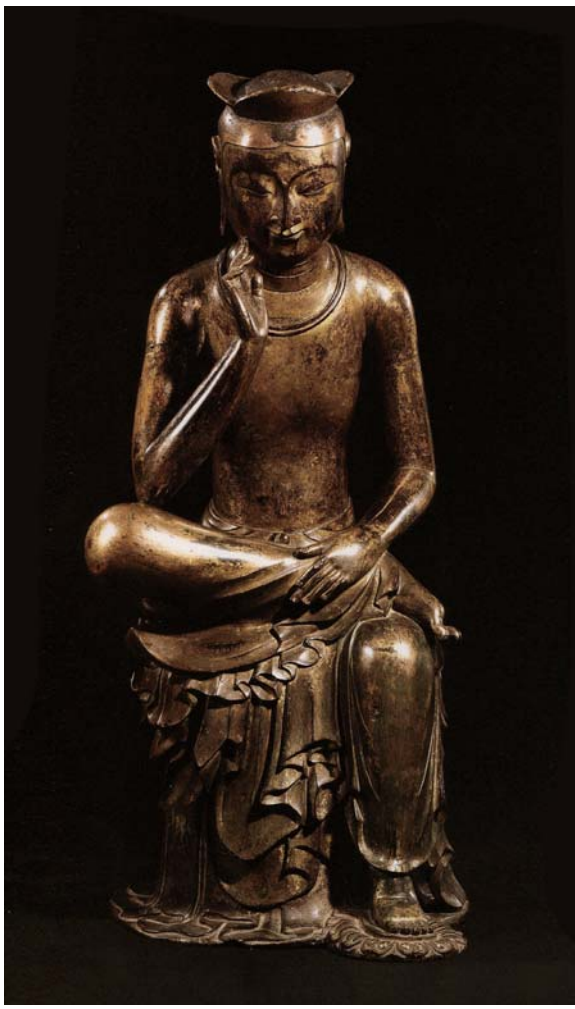
한국 미론을 정립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학자는 우현 고유섭(高裕燮, 1905~1944년)과 독일인 미술학자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년)이다. 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주장한 '소박미'와 '자연미'는 한국미론의 큰 흐름을 형성하여, 이후의 한국 미술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에카르트는 특히 "삶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절제와 간소 취향은 조선 가옥 건축물의 특색"이라고 하면서 한국적 미의 전형을 구조의 단순성으로 해석하였다.

우리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학자 고유섭은 한국미의 특색을 "구수한 큰 맛", "무기교의 기교", "적요한 유모어", "어른 같은 아해", "비균제성", "무관심성"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목재의 본형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추녀의 곡선을 형성할 때 곧은 나무를 굴곡지게 기교적으로 깎아 쓰지 않는 것을 주목하였는데, 그는 이를 두고 '무관심성'이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인의 미적 체험의 원리적 근거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예술이 구별될 수 없는 상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하였다.

또 일본인으로 한국의 생활 공예품에 빠져, 민예론을 주창했던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년)는 최고의 장인이 아닌 무명의 민중들이 만들어 낸 잡기들이 가진 "평범"하고 "무심"한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석굴암과 첨성대, 지붕의 처마선이나 버선에 흐르는 선의 아름다움을 조선의 미로 규정하기도 했다.

서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윤희순(尹喜淳, 1907~1947년)은 반도 특유의 기후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맑은 가을 하늘과도 같은 청초함과 대륙과는 다른 조화의 미를 한국의 아름다움으로 꼽았다. 그리고 고유섭의 미론을 이어 받은 최순우(崔淳雨, 1916~1984년)는 소박한 조선 시대 자기와 목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유려한 문장으로 예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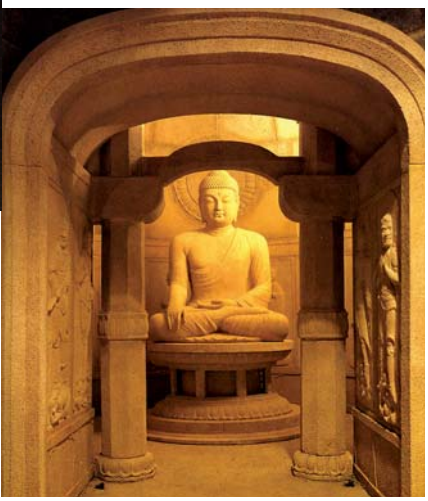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의 저자인 이동주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의 화법을 조명했으며, 예술 철학을 연구하면서 한국미의 정체성을 꾸준히 탐구했던 조요한(趙要翰, 1926~2002년)은 민화 및 〈인면문 와당〉 등에서 평민들의 한과 해학미를 읽어 냈다.



←
씨름도
김홍도,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금동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분청사기 모란 무늬 장군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인면문 와당
통일 신라 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석굴암 본존불
통일 신라 시대,
경주

↘
초충도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2.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4대 조건인 합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이 조화를 이뤄 질서를 획득한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으로 본다. 즉, 디자인된 대상의 쓰임에 충실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며, 그것이 산업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적합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넓게는 문화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새롭게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에 대한 의견은 나뉠 수 있다.

1850년대 미술 공예 운동을 전개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년)는 산업화에 저항하여,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에 의지한 단순한 디자인을 주창했으나, 그로부터 100년 후 팝아트(Pop Art)로부터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은 산업화를 이용해 개발된 소재를 통해 대량 생산 체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디자인은 사회적 흐름 및 디자이너의 철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흐름에 따라 디자인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Good Experience)을 주고,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굿 디자인(Good Design)

굿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950~1955년, 뉴욕 현대 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에서 개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인 굿 디자인 전시회에서 처음 현대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실 굿 디자인 전시의 목적은 당시의 모던 디자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굿 디자인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레고 블럭

나뭇잎 접시
타피오 비르칼라
(Tapio Wirkkala)

에리코폰(Ericofon)
에릭슨(Lars Magnus Ericsson)

03. 한국 전통 생활 용품들에 녹아 있는 굿 디자인

① 부채: 더운 여름날에 간단하게 더위를 식히는 쓰임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모양으로 미적 즐거움을 준다. 나무로 된 살을 반원이 되도록 엮은 부채는 쓰지 않을 때는 편하게 접어 둘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부채에 그려 넣은 그림은 펼쳤을 때 심심하지 않고 멋스럽게 보이도록 한다.

② 조각보: 과거에는 다른 물건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아 조각보를 만들곤 했다. 소박하게 천을 이어 붙여 만든 것도 있고, 더 모양을 내어 자수를 넣은 것도 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도 어지럽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디자인 감각이 엿보인다.

③ 목가구: 우리의 전통 목가구는 좋은 나무를 사용해 쓰면 쓸수록 손때를 타면서 기품을 자아낸다. 사랑방에 두고 책을 꽂아두거나, 간단한 물건을 보관하는 최소한의 쓰임에 충실하면서도 아름다운 비례로 보는 즐거움을 준다. 또 나전칠기로 장식한 장식장은 오묘한 빛을 내는 나전칠기의 문양으로 인해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합죽선
조선 후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태극선
조선 후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각보
조선 후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나비당초문 이층장
나전칠장 기능 보유자
손대현 작품

©서현강

서안(書案)
조선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5.
참고 문헌 자료 및 웹사이트

참고 도서

- 『미술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 『제7차 교육과정해설서 및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의 美 특강』, 오주석 지음, 솔, 2005.
-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 최순우 지음, 학고재, 2002.
-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권영필 외 지음, 돌베개, 2005.
- 『구수한 큰 맛』, 고유섭 지음, 진홍섭 엮음, 다할미디어, 2005.
-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박차지연 지음, 두리미디어, 2005.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지음, 창작과비평사, 1993.
-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엄기표 외 지음, 시공테크, 2002.
-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 안 보니 지음, 박찬규 옮김, 다빈치, 2008.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www.cha.go.kr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www.heritage.go.kr
- 맹범호의 미술교육자료실
www.chunghyo.net/index.html
-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재미 있는 문화 유산 수업

2008년도
문화 유산 교실 수업 프로그램
공모 우수작

청소년에게 우수한 문화재를 소개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학습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날 발전한 시청각 기술과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 유산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대전광역시
서구 한사로 139
●
tel.
042)
481-4740
●
fax.
042)
481-4749

www.cha.go.kr

ISBN 978-89-6325-037-3 93370